

An aerial photograph of a residential area. A wide river flows along the right side of the image. A multi-lane road runs parallel to the river. The area is filled with various types of buildings, including small houses with colorful roofs and larger apartment complexes. There are also some open fields and a small pond in the center. The overall scene depicts a typical suburban or rural development.

CAMP LONG

태장2동 캠프 롱
기록화사업(사진아카이브)

태장2동 캠프 룡

기록화사업(사진아카이브)



사 업 명 : 태장2동 캠프 룡 기록화사업(사진아카이브)

사업기간 : 2020.12.18.~2021.08.14.

발 행 일 : 2021. 8.

발주기관 : 원주시청 도시재생과

수행기관 :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원주 태장2동
미군기지 캠프 통 아카이브



※ 캠프 롱(영어: Camp Long)은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미국 육군의 주둔지로 R-401 비행장 관리 업무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2010년 6월 4일자로 폐쇄되었다. 캠프의 이름은 1951년 한국 전쟁 중 원주 부근에서 세운 공로로 명예 훈장을 받은 육군 병장 찰스 R. 롱(Sergeant Charles R. Long)을 기려 지었다. 그는 전사 당시 제2보병사단 38보병연대 M중대 소속 박격포소대의 전방 관측병이었다.

CAMP LONG

Contents

태장2동 캠프 롱

기록화사업(사진아카이브)

01 _ 사업개요 / 07

02 _ 원주시대 / 29

03 _ 군사도시 원주 / 43

04 _ 캠프 롱 근현대사 / 65

05 _ 캠프 롱 연대기 / 85

06 _ 사진아카이브 / 93

07 _ 캠프 롱을 기억하는 방식 / 109

08 _ 미군기지 캠프 롱의 건축 / 151

09 _ 시민행동의 위대한 여정 2001~2020 / 167

10 _ 우리 땅 캠프 롱 / 203



0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I 사업목적

1. 사업명

- 태장2동 캠프 룡 기록화사업(사진아카이브)

2. 사업배경

- 미군기지 캠프 룡 70년의 역사를 보존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사진아카이브 구축
- 지역 이미지를 상징해 온 군사도시 원주와 미군기지 캠프 룡의 역사적 · 장소적 · 문화적 자원의 수집과 정리
- 캠프 룡과 함께 성장한 지역과 주민의 삶에 관한 기록으로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캠프 룡 주요 건축(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건축사적 가치 검토, 평가

3. 사업개요

1)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2020. 12. 18 ~ 2021. 08. 14

2) 공간적 범위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캠프 룡 일원

3) 내용적 범위

- 캠프 룡 생활 · 문화 · 공간(건축)의 현장 자원 조사 및 사진아카이브 구축
- 캠프 룡과 관련된 태장동의 시대적, 사회적, 역사문화 자원 발굴, 정리
- 군사도시 원주를 기억하는 주민,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술기록 작업
- 캠프 룡 미군 건축(시설)물에 대한 건축사적 가치 검토, 평가 자문

II 세부계획

1. 분야별 참여인력 및 사업내용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연구원
총괄P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 롱 기록화사업 기획,진행 - 캠프 롱 미군기지 건축물 사진아카이브 - 캠프 롱 관련 옛 기록자료(사진,문서 등) 수집 	김시동
원주 군사문화 및 캠프 롱 시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문화 도시 원주의 시간적 · 공간적 시대사 조사,연구,정리(역사 · 문화 · 장소 · 사건) - 캠프 롱 미군기지 주둔 및 폐쇄 연표 정리 	이기원
구술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 롱과 관련된 지역 주민 대상 구술 작업 - 캠프 롱에서 근무한 인물 대상 구술 작업 	원상호 이새보미야
캠프 롱 건축 아카이브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 롱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건축사적 가치 검토, 평가 - 조사대상 건축물(시설)에 대한 분석, 연구, 의견 제시. 	김철환

2. 사업 성과품

구 분	종 류	성 과 품 내 용	수 량	방 식
1	사진 및 스토리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콘텐츠 : 500건 이상 - 1,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사진 파일 - 구술 기록이 포함된 스토리 콘텐츠 포함 	1식	USB 저장장치
2	최종 성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물 편집, 디자인 : 150p 이상 - 성과물 pdf 전자파일 ○ 성과물 제본 : 20부 	20부	A4

III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수 행 과 정	비 고
<1단계> 2020. 12 ~ 2021. 02	■ 기획, 현장 사진기록 작업, 자료 수집	착수
	• 사전 조사 및 현장답사, 사진기록 작업 진행	
	• 아카이브 프로젝트팀 구성 • 캠프 룡 관련 기록자료 정보 수집 - 언론보도 및 아카이브 기관, 검색 • 사진기록 및 구술 인터뷰 작업 준비 - 캠프 룡 및 태장2동 인터뷰 대상, 인물 섭외	
<2단계> 2021. 03 ~ 2021. 06	■ 조사 · 기록 · 집필 • 지역 주민 및 캠프 룡 관련 인물 인터뷰 작업 • 군사문화도시 원주와 캠프 룡 성장사 정리 • 캠프 룡 건축(시설물)에 대한 건축사적 보존가치 정리 • 사진아카이브 작업 • 자료 정리 및 객관화 - 구술 자료의 객관성 입증을 위한 사료 분석 - 분류 및 객관화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	중간
<3단계> 2021. 07 ~ 2021. 08. 14	■ 아카이브 보완 · 수정	최종
	• 사진 기록물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및 정리 - 사진기록물 후보정, 편집 - 주제별 카테고리 선정, 분류, 정리 작업 • 구술 기록 정리, 편집	
	■ 최종 성과물 정리 및 납품	
	• 캠프 룡 아카이브 최종 보고회 개최 • 성과품 : 사진아카이브, 제본인쇄물, pdf파일	

IV 캠프 룡 및 한국전쟁 원주기록 수집

- 원주 관련 한국전쟁 자료 조사 및 언론보도 기사
- 미군기지 기름유출 및 미군기지 반환 시민사회단체 활동 기록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원주전투 관련 기록물
- 국가기록원, 전쟁기념관 아카이브 사진기록물
- 원주시역사박물관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기록화보
- 개인 소장 기록물 수집

V 캠프 룡 아카이브 콘텐츠 목록

구 분	목 차	주 요 내 용
01	사업개요	① 캠프 룡 아카이브 ② 원주, 그리고 태장
02	원주시대	① 전략적 군사 요충지 원주 ② 한국전쟁과 원주
03	군사도시 원주	① 군사도시, 원주의 탄생 ② 사진이 기억하는 원주
04	캠프 룡 근현대사	① 캠프 룡 설치부터 반환까지 ② 시간이 남긴 70년
05	캠프 룡 연대기	① 캠프 룡 연대기
06	사진아카이브	① 캠프 룡 사진아카이브
07	캠프 룡의 기억과 기록	① 국제도시 태장, 캠프 룡을 기억하는 방식
08	캠프 룡의 건축	① 캠프 룡 미군 건축물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 ② 존치 건축물 현황
09	땅의 기억	① 기억하다. 시민행동 2001-2020
10	우리 땅 캠프 룡	① 우리 품으로 돌아오다. 캠프2020

한국전쟁 당시 원주 북쪽에 위치한 공병기지창 항공사진
현재의 우산동 군수지원사령부와 정지들이다_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1953.05.03





1970년대 촬영된 원주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 앞으로 대성중고등학교, 원주여고, 잠사공장, 원동성당, 시공관, 원주천 스케이트장, 원주초등학교, 원주대학,
중앙선 철도와 원주역, 급수탑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_국가기록원



근원의 땅, 원주

동쪽에 치악산을 두고 자리 잡은 원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쪽에는 차령산맥의 줄기가 치악산의 비로봉과 삼봉·향로봉·남대봉, 백운산으로 이어져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고, 서북부는 비교적 낮은 산줄기가 완만한 경사로 뺨어 내리면서 넓은 산기슭과 들을 형성하고 있다. 치악산의 물이 모인 원주천(봉천)과 백운산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이 모인 서곡천은 원주 시내를 관통하여 섬강으로 유입되고, 섬강은 다시 남서쪽으로 흐르며 부론면에서 남한강으로 들어간다. 이들 강이 흐르면서 넓은 원주 분지와 기름진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인류가 살기에 풍족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부족연맹국가형태로 발전하였던 삼한시대에 원주 지방은 마한의 가장 동쪽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마한의 영토를 통합하였을 때에는 백제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정립하였을 때에는 삼국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원주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남과 북으로 진출하는데 발판이 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찍이 고구려는 원주에 평원군(平原郡)을 설치하였고, 신라는 북원소경(北原小京)을 설치하였으며, 신라가 삼국을 평정한 후에는 북원경(北原京)이라고 하여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이 지역이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원(平原)이라는 이름에 이미 넓은 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주는 초기부터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한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평원, 북원을 이어받은 원주(原州)라는 이름은 고려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후, 고려태조 왕건 23년(940)에 원주라고 이름을 바꾼 이래 몇 번의 변경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지역은 현재까지 원주로 불리고 있다.



원주시 전경, 좌측 강원감영과 함께 초가집으로 조성된 시내 모습. 1930년대



원주 행구동 꽃밭머리에서 촬영한 원주 전경 2019

지방행정의 통치와 교화의 정책에 따라서 원주의 행정구역 명칭은 목(牧)이나 도호부(都護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군(郡)이나 현(縣)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변천이 있었는데, 숙종 9년(1683)에는 원성현(原城縣)으로 강등되었다가 같은 38년(1712)에 다시 원주목으로 복구되었으며, 영조 4년(1728)에도 현으로 격하되었다가 같은 13년(1737)에 다시 원주목이 되었다. 고종 32년(1895)에 23부제(府制)의 실시와 함께 원주군(原州郡)으로 되면서 충주부 소속이 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강원도로 이속 되었으나 원주군이라는 명칭은 광복 후 시·군이 분리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1955년에는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지역을 원주시(原州市)와 원성군(原城郡)으로 분리하였다가 1989년에는 원성군의 이름을 다시 원주군으로 하였고, 1995년에는 시·군을 통합하면서 면(面) 지역도 원주시로 편입되었다. (원주지명총람2019_원주시역사박물관)



011 0289 DET 01-67TRW US F 20NOV59 Z0418 2,500' 36"
P(25)(23°) R KOREA P-11 1C08

태장 2동 전경 1959



원주의 관문, 태장

태장1동은 원주시청에서 동북방으로 3.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치악산국립공원과 영동고속도로 새말IC(동횡성)가 연결되는 42번 국도와 5번 국도(현충로)가 교차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하여 학성동, 동남쪽으로는 봉산동, 북쪽으로는 태장2동과 접해 있다.



태장2동 사무소 1974

태장2동은 시 북단에 위치하고 시청에서 5.3km 떨어져 있으며 캠프롱 미군기지와 1군사령부 등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군사지역으로 우산동과 태장1동·호저면·소초면과 인접하고 있다. 태장 2동은 현재 1군 사령부의 통합 이전과 캠프롱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되는 국립과학관, 시립미술관, 박물관 등의 복합문화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태장 1동은 소일택지 개발과 원주 화장터 이전, 학성초등학교 신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이다.



태장2동 2021



태장2동 복원로 2021

태장의 유래

[유래1] 성종의 왕녀 복란(福蘭) 공주의 태실(胎室)이 있으므로 ‘태장(胎藏)’이라 하였는데 일제 때 편의상 태장(台庄)이라 하였다고 한다. 태장(胎藏, 台庄)이란 마을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유래2]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던 시대에 이곳에서 견훤과 왕건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왕건이 이곳에서 크게 패했다고 한다. 그 후로 패장(敗將)이라고 부르다 조선시대에 풍수지리상 크게 될 것 같다고 태장(台庄)이라고 바꾸었다고도 한다.

[유래3] 예로부터 북극에 위치한 북두칠성과 인접한 대능좌(大能座)의 삼태성(三台星) 즉, 상태성(上台星) · 중태성(中台星) · 하태성(下台星)을 합하여 삼태성이라고 하고 삼태성은 영의정(領議政) · 좌의정(左議政) · 우의정(右議政)과도 비유하여 삼공의 지위를 삼태성(三台星)이라고도 경칭하여 왔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태장동(台庄洞)은 원주시 북방에 위치하였으며 원래는 상태장(上台庄) · 중태장(中台庄) · 하태장(下台庄) 등 삼개부락이 삼태성 모양으로 형성되었다 하여 태장이라 칭하였다. 특히 원주는 5백년간(1395~1895) 강원감영을 설치하였던 고장으로 태장동은 원주의 관문이어서 관할 지역에서 공사 업무를 주마(走馬)와 보행(步行)으로 왕래하며 음식점과 여인숙 · 마방(馬房) 등 편의시설을 갖춘 번화가였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으로 상태장·중태장은 초토화되어 현재 군용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옛 상태장은 고속버스 정류장 앞 일대이며, 중태장은 학다리 앞 군용기지 일대, 하태장은 현재 한일주유소 앞 일대라고 한다.

태장동(台庄洞)은 본래 원주군 본부면(원주읍)의 지역으로 태봉(胎峰)이 있으므로 태장(胎藏)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이리(二里)와 삼리(三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태장리라 하였고 1938년 원주읍제 실시에 의하여 태장정이 되었다. 1955년 원주가 시로 승격함에 따라 태장동 1·2구로 분리되었고 1961년 연합동제에 따라 태장동으로 통합 운영되었으며 1970년 인구의 증가로 1·2동으로 나누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장2동 하태장 1971



태장2동의 상징

■ '왕녀복란태실비' (王女福蘭胎室碑)

조선 중기 성종의 딸 복란의 태를 묻은 곳으로, 이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이 태실은 태지석에 의하면, 1486년 10월 13일에 태어난 성종의 딸 복란의 태를 1486년 12월 19일에 묻은 곳이다. 태실이란 아이를 낳게 되면 생기는 태를 묻은 곳이며, 그 산을 태봉산이라 한다. 특히 왕실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병이 없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5개월 정도가 지나면 미리 정해 둔 전국의 명당 터 산의 맨 꼭대기에 태실을 묻었다. 이름이 태장동이거나 태봉산은 대부분 태실이 있던 곳이다. 이 곳에는 태봉산이라 불리던 작은 산이 있었으나 아파트 건립으로 없어지게 되자 1991년 한림대학교에서 발굴하여 돌 향아리와 덮개돌은 한림대학교 정원으로 옮겨갔다. 태를 담았던 백자 태향아리와 주인공의 출생일, 태를 묻은 날을 기록한 태지석은 발굴 이전에 도굴되었다가 지금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원주시역사박물관)

■ 절골

긴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우성1차아파트 동쪽이다. 절이 있었다고 하여 절골로 부른다.

■ 적동

적동저수지 북서쪽, 현 우성1차아파트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적골', '절골' 이라고도 한다. 캠프롱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 적동저수지

적동에 있는 저수지로 절골저수지라고도 부른다. 캠프롱 미군기지의 경계에 있다.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조용하고 아담한 저수지다.

■ 충견비

현 우성1차아파트 부근 적동 입구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70년대에 현재의 장양초등학교로 옮겼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전형적인 '개' 전설로, 술이 취해 쓰러진 주인을 구하고 죽는다는 내용이나 비면에는 '孝子元氏' 라고 되어 있다. 연유를 알 수 없고 건립 시기도 알 수 없다.



■ 태장동 선사유적

하태장 서쪽, 옛 국군통합병원 터에서 청동기와 철기, 원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 및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흥양천과 원주천이 합류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을 말한다. 가현동의 노리개와 청룡마을 지역이다.

■ 태장시장(북원상가)

하태장에 있는 시장으로 현 북원상가 지역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태장시장(台庄市場)'이라 하였다.

■ 학다리

현 북원교(北原橋)의 다른 이름이다. 다리 양쪽에 학 조형을 세워 놓았으므로 학다리라고 부른다.



북원상가



북원교 학다리 조형물 2017

■ 현충탑

태장동 현충로에 있는 충혼탑이다. 한국전쟁 당시 순국한 군인, 경찰, 청년 등 순국 충혼 680위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탑이다. 1966년 학성동의 심기연 씨가 대지 1만여 평을 희사하여 그해 6월 6일에 제막과 동시에 전사자 680위의 영령을 봉안하였다.

■ 흥양천

치악산 삼봉과 투구봉에서 시작하여 황골,살여울, 태장동을 지나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돌모루개울', '석우천' 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대교천(大橋川)'이라 하였다.



현충탑 제막식 1966.6.6. 태장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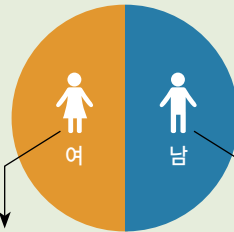
흥양천 2021

통계로 보는 태장동

원 주 시



세대수
- 154,583세대



177,497명 (외국인 포함) 175,363명



총인구수
- 352,860명

태 장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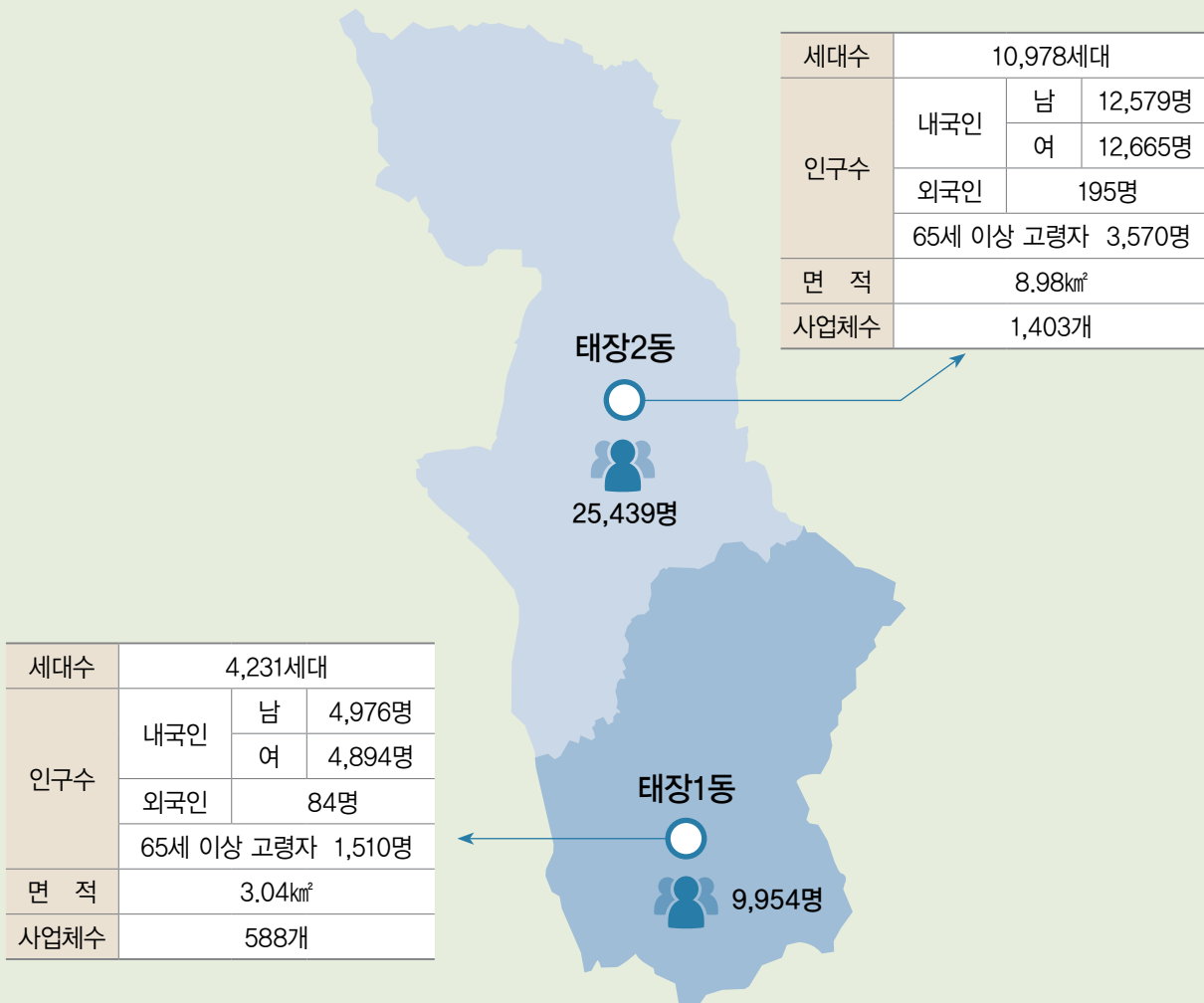
세 대 수	총 인 구	면 적	사업체 수
15,209세대	35,393명	12.02km ²	1,991개



태장2동 전경 2021

태장2동 공공시설 현황

- 공공기관 1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 교육기관 4 : 장양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태장초등학교, 북원중학교
- 체육시설 7 : 태장농공단지 족구장, 태장초 인조잔디구장, 태봉초교 농구장, 북원 게이트볼장, 가현동 게이트볼장, 태장2동 북원게이트볼장, 흥양천변 게이트볼장
- 사회복지시설 8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북원상가노인문화센터, 원주시위스타트마을,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원주아동센터,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밝음지역아동센터, 효장원재가방문요양센터





02

원주시대

삼국 항쟁의 자취 서린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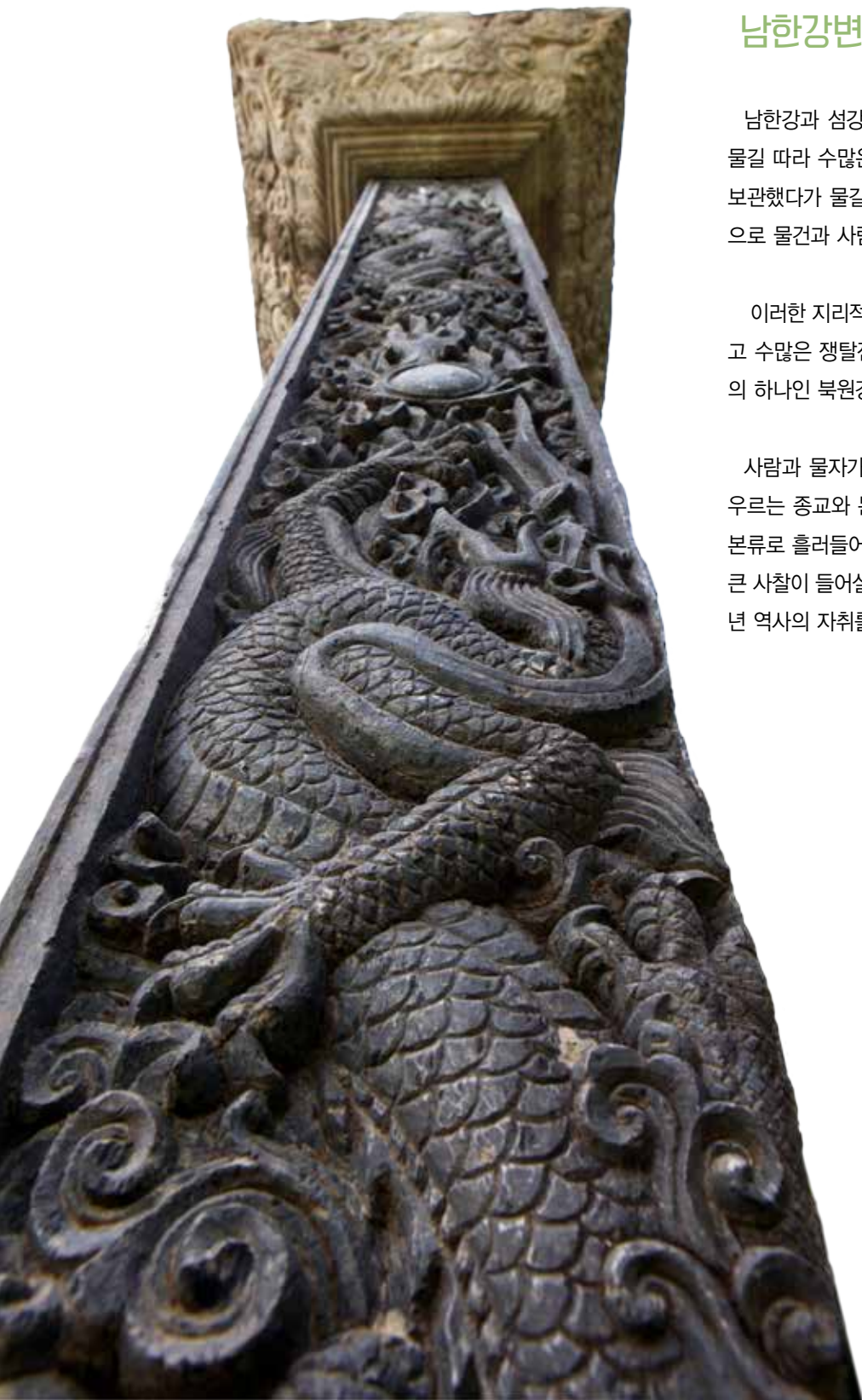
원주가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 삼국 항쟁의 과정에서 한강 유역을 장악한 국가가 주도권을 잡았다.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는 한강을 장악하고 삼국 항쟁 과정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삼국 초기 백제 영토였던 원주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어 평원군이 되었다.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수도 한성까지 함락당하고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신라가 동맹을 깨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원주는 신라 영토가 되었다.

삼국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항쟁의 자취는 견훤산성, 금대산성, 금두산성 등 원주 곳곳에 남아 있는 산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9주 5소경 제도를 실시하였다. 원주에는 5소경의 하나였던 북원경이 설치되었다. 북원경은 소백산맥 북쪽 단양, 제천부터 김화 원산을 아우르는 중심지였다.



국가사적 법천사지와 지광국사탑비_부론면 법천리



남한강변에 거대한 사찰이 세워진 까닭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원주는 세곡이 드나드는 경제 중심지였고, 물길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던 교통의 중심지였다. 세곡을 모아 보관했다가 물길에 배를 띄워 수도로 세곡을 운반하던 흥원창을 중심으로 물건과 사람이 넘쳐났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남한강의 수로를 장악하려고 수많은 쟁탈전이 벌어졌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원주에 5소경의 하나인 북원경을 설치해서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로 삼았다.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는 시대와 사상을 아우르는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 한강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 북원경은 당대를 대표하는 큰 사찰이 들어설 수 있는 적지였다.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돈사지는 천 년 역사의 자취를 간직한 채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격동의 세월 신라 말 · 고려 초

8세기 말 신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고, 지방에서는 과중한 세금에 반발한 농민들이 봉기하는 가운데 호족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이루어 주변 세력을 흡수하면서 새 국가 건설을 꿈꾸던 호족들 중에 단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궁예, 견훤, 왕건 등이었고, 기울어가는 신라 왕실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던 인물이 경순왕이었다. 격동의 세월을 헤치며 살아왔던 이들의 자취가 원주에 고스란히 남아 전하고 있다.

후삼국의 격전지 문막에는 왕건과 견훤의 자취가 남아 있다. 문막읍 건동리에는 왕건이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건등산이 있고 그 맞은편 문막읍 후용리와 궁촌리의 경계에 위치한 견훤성은 견훤이 진을 쳤던 성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부면 금대리 영원산성은 궁예가 세력을 키운 곳이고, 귀래면 주포리 미륵산에는 경순왕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는 마애불상이 있다.

신라 말,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지방 호족 세력이 저마다 세력을 키우던 격동의 시기 원주 일대는 격전지였다. 후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 왕조가 수립되기까지 과정에서 시대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의 자취는 원주 곳곳에 남아 있다.



국가사적 거둔사지_부론면 정산리

외적에 맞서 싸우다 - 임진왜란

영원 산성은 치악산 동쪽의 험한 절벽에 쌓은 산성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함경도 안변에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평창과 영월을 공격하는 동안, 원주에서는 식량과 무기를 모으고 성곽을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였다.

평창과 영월을 공격한 일본군이 주천과 신림을 거쳐 원주로 공격해왔다. 원주 목사 김제갑은 백성과 군사를 영원 산성에 집결시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치악산 절벽에 쌓아 올린 영원 산성은 천혜의 요새였지만, 5000명도 채 안 되는 병력으로 일본군을 격퇴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본군을 상대로 이틀 동안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화살마져 떨어지면서 함락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원주를 점령하고 지평과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지했다. 또 횡성을 거쳐 춘천을 점령한 뒤에는 강원도 전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강원도를 장악한 일본군은 원주, 김화, 철원에 주둔하였다. 강원도에 주둔하며 살육과 약탈을 일삼던 일본군은 1593년 4월 한양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철수할 때 함께 떠났다.



김제갑 목사 충열비_학성동

II 한국전쟁과 원주

원주 함락과 미 공군의 공습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흥천이 함락되고 횡성이 점령당한 후 원주를 향하는 북한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전차와 박격포를 앞세운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국군은 충주 전선으로 이동 배치되는 상황이었다.

7월 1일 제6사단은 충주 전선으로 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원주를 출발 제천을 거쳐 충주로 철수를 오후에 완료했다. 제7연대는 원주에서 대략적인 정비를 마치고 7월 1일 아침 신림고개에 이르러 564 고지와 818 고지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갖추고 주저항선을 갖추었다. 대전차포와 장갑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산발적인 공격에 맞서 여러 번 격퇴하면서 작전에 따라 7연대도 충주로 철수를 했다.



7월 2일 원주는 북한군에 점령당했다. 이후 며칠 동안 북한군이 전열을 정비하며 원주에 머물렀다. 7월 4일 원주 상공에서 전투기의 폭격이 이어졌다. 전국의 주요 전략 거점 지역을 미 공군 전투기가 공습하는 과정에서 전략 거점 원주에서도 엄청난 폭격이 이루어졌다. 주영복은 당시 폭격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소나기 퍼붓듯 떨어지는 포탄,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 콩 볶는 소리 내며 두드리는 기총소사, 그리고 치솟는 검은 연기, 이날 전국에 걸쳐 미 공군의 공격은 더욱 치열해졌다. 38선 이남에서나 이북에서의 한반도 상공은 이미 미 공군의 독무대였다.”



한국전쟁 당시 금대리 백척철교 1951

인천 상륙작전과 원주 수복



1951년 2월 20일 원주 전방 전선에서 맥아더와 리지웨이 장군이 전황에 대해 의견 나누는 모습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는 역전되어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다. 여세를 몰아 국군과 유엔군은 대부분의 전선에서 북진을 거듭했다. 충주를 거쳐 원주를 되찾았던 주력 부대는 6사단 2연대, 7연대, 19연대였다.

9월 30일, 제2연대 선발대였던 제3대대는 원주를 거쳐 횡성까지 진격했고 제1대대는 충주에서 출발해서 원주로 들어왔고, 제2대대는 괴산에 집결 부대를 재정비했다. 10월 1일 선발대였던 제3대대는 횡성을 출발해서 흥천을 거쳐 춘천 원창리 부근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춘천까지 진격했다. 제7연대는 9월 30일 충주, 청풍 일대에서 진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10월 1일 원주로 들어와 지휘소를 설치했다. 제19연대는 9월 30일 충주에서 양평 방면으로 돌아 원주로 들어왔고, 10월 1일 원주에서 횡성을 거쳐 양평으로 진격해서 북한군 대대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원주와 제천 사이에서 고립에 빠진 북한군과 원주 - 제천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미 공군 전투기가 공중에서 원주를 공습했다. 이 공습에서 원주 경찰서가 잿더미가 되었다. 공습 당시 원주경찰서에 있던 경찰관들과 부역이나 좌익 활동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한국전쟁 당시 폭파된 백척철교와 미군 병사들 1951

1·4 후퇴와 원주 재탈환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거쳐 초산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빠르게 진격했다. 하지만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1·4 후퇴로 이어졌다. 강원도 각 지역 철수는 1951년 1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지역별로 전개되었다. 1월 1일 춘천 철수 이후, 홍천과 인제가 2일, 원주가 3일에 철수했다. 동해안의 주문진은 6일, 강릉은 7일 철수가 이루어졌다. 1·4후퇴 때 강원 도청은 부산까지 이동했다. 1951년 2월 국군과 유엔군이 총반격을 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3월 13일 서울을 탈환하고 3월 24일 38선을 돌파했다. 강원도의 경우 3월 1일 원주 재탈환을 시작으로 강릉, 영월, 횡성, 정선, 평창, 춘천, 주문진 등 38선 이남 지역 대부분을 국군과 유엔군이 장악했다.

1·4 후퇴 이후 부산까지 피난 갔던 강원도청의 업무는,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재탈환한 원주에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원주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되었다. 원주에서의 도정 업무는 1951년 4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6.25 전쟁 기간 중 실제 행정권은 유엔사령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강원도 지역의 실제 행정권한이 강원도로 최종 이관된 것은 휴전협정이 체결되고도 1년이 지난 1954년 11월에야 이루어졌다. 유엔사령부의 통제를 받았던 이 기간이 전략 요충지였던 원주가 군사 도시로 변화해가는 길목이었다.



원주의 피난민 집결지에서 피난민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이 곳은 한국측 인사에 의해 운영되며, 유엔민간원조 사령부(UNCACK)의 지도를 받는다. 1951.08.01

민간인 학살

6.25 전쟁 때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북한군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보도연맹 관련자와 형무소에 수감된 좌익 세력을 집단 처형했다. 또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이유로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했고, 미 공군에 의해 피란민이 무차별 폭격을 당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주 곳곳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1950년 6월 30일 원주 형무소(원주경찰서 대용감방)에 수용되어 있던 180명 정치사상범을 이감 명목으로 포승줄로 묶어 트럭 5대에 나누어 태운 뒤 원주 뒷산으로 끌고가 학살했다. 원주 뒷산은 현재 반곡동 반곡역 인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1950년 9월 30일 국군이 원주를 수복한 후 소위 빨갱이 색출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국군은 보도연맹원과 국군 후퇴 당시 인민군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색출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20여 명을 감금 심하게 고문하고 원주로 이송한다면서 끌고 나가 동화리 세고개 숲속에서 학살했다. 반곡동 유만마을, 흥업면 매지리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이 범국민 조사위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고, 문막에서 부론으로 넘어가는 부문재, 금대리에서 신림으로 넘어가는 치악재 등에서도 학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북한군과 좌익 세력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반동분자’라는 명목으로 경찰, 군인, 공무원, 지주와 가족들을 처형했다. 학살은 학살을 낳았다. 국군과 북한군이 번갈아 점령한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끼리 편이 나뉘어 서로 공격하는 일도 잇따랐다. 수시로 뒤바뀌는 체제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반동분자’, ‘빨갱이’, ‘부역자’라는 딱지가 언제 자신에게 붙여질지 몰라 두려워하며 살았다. 학살당한 사람들의 가족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 했다.

수용소와 피난민촌

1951년 2월 16일 만종 뒷산 325고지 전투에서 중국군을 격퇴한 후 원주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까지 북한과 중국군에 점령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 접경 지역이었던 철원, 김화,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양양 일대를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접경 지역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온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접경 지역과 가까운 흥천 이북 지역에 대한 소개령이 내린 상태라 춘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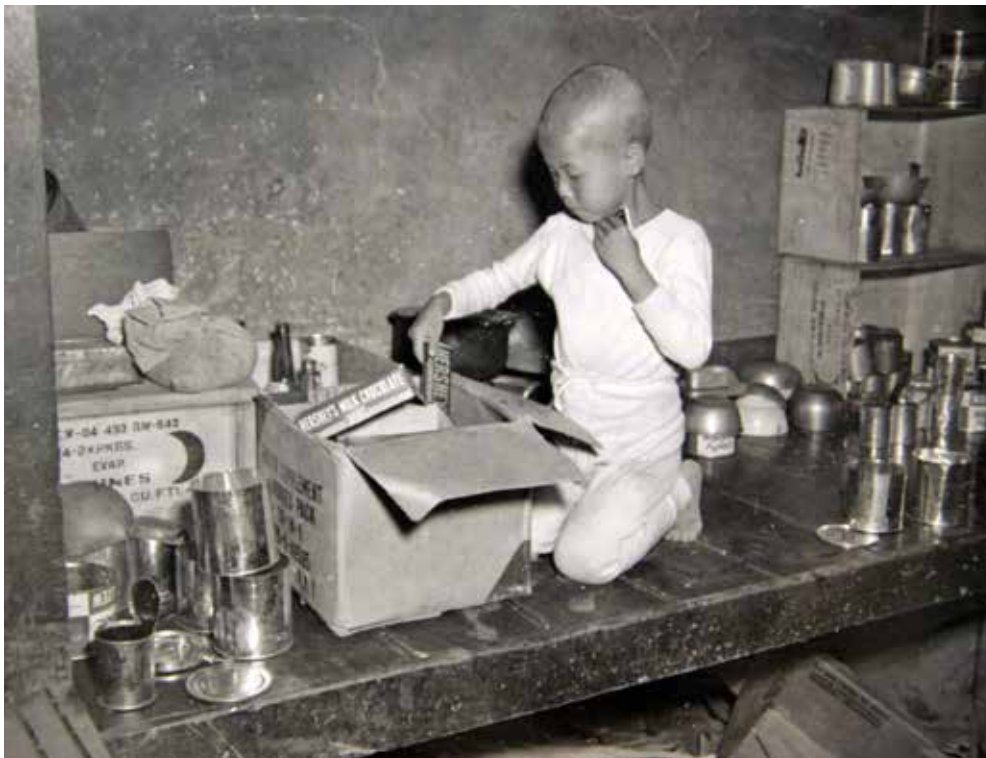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피난민들은 원주로 몰려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에 많은 수용소가 세워졌다. 당시 강원도에는 10개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중 아홉 곳이 원주에 세워졌다. 원주 읍내와 흥업면에 각각 두 개의 수용소가 있었고, 서곡, 귀래, 부론, 문막, 지정 수용소가 있었다. 원주에 세워진 수용소를 제외한 강원도내 수용소는 주문진 수용소가 유일하다.

원주 제1 수용소는 향교골에 있었고, 제2 수용소는 남부시장 길 건너 하천변에 있었다. 서곡 수용소는 서곡3리 주변에 있었고, 흥업 제1 수용소는 밤골에, 제2 수용소는 사제리에 있었다. 귀래 수용소는 귀래면 운남리에 있었다. 부론 수용소는 부론 초등학교에 있었고, 문막 수용소는 취병리에 있었다.

피난민과 전재민을 수용했던 수용소 외에도 군인과 경찰의 유가족들이 모여 살았던 모자원이 봉산동에 세워졌고, 윤락 여성들이 모여 살았던 학성동 희망촌, 나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대명원과 경천원이 있었고, 원동 남산 산동네에도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다.

원주에 들어와 머물렀던 피난민과 전재민은 수용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았다. 수용소에 수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 주변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미군이 지원해준 목재 송판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지었는데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그나마도 구할 수 없었다. 땅을 파고 돌을 쌓아 움막을 짓고 배급받고 남은 가마니나 거적을 덮고 살았다.

유엔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은 있었지만 생활용품은 턱없이 부족했다.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용 담요를 옷이나 이불로 사용했고, 강통을 그릇 대용으로 활용했다. 부대에서 먹다 버린 음식을 걸러서 먹었다.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 부스러기를 모아 끓인 부대찌개가 이때 만들어진 음식이다.



미8군 187수송대대 장병들이 돌보는 한국인 고아가 초콜릿 바를 꺼내는 모습. 1951.06.20

崔永福교수의 韓國史紀行

터

<67>

新羅 북진기지...高麗창업의 原點

手記의 外傳

崔永福

【서울 12월 9일】 신라 북진기지의 원형이 드러나고 있다. 고령군 대곡면 대곡리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유물들이 신라시대 북진기지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발굴된 유물들은 신라시대 북진기지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발굴된 유물들은 신라시대 북진기지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9백년소굴 간직한 法泉寺 玄妙塔碑. 原州 善德王 法泉寺 玄妙塔碑. 9백년소굴 간직한 法泉寺 玄妙塔碑. 原州 善德王 法泉寺 玄妙塔碑.

雉岳에 서린 麗末선비 元天錫 개
寺刹址 百20여곳...전원山城 그대로

原州

송의 遺蹟

원주에 있는 송나라의 유물들이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대가람 法泉寺의 石物·석축우물 保存대책 시급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03

군사도시 원주

전후 복구 - 군수품 보급기지 건설과 도로망 구축

전쟁은 사람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그래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후, 그간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문명이 파괴된다. 하지만 전쟁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변화를 창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중앙시장 1951

6·25 전쟁 초기 원주가 북한군에 점령당한 후 미 공군의 폭격으로 원주 시가지는 엄청나게 파괴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수복되었던 원주를 1.4후퇴 이후 다시 점령당하고 재수복하는 과정에서 미 공군의 폭격이 이어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도시의 각종 시설물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1952년 말 조사된 피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원주 시가지의 피해 규모는 70~90%에 이르렀으니 시가지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수준이었다.

시가지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6.25 전쟁 직후 주거와 식량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절실했던 피해 복구와 도시 계획은 원주에 머무르고 있던 유엔 주재 지원단(UNKACK) 강원도 팀에 의해 수립되었고,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 32 공병단이 원주의 도로 건설과 확장을 주도했다.

전후 복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원주 시가지 모습은 원주에 보급기지를 건설하고 도로를 통해 각 부대의 군수품을 보급하였던 미군의 군사 정책이 우선 반영되었다. 미군에 의해 주도된 원주 복구는 중앙선 철도의 핵심인 원주역, 원주천 철교를 복구하고, 문막교를 가설하며, 원일로 등 시내 및 시외 도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육상 교통망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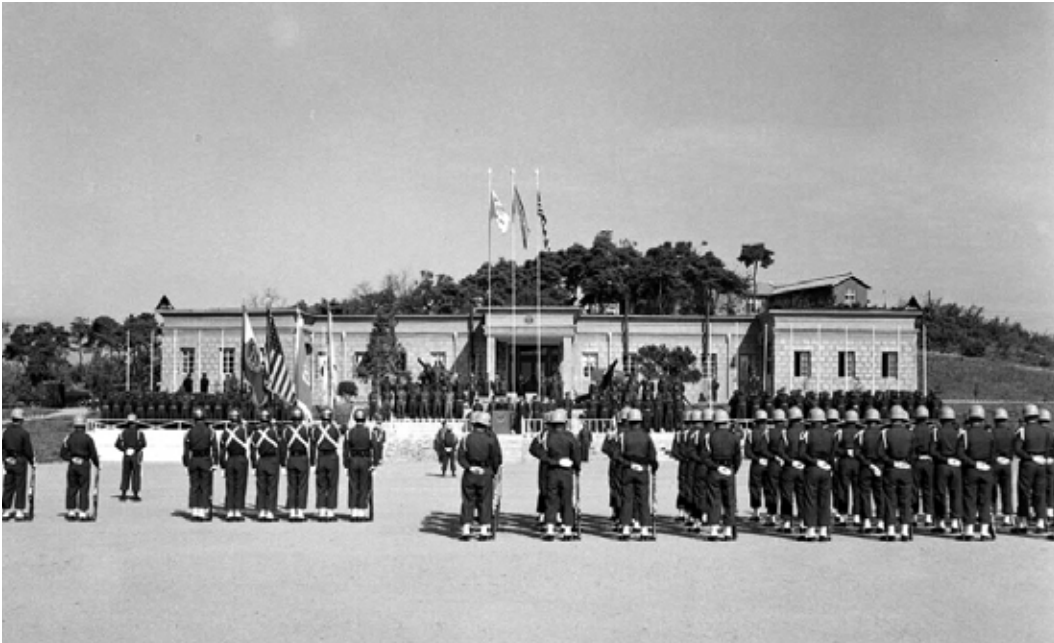
적포위 작전 실패, 미군 원주 동출 진지 확보 _ 동아일보 1951.01.16





제10야전군 사령부 원주 이전

원주의 전후 복구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6.25 전쟁으로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었고, 전후 복구 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먼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원주의 복구 사업이 적극 추진 쪽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다. 양구에 있던 제10야전군 사령부의 원주 이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제10야전군 사령부 1956

제10야전군 사령부는 휴전선 전체를 관장하는 사령부였다. 한반도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점으로 이전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중앙선 철도가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원주로의 이전이 결정되었다.

제1 야전군 사령부의 원주 이전 결정으로 원주의 도시 계획이 적극 추진되었다. 도시 계획 구역은 원주의 개운동, 원동, 인동, 일산동, 평원동, 중앙동, 학성동, 단계동 전부와 봉산동, 태장동, 판부면 단구리, 서곡리 일부 지역, 호저면 우산리와 만종리 일대였다. 이 때 추진된 도시 계획의 핵심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 대비가 핵심이었다.



원주 육군 제1군 본부에서 열린 제1군 창설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의장대 사열식을 관람중인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영부인 1957.04.0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옛 제10전군 사령부 현재모습 2021

“항상 非常사태 대비토록”

朴大統領、1軍司査서 지시

【原州11李鎔昇기자】朴正熙 대통령은 1일하오 1軍司令部에 들러 韓信사령관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각 급지휘관은 적의 어떠한 기습도 이를 즉각 격퇴할수 있도록 한시 動員태세를 점검,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1군산하 師團長급이상지휘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朴正熙대통령은 「각급지휘관은 전투지역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자부대의 현황을그때그때 정확히 파악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이날 原州 시내에 건립된 軍人어파브준공식에참석, 태이

프를꿈고전용차로歸京했다.

박대통령, 1군사 시찰서 지시 ‘항상 非常(비상) 사태 대비토록’ 1971.12.02



미8군 519헌병대대 헌병의 학성동 오거리 교통 통제 현장(옛 원주역 급수탑 앞) 1952

군 작전과 도로망 건설

제10아전군 사령부의 원주 이전 결정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원주의 장점 때문이었다. 미군은 중앙선 철도의 핵심인 원주역, 원주천 철교를 복구하고 원일로 등 시내 및 시외 도로를 정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육상 교통망을 구축했다. 원주역이 있는 학성동은 역전을 중심으로 시가가 형성되었다. 기존의 원주 도심도 원주역을 향해 서서히 확장되었다. 도심과 시가가 팽창하면서 기존의 중앙로(B도로)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도심과 역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원일로(A도로)가 개설되었다. 원주가 군사도시로 발전하면서 또 다른 간선도로가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 도로의 확장 연장과 신설 공사를 통해 평원로(C도로)를 개통했다.

군부대는 작전상 도로와 교량의 중요성 때문에 군 작전과 연결된 도로망의 개설과 정비에 주력했다. 군은 부대 운영비 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도로, 교량, 건물, 학교 등의 토목·건축공사에 장비와 인력을 직접 동원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많이 했다. 원주는 전쟁의 폐허 위에 군 장비와 인력에 의해 시가지와 도로망이 건설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주는 6.25 전쟁 이후 군사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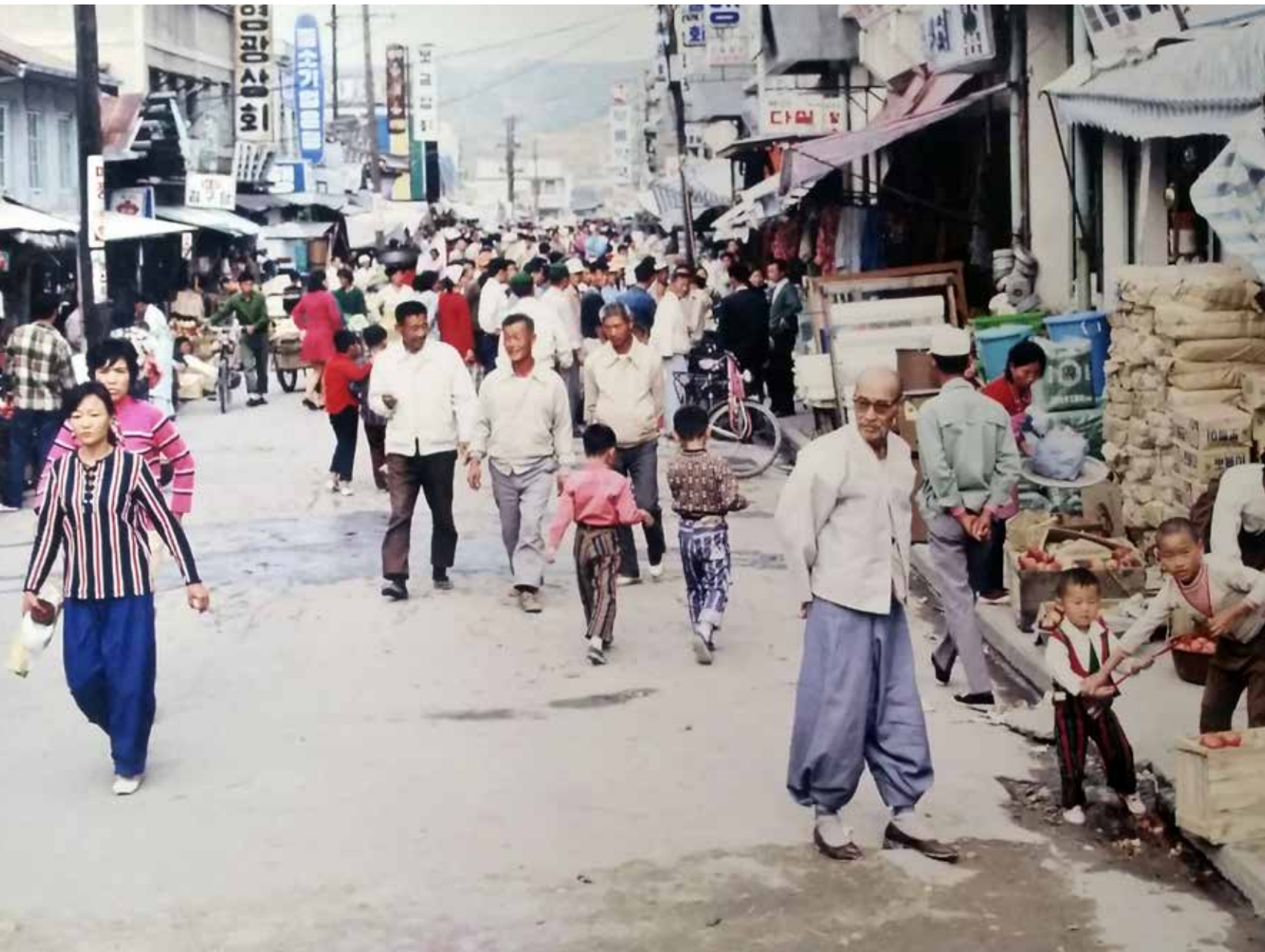
한국전쟁 휴전 이후 원주 시내(중앙동 자유시장 후문) 1953

군부대에 의존한 상업 유통도시 형성

원주가 군사도시로 재편되면서 제10전군 사령부, 미군기지 캠프 룡, 사령부의 직할 부대 및 전투 근무 지원부대가 원주로 집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내 곳곳에 군인과 가족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군부대에 의존한 상업 유통 도시가 만들어졌다. 광복 직후 원주 인구는 2만 정도였으나 1960년대에는 10만 이상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6.25 전쟁 이후 피난 내려왔다 정착한 사람들, 군부대와 주변에 거주하는 군인과 군인 가족 등이 인구 증가의 요인이었다.

군사시설의 주둔, 군부대 및 군인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사고파는 상권이 형성되었고, 많은 소비물자들이 원주로 공급되면서 상설시장이 발달했다. 대표적인 상설시장이 중앙시장이었다. 중앙시장은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면서, 군부대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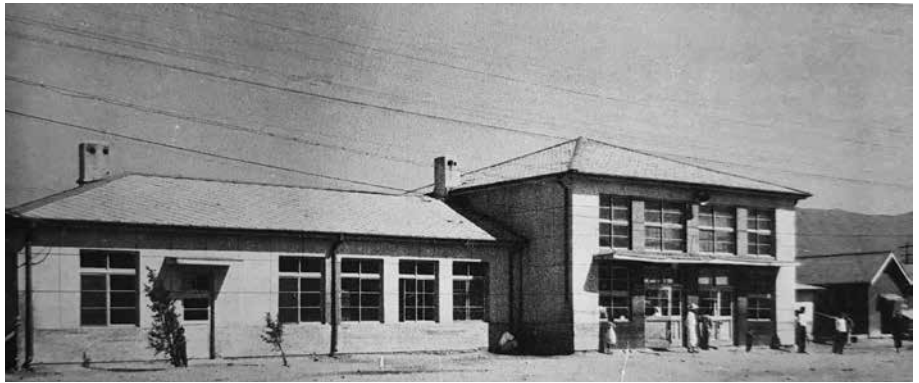
중앙시장에는 군인들의 야전 잠바와 워커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양키시장이 등장했다.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인근 지역에 새로운 시장이 개설되었다. 명륜동의 남부시장, 학성동의 역전시장, 우산동의 우산시장, 태장동의 태장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원주 중앙시장 1970년대

원주역 주변의 변화

군사도시 원주는 원주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중앙선 열차가 가장 오래 정차한 역이 원주역이었다. 원주역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원주역에서 승, 하차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 군인 면회객,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원주역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가 빈번했고 오가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원주역 1959

원주역 부근에는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한 법우사가 세워졌고, 군인극장, 군인백화점 등이 세워졌다. 군인들의 편의를 위해 원주역 주변에는 각종 군복 수선집, 명찰집, 세탁소 등이 들어섰고, 유흥접객업소도 증가했다.



옛 1군백화점(현재 원주보건소) 1971

군인극장은 1956년 개관되었다. 원주의 군인과 군인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었다. 영화 상영 뿐 아니라 연극을 비롯한 각종 공연, 반공 강연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극장의 운영이 일반 상업 극장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극장 상영 작품 목록을 군단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일반 극장과 달랐다. 각종 기반시설과 문화 시설이 부족했던 원주에서 군인극장은 중요한 문화 공간이었다. 군인극장은 군사 도시 원주 문화 형성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원일로(A도로)군인극장 앞에서 열린 사이클경기대회(현재의 원주시보건소) 1975

今年度 光州國民校卒業生

[illegible]

鳳土巡覽
原州市篇

下水道까지完備

市勢一瞥

人口：七六、
(九一年十二月末)
教育機構：國民
中學校五、高等
大學(義塾)二
所。

情다운市民과軍人

4

焦土되다 싫어한 거제도 제법 復興되고

[illegible]

天然
五里年
車
國
時
山

[illegible]

原州市略圖

佐川郵遞局
15일에落成式

保安法反對叫다
麗水서도

保安法反對叫
關水서도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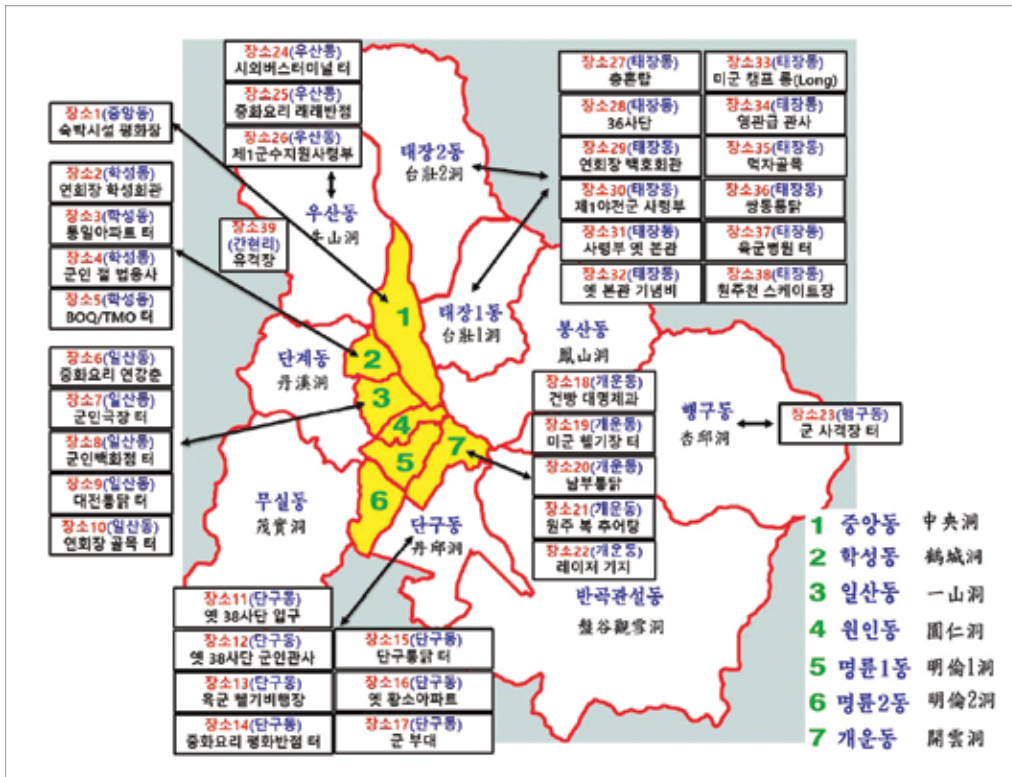
軍歌氣로 흥성
되니 우리도 흥성이 되리라

軍歌氣로 흥성
거로 하는것을
한인애를
나타내

[illegible]

원주에 남아있는 주요 군사시설

원주 주둔 주요 군부대는 태장동, 우산동, 단구동, 개운동, 일산동, 학성동, 중앙동, 행구동, 지정면 간현리 지역에 있었다. 이들 지역은 원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남아 있는 주요 군사 시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원주 주요 군사 시설 위치도(중앙동 ~ 간현리)

■ 태장동 제10야전군 사령부

캠프롱, 군인관사, 먹자골목, 중국음식점, 통닭집, 미군을 상대로 했던 유락시설
1990년대 이전에는 중앙동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역

■ 우산동 제1군수 지원사령부

원주 시외버스, 고속버스 정류장 부근에는 외박, 외출을 나서는 군인들로 붐비던 곳
외박, 외출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중국음식점, 한식점, 오락실 등 즐비
우산동 주공아파트에 군인 가족들 많이 거주
제1군수 지원사령부가 있어 대규모 연회장, 음식점 존재



원주 국제공항(단구동 원주중학교 뒤쪽) 1953

- **단구동** 38사단, 원주 군 헬기장, 예비군 사격장
단구 초등학교에는 군인 가족들의 자제들 많이 입학
중국 음식점, 통닭집, 군장 가게, 군복 시장 등 군인
대상 상권 형성
- **개운동** 미군 헬기장
전국 군대에 건빵을 제조 공급했던 대명제과 존재
군인,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음식점, 중국음식점,
통닭집 증가
- **일산동** 중앙로와 원주역 인근 지역
군인극장, 군인백화점, 술집, 유곽 형성
- **학성동** 통일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군인아파트 단지 형성
군 장병을 위한 종교 시설 법웅사 건립
- **중앙동** 군 장병을 위한 숙박시설 다수 존재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
- **행구동** 군 사격장 존재
- **간현리** 군 유격장 존재



태장2동 미군병원(학다리 부근) 1953



태장2동 수송대대 2021

강원감영에 성조기가 걸린 이유

1953년 강원감영 포정루 앞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교차하며 게양되었다. 포정루 현판을 가려버린 대형 현판에는 “WELCOM IKE!”란 글씨가 적혀있다. ‘IKE를 환영한다.’는 뜻이다. 대형 현판 좌우로 세로 현판도 세웠다. 사진 오른쪽에는 ‘한미양국의 결속은 자유세계의 결실’이라 썼고, 왼쪽에는 ‘삼천만은 환영하자 아원수의 방한을’이라 썼다.



강원감영 포정루에 걸린 미국 제34대 아이젠하워(애칭 IKE)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1960

‘아원수’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 ‘아원수’는 누구일까? 성조기가 걸려 있고, 한미양국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니 아원수는 미국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자로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따르는 미국인들은 별명을 IKE로 불렀다고 한다. 당시 미국인들이 아이젠하워를 향해 “We like Ike!”라고 외쳤다고 한다. 6.25 전쟁에서 원주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제천과 충주로 연결되는 중앙선 철도와 도로가 원주를 지나가기 때문에 중부 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주를 장악해야 했다. 1951년 1.4 후퇴 이후 원주에서 밀려난 UN군 주력부대는 안성, 평택까지 후퇴했다.

원주 함락 이후 미군, 프랑스군, 네덜란드군, 한국군은 총공세를 전개해서 원주를 탈환하고, 북한군과 중국군의 남하를 차단했다. 이것이 원주 전투였다. 원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선은 38선 북쪽 철원, 김화,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양양 일대로 이동했다. 1953년 강원감영 현판에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방한을 환영하는 대형 현판이 붙었고, 성조기가 걸렸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강원감영 앞에 걸린 대형 현판과 성조기는 6.25 전쟁 이후 원주가 상당부분 미국(미군부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전후 복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주에 보급기지를 건설하고 도로를 통해 각 부대의 군수품을 보급하였던 미군의 군사 정책이 우선 반영되었다. 제1야전군 사령부가 원주로 이전되고, 미군 주둔지 캠프 롱(Camp Long)이 설치되었다. 6.25 전쟁 과정에서 전략 요충지였던 원주는 군사 도시로 급격하게 재편되었다.

週

間



政

局

○...6일 野戰軍사령부 상환실에
서 열린「對間諜회의」는 朴正熙대
통령을 비롯, 金佐로와 地方長官,
師團長급이상 주요지휘관, 地方檢察
廳檢察長, 市道廳長등 총 1백 73
명이 참석, 6. 25 동안 발발적우열
했던「大田會議」이래 최대규모.
이날 오전 10시 회의가 열리기예
서 기자들과만 金熙烈 국방부장관
이「金日成」이가 이소식을 들으면
꼭 붙잡겠」이라고 장담할정도로 이
날의 회의규모는 엄청난 것이었고,
原州市는「일시首都」(?)를 방불
케했다. 對間諜작전을 조직 지휘하
고 있는 金熙烈 중앙정보부장관 특
히 李鎭내부, 樞五柄안부, 金錫장
관등 처간전관제 장관들과 의미있
는 압수를 나누기도.

야대통령은 이날 아침 헬리콥터
편으로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小寒
때지않게 포근한 기온으로 겨울안
개가 끼어 特別動車를 이용하는바
람에 原州駅은 한바탕소동(?)을
지냈다. 【原州에서 本社鮮于
煉記者】

金日成이 깜짝 놀라 原州：臨時首都방불

김일성이 깜짝 놀라 원주, 임시수도 방불 _ 조선일보 1968.01.07

원주에서 열린 군사문화 축제

원주에서 처음 열린 지역 차원의 종합 문화축제는 '군도제'였다. 1971년 4월 10일부터 이틀간 원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군도제'는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민관군의 결속을 돈독히 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원주 최초의 시민축제_ 제1회 군도제 1971



제1회 군도제 1971

4월 9일 전야제에서 학생들의 촛불 행진과 불꽃놀이 등의 행사가 펼쳐졌고, 4월 10일 경축식을 시작으로 국군아저씨 그리기, 반공 포스터전, 역대 군복 가장행렬, 전국 궁도대회, 병기 및 반공 사진전 등 군사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중심이 되었다. 또한 당시 군인극장 광장에서는 군대의 중화기 전시회가 열렸다. 군도제는 군사도시 원주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축제였다. 하지만 군사적 이미지가 너무 짙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 1회 개최 이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제1회 군도제 부활_조선일보 1971.04.15

2000년에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의 한 곳이었던 원주에서 군악을 통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세계 최대 군악제인 '2000 세계평화 팡파르'가 원주 치악 체육관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2000 세계 평화 팡파르'는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군대 음악이 평화를 전해줄 수 있다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였다. 이 행사에 미국, 러시아 등 세계 14개국 17개 군악대가 초청되었다. 50년 전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각국 군인들은 총이 아닌 악기를 들고 원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세계 평화 팡파르 축제가 성공적으로 거듭되면서 축제 용어가 '원주 국제 따뚜'로 변경되었다. '따뚜'란 군대의 귀영 나팔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악 축제의 의미를 갖는다. 재단법인 원주 국제 따뚜를 설립해서 2004년부터 운영되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공식 국제 행사로 승인하여 2006년에는 종합운동장 옆에 3층 규모의 원주 따뚜 전용 야외 공연장이 건립됐다.



원주따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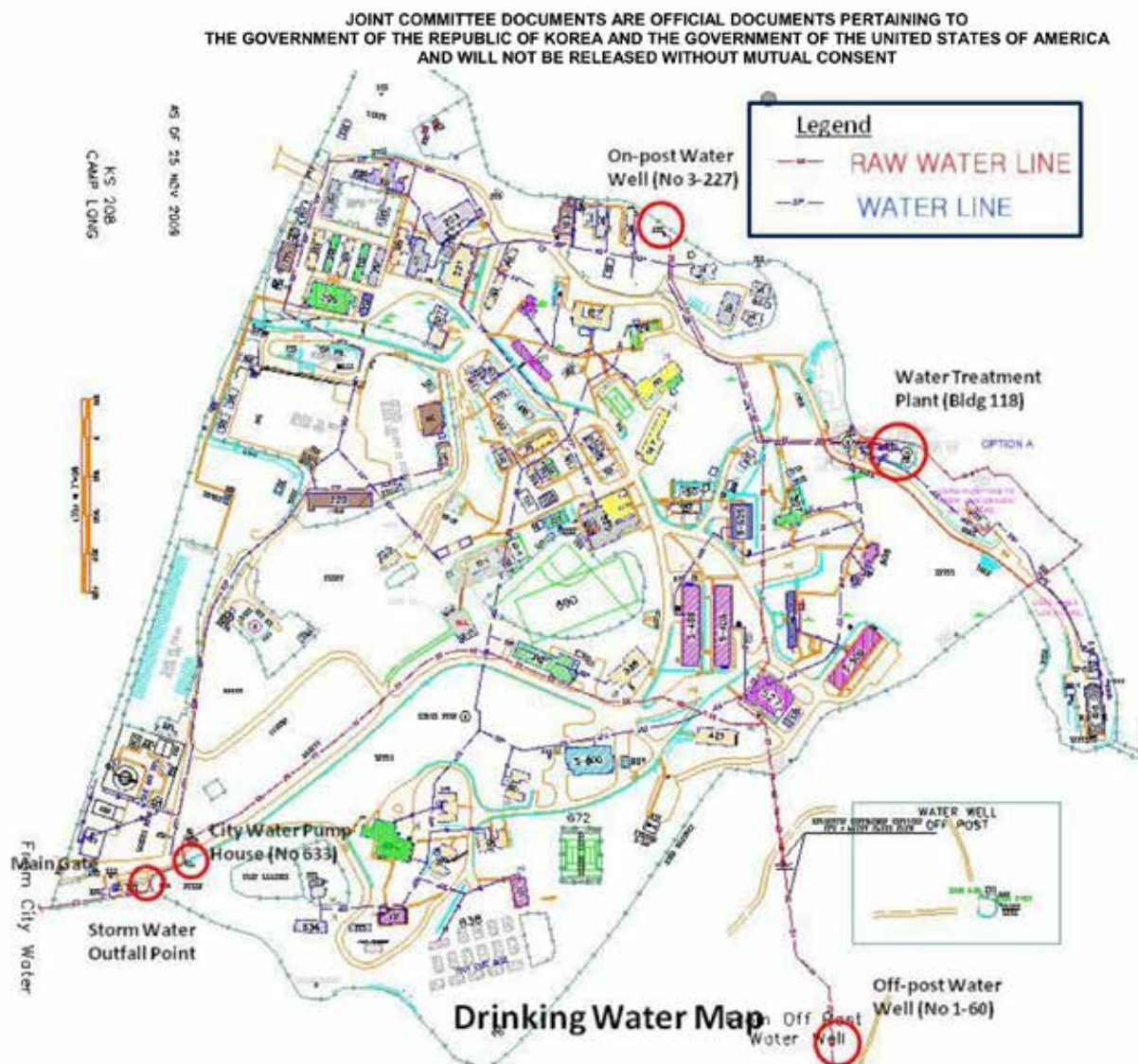
원주다이너믹페스티벌
2011

2010년 세계 군악 축제인 '원주 따뚜'가 폐지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군과 함께하는 다이너믹 원주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여 따뚜 공연장을 활용하였다. 이후 군사문화축제를 상징하는 '따뚜'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댄싱 카니발'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



04

캠프 롱 근현대사



캠프 롱(Camp Long)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었던 미군 주둔지 캠프 롱(Camp Long)은 1955년 R-401 비행장 관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캠프의 이름은 1951년 원주 부근 전투에서 영웅적인 행동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미군 병장 찰스 롱(Sergeant Charles R. Long)을 기리자는 뜻으로 캠프 롱이란 명칭을 붙였다. 그는 전사 당시 제2보병사단 38 보병연대 M중대 소속 박격포소대의 전방 관측병이었다.

R-401 비행장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캠프 롱은 주한 미군 군사 고문단의 제1야전군 파견대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는 제20일반지원단 소속이었으나 1978년 캠프 페이지 소재 제19전투지원사령부 예하로 편입된다. 1998년에는 약 500명의 현역 군인 및 550여명의 민간인 군무원이 배속되었다.



캠프 롱 2021

캠프 룡에는 2006년 기준으로 약 29,000 제곱미터 면적에 126동의 건물이 있다. 치과, 약국, 양호실 등의 의료 시설 그리고 볼링장, 집, 레크리에이션 센터, 테니스장, 라켓볼장, 체육시설, 소프트볼 구장, 풋볼 구장, 공예 샵, 장교 클럽, 하사관 클럽, 사병 클럽, 운동장, 수영장, 도서관, 우체국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상업 시설로 은행, 세탁소, 이발소, 쇼핑몰 (AAFES Post Exchange; PX) 등이 있다. 2007년도에는 PX를 둘러싼 블랙 스캔들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7. 09. 26. 암시장 스캔들 이후 Camp Long PX 폐쇄

“캠프 룡의 PX처럼 작은 곳에서 2004년도에 277만불(약 30억원)을 벌더니, 암시장 연결고리가 적발된 뒤, 올해 매출이 18만불(약 2억원)로 떨어졌다. 260만불(약 28억원) 차이가 난다. 그보다 규모가 더 큰 PX나 군 매점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암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단 말인가? 가능하기조차 힘든 액수이다” .

(자료출처 <http://rokdrop.com/2007/09/26/camp-long-px-closes-after-black-market-scandal>)



캠프 룡 2021

주둔부대 (미국 육군)

- 제168의무대대, B중대
- 제62화확중대
- 제557헌병중대, 순환소대
- 제66우정분견대
- 제275분견대 - 제1통신여단, 41통신대대
- 제665의무분견대 - 제18의무사령부
- 제524정보분견대
- 제1전투지원협조단



주둔부대 (미국 공군)

- 제425분견대



캠프 이글(Camp Eagle)

원주에 세워진 또 하나의 미군 주둔지 캠프 이글(Camp Eagle)은 1987년 창설되었다. 격납고와 활주로를 갖추고 아파치 헬기 등 미공군 첨단장비를 배치했다. 춘천에 설치된 캠프 페이지가 한국에 반환되면서 1개 항공 대대가 원주 캠프 이글로 이전해 주둔했다.

주한미군 캠프 룡, 캠프 이글 주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방어체제의 최전선에 원주가 편입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고성능 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하 핵 실험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지진 관측소가 캠프룡에 설치되고, 아파치 헬기 등 첨단 공군 장비가 캠프 이글에 배치되었다.

원주가 동북아 방어체제의 최전선이라는 인식은 캠프 룡이 폐쇄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16년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상지로 원주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가져왔던 것이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원주 주한미군기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 하지만 미군부대는 적절한 대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서 공분을 초래했다. 이에 원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구성하여 미군기지 캠프룡의 기름 유출에 항의하고 SOFA 환경조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환경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기지 폐쇄

2010년 6월 4일, 캠프 룡과 캠프 이글 두 주둔지가 폐쇄되었으며 육군 주둔지 지원 업무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되었다. 2009년 10월 5일, 미8군은 미군기지 재배치 및 대한민국에의 부지 반환 조치의 일환으로 원주의 캠프 룡과 캠프 이글을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 육군 수비대 캠프 험프리스 및 지역 3구역 사령관 조셉 무어 대령(Joseph P. Moore)은 10월 5일 양 캠프의 군무원들에게 기지 폐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 혹은 새 기술 습득에 동의한다면 군무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09년 현재 양 기지에는 176명의 한국인 직원을 포함하여 총 386명이 근무 중이다. 당초 계획은 2008년 폐쇄였으나 2010년 공식 폐쇄되었다. 양 캠프의 업무는 전부 캠프 험프리스로 이관된다.



캠프 룡 2021

II 캠프 통과 자유시장

“이곳은 원래 양키 시장이었어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군용 담요, 워커, 약을 비롯해서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원래 팔 수 없는 걸 파는 거니, 지나가는 척 하면서 ○○ 있느냐고 묻고 가게 주인이 속삭이듯 대답하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함께 답사하던 분께서 말씀해주셨다. 오랜 세월 원주에서 살아오신 분이라 골목골목 원주의 내력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미군 부대 물품이 어떤 경로로 시장까지 흘러나왔을까? 미군 부대 주변에서 미군과 접촉하며 일하던 사람들 중에 돈이 아닌 물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물품이 흘러나와 양키 시장에서 팔려나갔다. 미국의 원조 물품도 있었다. 밀가루도 그 중 하나였다. 밀가루를 팔다가 점차 국수를 만들어 팔면서 시장의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런데 자유 시장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뭘까?

“자유란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양키 시장 무렵부터였던 거 같아요.”



원주 자유시장 2019

양키 시장의 거래 장면을 실감나게 설명해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확한 근거를 찾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자유’란 말은 미국이 들고 들어온 “자유 민주주의”란 말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을 환영하는 강원감영 사진에 “한미양국의 결속은 자유세계의 결실”이란 구호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세계의 질서 속에 편입된 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키 시장이 자유 시장으로 바뀐 배경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군부대 하수 무단 배출

86년이후 하수도로 6천여만원 안내

【춘천=김종화 기자】 강원도내의 미군부대들이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오수를 무단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5년 8월부터 춘천 등 도내 7개 시지역에서 하수도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춘천주둔 미군부대인 캠프 페이지와 원주주둔 캠프 룡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전혀 내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춘천 캠프 페이지는 춘천시가 지난 86년부터 하수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도 요금을 한번도 내지 않고 있으며 원주 캠프 룡은 그동안 원성군 수초면 장양리 논쪽으로 하수를 배출해오다 하수도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85년 8월 이후 원주천으로 통하는 하수시설을 했으나 원주시는 한미 정부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못했다는 이유로 고지서조차 발부하지 않아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춘천시의 조사결과 캠프 페이지는 매달 1만6천4백14㎡의 오수를 배출, 월 평균 1백29만1천5백65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해 지난 86년부터 윤 7월까지 밀린 하수도 사용료만도 6천4백47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또 원주의 캠프 룡은 월 평균 5백93㎡의 오수를 내보내 월 5만5백97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강원도는 미군부대의 오수배출 자료를 건설부로 보냈으며 한미 정부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협정이 끝나는 대로 미군부대로부터 하수도 사용료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부대 하수 무단 배출_한겨레 1989.08.15

1996년 12월 녹색연합은 미군부대 인근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부대 주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군용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힘들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1996년 9월부터 한 달간 전국 10개 지역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6개도시의 소급징수액은 서울시의 387천2백원, 경기도의 555천원, 충청도의 111천원, 전라도의 300천원, 경상도의 111천원, 강원도의 111천원이다. 이 중 서울시는 이미 6개도시의 하수도료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111천원, 경기도는 555천원, 충청도는 111천원, 전라도는 300천원, 경상도는 111천원, 강원도는 111천원이다.

원주 주둔 미군기지 캠프 룡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캠프 룡 부대 안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침출수를 방치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했음이 확인되었다. 태장동 캠프 룡 부대 담장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우물이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 다량의 질소와 부유물질이 검출되어 질소 함량은 음용수의 14배, 부유 물질은 음용수의 10배에 달했다.

駐韓美軍 하수도料 징수_경향신문1989.12.27

서울을 비롯, 춘천·속초·강릉 등 6개 도시의 하수도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하수도료를 징수할 도시로는 서울, 춘천, 속초, 강릉, 원주, 평택 등 6개 도시가 포함된다. 하수도료를 징수할 도시로는 서울, 춘천, 속초, 강릉, 원주, 평택 등 6개 도시가 포함된다.

86년부터 소급...5億원 정도

駐韓美軍 하수도料 징수

상반기 중 올해 11월 1일부터 하수도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오염수는 우물 뿐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업 용수도 오염시키고 있었지만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정부 차원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부대 주변 토양오염

기름성분 다량검출·쓰레기 매각장 오염물 방류

녹색연합 30여곳 조사

미군부대 주변의 토양에서 다량의 기름이 검출되는 등 미군기지로 인한 토양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군용기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과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는 4일 지난 10~11월 전국 11개 지역 30여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하는 국군에 넘긴 포항의 미군 유류저장고를 비롯해 평택과 의정부의 미군기지 주변 토양에서 45~5백10ppm의 유기물이 검출됐다. 이들 유기물의 대부분은 기름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또 원주의 캠프 통 기지는 지난 7년여 동안 부대안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침출수를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으며, 군산 미공군기지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염물질을 흘러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트기가 이착륙하는 대구·군산·평택 기지 주변의 주택가에서 잔소음도는 81.4~87.8데시벨로 방음장치가 없을 경우 주거에 부적합한 수준이었으며, 헬기장에 인접한 의정부·춘천·대구의 주택가 소음도 78.4~87.4데시벨로 대도시 도로변의 소음에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춘천 미군 헬기부대에 인접한 근화초등학교는 체육활동이 어렵고 종종 수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부산 양정1동의 미군기지는 주택가에 레이더 시설을 설치해 소음·진동은 물론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조흥섭기자

19961205 미군부대 주변 토양오염_한겨레

미군부대 주변 식수오염·소음 심각

음용수기준치 14배 초과

군용기소리 수업지장...정부 검사 全無

녹색연합, 10개지역 현장조사

미군부대 인근의 지하수 등 오염물질로 오염돼 하천 등 근린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심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조흥섭)은 전국 11개 지역 30여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주캠프는 지난 9월15일 부터 한달간 전국 10개 지점의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식수오염을 조사한 결과, 사와 합작기업이 소가 분

의 14배, 10배에 달했다.

조사 역시 한미

부하 한달간 전국 10개 지점의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식수오염을 조사한 결과, 사와 합작기업이 소가 분

의 14배, 10배에 달했다.

조사 역시 한미

부하 한달간 전국 10개 지점의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식수오염을 조사한 결과, 사와 합작기업이 소가 분

의 14배, 10배에 달했다.

조사 역시 한미

부하 한달간 전국 10개 지점의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식수오염을 조사한 결과, 사와 합작기업이 소가 분

의 14배, 10배에 달했다.

조사 역시 한미

부하 한달간 전국 10개 지점의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식수오염을 조사한 결과, 사와 합작기업이 소가 분

의 14배, 10배에 달했다.

조사 역시 한미

미군부대 주변_식수오염 소음심각_조선일보 1996.12.04

Ⅳ 기름 유출에 대한 직접 사과, 피해배상 약속 받아낸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원주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소초면 둔둔리 소재 캠프 이글의 폐유 무단 방류 사건이 발생했고, 태장 2동 절골 마을 인근에서도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미군기지 인간띠잇기대회 2001

이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염된 미군 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 시민 모임’을 결성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캠프롱은 기름유출 사고 이후 원주시민들은 강한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기지 폐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캠프 롱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높았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냈다.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원주 캠프 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캠프 롱 기름유출 현장_인근 논으로 확산된 기름으로 논 바닥에 불이 붙는 모습. 2008.05.13



미군부대 기름유출 현장조사 2001



불평등한 SOFA개정을 위한 토요집회 2001



미군기지 인간띠잇기 대회 2001.06.16



미군기지 인간띠잇기 대회에서 연설하는 문정현 신부님 2001.06.16





캠프 통 정문 앞 피해주민 항의 집회 2001



캠프 롱 정문 앞 항의집회_오염토양 미군에게 던지기 2005.07.19



원주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현장 2008



캠프 롱 기름유출 정문 앞 항의 집회 2008



폐유방류 진상조사 원주시민축구대회 2008



캠프 룡 기름유출 현장 2008.03.14.

2010년 6월 주한미군 기지 캠프 롱이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조셉 피 모어 사령관을 비롯한 한국군 관계자 및 원주지역 기관,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지 폐쇄식을 거행했다.

20100605 강원도민일보

원주 주한미군 캠프롱 기지 폐쇄식



▲ 원주 주한미군기지 캠프롱은 4일 오후 기지 내에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조셉 피 모어 사령관을 비롯해 한국군 관계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폐쇄식을 개최했다.

원주 주한미군기지 캠프롱이 기지폐쇄식을 갖고 60여년간의 원주 주둔 역사를 마감했다.

캠프롱은 4일 오후 기지 내에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조셉 피 모어 사령관을 비롯해 한국군 관계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폐쇄식을 개최했다.

이날 폐쇄식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양 국기하양식을 관람했으며 폐쇄식이 끝난 뒤 아모르컨벤션 웨딩으로 자리를 옮겨 고별만찬 행사를 가졌다.

조셉 피 모어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사령관은 “60여년동안 캠프롱과 캠프이글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며 “지금 안녕이란 말을 고하지만 한국군과 원주시민들의 우정과 호의에 감사하며 이곳 원주를 행복한 추억으로 가슴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주한미군 기지 캠프 룡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1955년 캠프 룡이 설치된 지 64년 세월이 흘렀고, 2010년 캠프 룡 주둔 미군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한지 9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원주 반환이 결정된 것이다.

반환 결정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캠프 룡과 함께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소초면의 캠프 이글,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네 곳이다. 이들 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할 당시 오염된 토양의 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견이 있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왔다.



캠프 룡 2021

캠프 이글의 경우 제8전투비행단 부대 내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원주시는 원주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캠프 룡 반환에 주력했다. 캠프 룡이 설치가 되면서 원주가 동북아 방어선의 최전선에 편입되었지만, 캠프 룡 주변은 개발이 차단되고, 기름 유출로 인한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살아왔다. 캠프 룡 부지 반환과 함께 오염된 캠프 룡 부지 복원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캠프 룡 반환 결정이 내려진 후 캠프 룡 부지에는 원주 역사 박물관, 전문 과학관, 수영장, 미술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05

캠프 롱 연대기

신문이 기록한

미군기지 캠프롱 설치부터 반환까지

- 1954.05.16. ● 미군의 날, 역전 위용을 과시_경향신문
- 1955. ● 비행장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짐
- 1961.06.16 ● 숨은 공, 꽃피는 사랑의 온실,
원주 어린이 방랑아의 집_동아일보



- 1976.04.10. ● 한·미 합동 부정 외래품 유출 일제 수사. 캠프 롱 PX 지배인 등 구속
- 1989.08.15 ● 미군부대 하수 무단 배출, 8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 6천여만원 안내_한겨레
- 1996.12.04 ● 미군부대 주변_식수오염 소음심각_조선일보
- 1997.01.27 ● 미군 지진탐지장치 사실상 한국에 이관_한겨레
- 1999.08.18 ● 국내 첫 북핵실험 음파관측소 운영 중_조선일보

- 2001.05.25. ● 미군부대 기름유출 피해 확산, 비상급수_강원일보
- 2001.05.28. ● 원주 미군기지 기름 유출, 조사단 시민 참여 요구
- 2001.05.30. ● 춘천, 원주 미군기지 기름 유출 주한미군사령관 고발
- 2001.06.26. ● 원주 미군부대 기름유출 항의 1만인 서명운동 돌입
- 2001.07.06. ● 미군기지 이전 시민운동 확산_강원일보
- 2001.07.12. ● 미군 기름유출 사실상 시인_강원일보
- 2001.08.10. ● 강원일보 '원주 캠프롱' 시민운동 모범사례
- 2001.08.11. ● 원주 캠프 롱 미군기지 항의방문_민중의소리
- 2001.09.05. ● 캠프 롱 기름유출 10t 트럭 200대 분량_강원일보
- 2001.09.05. ● 원주 미군기지 캠프 롱 기름유출_중앙일보
- 2001.09.17. ● 강원도내 3개 미군기지 대테러 훈련

- 2002.03.30. ● 춘천·원주 미군기지 반세기만에 역사속으로_강원일보
- 2002.05.26. ● 캠프 롱 부지에 통신단 이전
- 2002.08.12. ● 통일선봉대, 원주 미군부대 캠프 롱 진입_오마이뉴스
- 2002.12.14. ● 원주 캠프 롱 성탄 자선행사

- 2003.05.02. ● 한국군_미군 장병 한마당 어울림 잔치

- 2004.08.09. ● 원주 미군기지 무상 반환운동 전개
- 2004.08.26. ● <원주> 미군기지 반환 시민대책위 출범
- 2004.10.06. ● 미군기지 범시민대책위 결성_원주투데이

- 2005.05.23. ● 미군기지 반환 시민 서명운동 분위기 고조
- 2005.06.27. ● 미군기지 무상양여 촉구 시민 서명운동
- 2005.07.07. ● 1군사령부 캠프 롱 부지 사용 확정
- 2005.07.11. ● 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 1군사령부 강력 비판
- 2005.07.15. ● 미군기지반환 범시민 대책위
- 2005.07.18. ● 범시민대책위 1군사령부 면담
- 2005.07.20. ● 1군사령부 잇단 면담
- 2005.07.21. ● 군 캠프 롱 부지 사용 고수
- 2005.07.25. ● 미군기지 반환대책위 - 1군사령부 간담회

- 2005.08.08. ● 미군기지 반환 범대위 1군사령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
- 2005.08.12. ● 캠프 룡 군 시설로 활용
- 2005.08.16. ● 범대위 1인 시위
- 2005.08.29. ● 캠프 룡 사용 계획 철회하하 1인시위 전개
- 2005.09.05. ● 범대위 1인시위 돌입
- 2005.09.06. ● 캠프 룡 군사기지화 철회
- 2005.11.17. ● 원주 캠프 룡 민간이양 NO
- 2005.12.08. ● 1군지사 캠프 룡 사용 결사 반대
- 2005.12.19. ● 20년 분할매입 가능 미군기지 반환 새국면
- 2005.12.27. ● 원주 캠프 룡 반환 새국면

- 2006.02.11. ● 도내 미군기지 양여 본격화
- 2006.02.13. ● 캠프 룡 사용 계획 스스로 철회해야
- 2006.04.24. ● 반환 촉구 7천명 시민 서명 전달
- 2006.07.24. ● 1군사령부, 원주시민 바람 묵살
- 2006.07.31. ● 1군사령부 예하부대 캠프 룡 통합 “조기시행 가능성”
- 2006.10.10.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주관측초 최초 감지_강원일보
- 2006.11.22. ● 면세용 맥주 빼돌려 판매 PX종업원 구속_강원일보

- 2007.03.12. ● 원주 캠프 룡, 캠프 이글 반환 아직 멀었다.
- 2007.03.12. ●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누가하나
- 2007.10.22. ● 캠프 룡 부지, 체육공원으로 변경

- 2008.03.14. ● 미군기지서 또 기름 유출_강원일보
- 2008.03.31. ● 상류에서 또 기름 발견, 캠프 룡 오염 어디까지?
- 2008.04.28. ● 캠프 룡 2001년 기름오염 복원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_원주녹색연합
- 2008.05.13. ● 캠프 룡 사태 좌시하지 않을 것
- 2008.05.19. ● 미군 책임 회피, 시민들 화났다.
- 2008.06.04. ● 캠프 룡 기름 유출사고 전면전 선포
- 2008.08.11. ● 캠프 룡 기름 유출 공동조사 촉구
- 2008.09.22. ● 캠프 룡 공동조사요구 묵살
- 2008.09.29. ● 기름유출사고 범대위 구성, 시의회도 적극 대응 방침

- 2008.10.06. ● 캠프 룡 기름유출사고 항의집회
- 2008.11.07 ● 원주 기름유출 복원 비용 미군에 부담
- 2008.11.10. ● 35개 단체 캠프 룡 기름유출 공동 대응
- 2008.12.01. ● 미군부대 기름유출 대응 원주시민모임 출범한다
- 2008.12.08. ● 캠프 룡 복원비용 승소
- 2008.12.08. ● 오염된 미군기지 원주시민모임 출범

- 2009.02.02. ● 캠프 룡 기름유출 백악관에도 알린다
- 2009.02.09. ● 캠프 룡 기름유출 UCC 제작하는 장승완씨
- 2009.02.23. ● 캠프 룡 기름유출 UCC 공개
- 2009.03.09. ● 캠프 룡 복원비용 청구소송 승소
- 2009.03.23. ● 캠프 룡 시민모임 대응 수위 높인다
- 2009.04.06. ● 미군기지 기름유출 홍보전 전개
- 2009.04.13. ● 캠프 룡 기름유출 규탄 선전전
- 2009.05.11. ● 캠프 룡 오염부지 원주시, 복원후 배상 청구
- 2009.06.03. ● 원주시민모임 천막 농성 돌입_강원일보
- 2009.06.05. ● 원주 미군기지 캠프 이글서 기름 유출_ 강원일보
- 2009.06.15. ● 캠프 룡 기름유출 조사 보고서 놓고 마찰
- 2009.06.22. ● “캠프 룡 정화사업” 시민모임, 인정할 수 없다.
- 2009.06.29. ● 캠프 룡 복원촉구 항의 엽서
- 2009.09.14. ● 미군기지 환경피해 대응 한·일 민간단체 회견
- 2009.10.12. ● 미 8군 2010년 캠프 룡, 캠프 이글 폐쇄 발표
- 2009.12.11. ● 원주 캠프 룡·이글 시민 품으로_강원일보

- 2010.06.05. ● 원주 주한미군 캠프 룡 기지 폐쇄식_강원도민일보

- 2011.05.30. ● 원주시 캠프 룡 매입해 체육공원 조성 발표
- 2011.06.13. ● 원주 캠프 룡 반환 공청회 열려

- 2012.04.17. ● 태장동 캠프 룡 부지매입 내년 시작_강원일보
- 2012.11.06. ● 캠프 룡 부지 매입 국비 지원

- 2013.04.15. ● 캠프 룡 부지 반환 지연
- 2013.07.01 ● 캠프 룡 공원 조성 탄력
- 2014.03.10. ● 태장동 캠프 룡 활용 방안 보고회
- 2014.12.22. ● 토양 오염 캠프 룡, 반환 차질
- 2015.03.09 ● 캠프 룡, 부지 반환 협상 지연
- 2015.03.23 ● 주한미군 원주 사드 배치 후보지 거론
- 2015.03.30. ● 원주, 횡성 시민 사회단체 사드 배치 계획 규탄
- 2015.05.10. ● 춘천 원주 미군기지 65년 만에 주민 품으로_강원일보
- 2015.05.25. ● 캠프 룡 조기반환 촉구 주민대책위원회 캠프 룡 조기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 2015.06.08. ● 토양복원에 발목 잡힌 캠프 룡 반환
- 2015.06.15. ● 캠프 룡 내 원주 지진 관측소 확장 추진
- 2015.06.30. ● 캠프 룡 부지 반환 결단 촉구
- 2015.07.16. ● 캠프 룡 부지 반환 촉구 서명
- 2015.09.30. ● 캠프 룡 조속 반환 주민 서명 12만 명
- 2016.02.22. ● 캠프 룡 반환 대책위, 사드 배치 후보지에서 원주 배제 촉구
- 2016.03.29. ● 원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 10여개 훼손
- 2016.05.23. ● 캠프 룡 조기 반환 재촉구
- 2016.08.01. ● 캠프 룡 정화사업 국방부가 비용 부담하라
- 2017.11.13. ● 캠프 룡 내 지진관측소 준공
- 2018.03.05. ● 캠프 룡 반환 장기화 우려
- 2018.06.04. ● 캠프 룡 반환 장기화 불가피
- 2018.07.30. ● 캠프 룡 조기 반환 지지부진
- 2018.08.20. ● 캠프 룡, 토양오염 심각
- 2018.08.21. ● 원주 캠프 룡 벤젠, 카드뮴 기준치 초과
- 2018.09.10. ● 역사박물관 캠프 룡으로 이전 신축 추진
- 2018.09.28. ●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정부에 캠프 룡 부지 반환 촉구
- 2018.11.12. ● 원주시 캠프 룡 반환 국방부 상대 소송

- 2018.12.29. ● 옛 미군기지 캠프 룡 반환 또 해 넘겨, 8년째 방치_연합뉴스
- 2018.12.29. ● 원주 옛 미군기지 '캠프 룡' 8년 방치_이데일리
- 2019.01.15. ● 반환은 안 되고 땅값만 올라...원주시, 캠프 룡에 속 터져_한국경제
- 2019.06.24. ● 캠프 룡 반환 지연, 토양 오염 확산
- 2019.09.02. ● 원주시민단체 청와대 미군기지 조기 반환추진 환영_이뉴스투데이
- 2019.09.13. ● 원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불투명...지역사회 개별 반환해야_매일경제
- 2019.12.11. ● 미군기지 4곳 즉시반환 합의_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9.12.11. ● 미군기지 캠프 룡 반환 완료...원주시·시민단체_연합뉴스
- 2019.12.12. ● 원주시민대책위, 미군기지 반환 환영...행정력·예산투입 촉구
- 2019.12.16. ● 캠프 룡 시민 품으로_원주투데이
- 2019.12.19. ● 원주범대위, 캠프 룡 캠프이글 원주시로 반환 환영_뉴스1
- 2020.05.08. ● 금단의 땅 69년 만에 빗장 열리다_강원일보
- 2020.06.19. ● 캠프 룡 69년 만에 시민들에게 한시 개방(CAMP 2020)
- 2020.06.22. ●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_원주투데이
- 2020.06.26. ● '군사도시' 서 '문화도시' 로 변모 중인 원주_시사저널
- 2020.08.03. ● 캠프 룡 전문과학관 건립지로 선정
- 2020.09.14. ● 캠프 룡 부지에 국립과학관·수영장·박물관·미술관 조성 사업추진
- 2020.07.31. ● 전국 6번째, 도내 최초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_강원일보
- 2020.08.10. ●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성공_강원도민일보
- 2021.06.10. ●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조성 본격화...2024년 하반기 준공_쿠키뉴스
- 2021.06.22. ● 국립 강원전문과학관 건립 마지막 관문만 남아,
공공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내년 초 설계 시작될 예정_강원일보



06

사진아카이브















3011

D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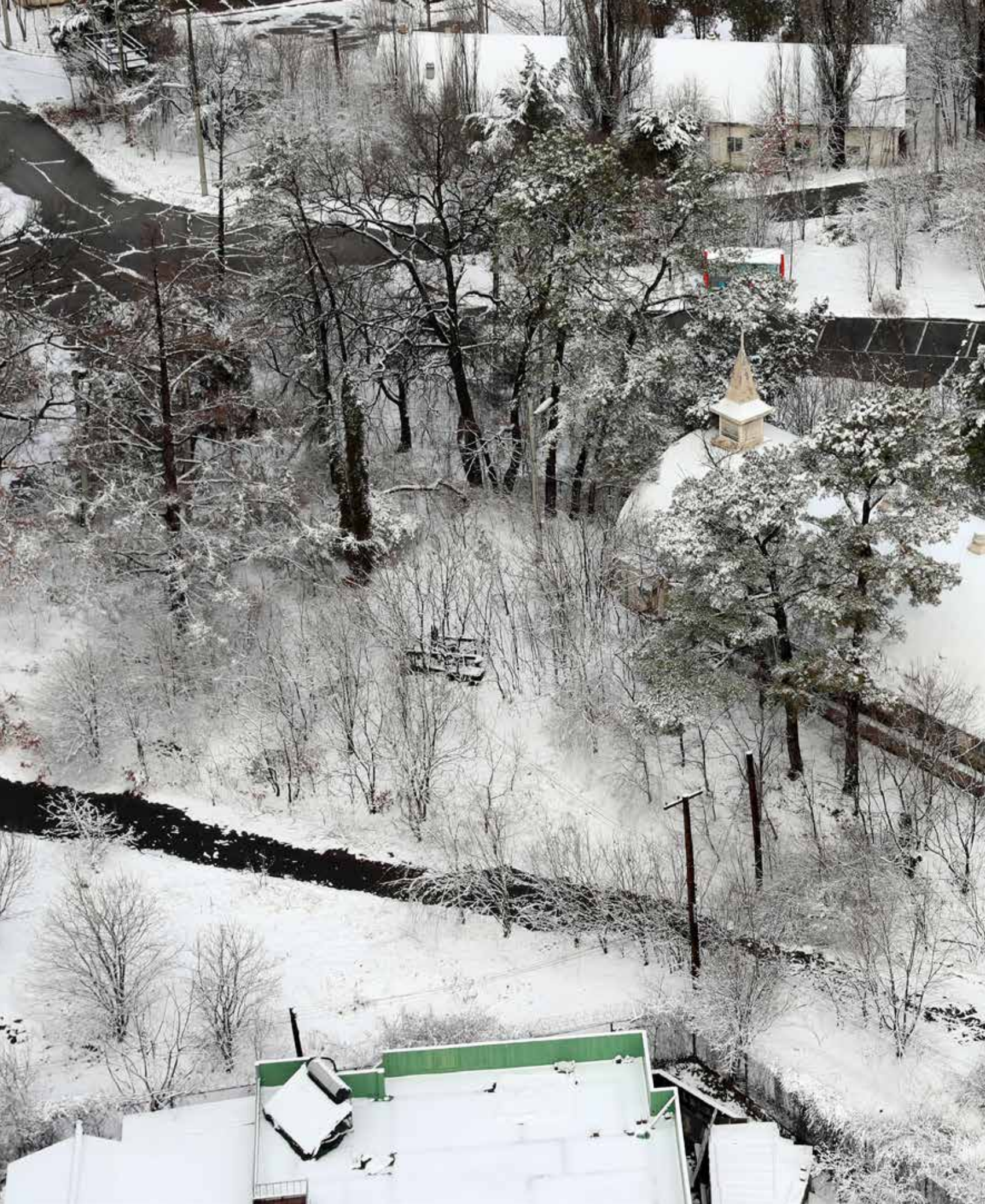
88520

88520















CEL
514

07

캠프 룡을 기억하는 방식

캠프 룡 소방서에서 45년

_ 김건수(84) 님



Q. 캠프 룡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되셨어요?

그것도 '뻑' 이죠. 내가 4형제인데, 큰 형님이 제대를 하면서 캠프페이지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알선을 해 줘서 정식으로 취직을 한 거죠. 시험은 안 보고 들어갔는데, 소방원이니까, 중령 대령들이 와서 시험볼 때가 있어요. 호스 메고 오십 미터 뛰어갔다 오기, 이런 거예요. 시간을 딱 채요. 뛰다가 쓰러지면 'son of bitch', 'god damn', 저 바보상자 쓰러졌다고 홍보고 그랬어요. 난 스무 살이 갓 넘어서 괜찮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캠프페이지에서 일하다가 캠프 룡으로 발령이 났어요. 원

주에 와서 태장동에 셋방을 들고, 두어 달 있다가 집을 하나 사버렸죠. 그때는 원주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죠. 춘천에 비하면 미약하나 마나고, 아직 촌이었죠. 결혼은 춘천에서 해가지고 왔죠. 외갓집에서 중매해 가지고서, 스물한 살에 군복을 입고서 결혼을 했어요.

Q. 소방차 운전을 하셨다고요.

캠프 룡에 취직을 한 후에 운전을 배웠어요. 픽업을 가지고 영내를 돌아다니며 배운 거죠. 그때는 원주에서 면허증을 못 났어요. 시험 장소가 강원도 전체에서는 춘천에만 있어 가지고, 춘천에 가서 시험을 보고, 소방차 운전을 했죠.

Q. 소방서에서는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셨나요?

소방서에는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지휘관이 미국 사람으로 하나 있었고, 소방대장들은 미국인이지만 반장들은 한국 사람이예요. 그때도 화화가 되려면 영어를 좀 알아야잖아요. 영어 하는 사람들이 반장으로다 하고, 나야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위에서는 공부하라고 하면 하는 척만 하는 거죠. 3~40년 동안 영어를 했으면 잘했을 테지만.

Q. 친한 미군들은 있으셨나요?

그때는 미군들과 같이 안 다녔어요. 솔직한 얘기로는 내가 무식하니까 그랬죠.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물어봐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근무지가 소방서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접촉을 안 했죠. 시내 나갔다가 만나면 나는 피해다녔어요. 영어하기 싫어서.

Q. 가까이서 보시기에 미군들 생활은 어땠나요?

내가 37년을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미군들한테 배울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군들은 근무시간이 철저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일 시키면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감독관이 돌아서면 앉아 있는다고 했어요. 일본놈들이 했던 얘긴데.



Q. 캠프 룡에서 화재가 자주 났나요?

캠프 룡 내부에서는 화재가 안 났어요. 캠프 룡에서 크게 불 난 거는, 한 해에 한 군데래야 조그만 집 한 채 탄 거죠. 그냥 차 정비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원주 시내에서 화재 나면 지원 요청이 와서, 시내에 자주 나갔어요. 70년대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도 출동했었어요. 거기엔 참 왜 그렇게 불이 잘 나는지. 겨울에 차를 갖고 출동하는데, 캠프 룡 소방서에서는 차고에도 난로를 피워서 물이 따뜻하거든요. 물 끼얹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캠프 룡에서 온 차는 왜 물을 데워가지고 오느냐 했었죠. 당시 화재가 꽤 컸어요. 2층이 다 탔으니까. 벌써 한미합작 계획이 있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끼리 서로 연락을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캠프 룡에 불나도 연락을 안 했죠. 언 차를 가져와서 할 일도 없으니까요. 원주시내는 기름이 부족하니까 소방서에서 난로를 못 피워 가지고 소방차에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찼찼 조금 나오다가 얼어요. 119에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을 가야 할 거 아녜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니까, 물탱크에 가서 싣고 오니까 오래 걸리죠. 당시 한국 정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Q. 캠프 룡 소방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처음엔 소방차 한 대, 물차 한 대, 픽업이 한 대 있었어요. 픽업은 바퀴 네 개짜리 차인데, 지프차보다는 좀 커요. 뒤에 호스 같은 걸 싣고 다녀야하니까 화재 작업을 가면 픽업이 따라오죠. 호스를 소방차에 다 말아서 실을 수가 없잖아요. 소방서에는 11명이 근무했습니다. 장비들은 다 미국산으로, 시내 거랑은 비교가 안 됐고요. 그래서 내가 원주시청에 종이도 많이 빼다줬죠.



Q. 종이를 어떻게 갖고 나오셨어요?

미군들이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에. 나을 때 주머니가 통통하면 근무자가 뭘 넣어거나 체크를 해요. 그런데 차를 타고 나오면, 몸 안까진 못 뒀지 않아요. 여름에도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품에 넣고서 운전해서 나오며 정문에서 지키는 미군 애들한테 바깥에, 앞사이(outside) 갔다 온다고 하는 거죠.

[미군들이 욕하는 거, 한국 사람들 슬레이키(slacky?)라고 할 때는 있었지만, 그런데 더러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못 보던 물건 보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 휴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소프레(shelf, rack?)에다 두고 쓰잖아요. 창고에서 내오고 돌아서면 없어요. 휴지를 탁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거드랑이에 끼고 나가는 거죠.] 이 문단은 그냥 빼도 될 거 같기도 하고요.

동장이 집안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나하고 한 돌림이라 형님 동생 하는데, 어느 날 '아우님,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봐.' 하는 거예요. 기껏 동생한테 한다는 소리가 도둑질이나고 했더니, 공무원이니까 천상 종이(quality paper)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 정부에 재정이 미흡하니까 종이 하나를 편히 못 쓰잖아요. 16절 종이 한 다발에 천 장인데, 그걸 가져다 줬더니 자랑을 한 거예요. 집안 동생이 미군부대 소방서 다니는데, 종이 없다고 하니 한 다발 갖다준다고요. 그때 시청 공무원들과 접촉을 많이 했거든요. 열한 시 반이면 태장동에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 공무원들 굶고 배고팠잖아요. 난 그래도 그 사람들보단 몇 배 더 버니까, 많이 사 먹었죠. 친구들도 많이 사 먹이고.

Q. 소방원 월급이 많았나요?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은 월급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소방서는 더 많았어요.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안 믿는데, 30년 전에 420만 원?까지 월급을 탔어요. 계산해 보면 엄청 많은 금액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김형, 무슨 월급을 그렇게 타요?' 했어요. 소방서에 근무하니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어요. 쉬는 날에는 태장서 놀지 않으면 시내를 돌아다녔고요. 그럼 꼭 두세 명은 따라요. 혼자 가서 놀 수 없잖아요. 그럼 점심 저녁까지는 노다지 먹여야 되는 거죠.

Q. 사모님이 싫어하진 않으셨어요?

아유, 모르죠. 지금은 은행에서 월급을 타지만, 그때는 부대에서 현금으로 줬어요. 월급 타면 내가 한 달 쓸 걸 딱 속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살림하는 데 쓰라고 주는 거죠. 그렇게 살림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Q. 어쩌다 들통이 나셨어요?

아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둘째 놈한테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공부를 했어야 시험을 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번날 퇴근을 해서, 아침을 먹고 아들 데리고 부대에 들어갔죠. '아버지가 일하는 장소인데,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해라.' 했더니 할 만하겠대요. 마침 사람을 뽑아서, 하루 데리고 들어가서 이력서 내고 취직을 시켜줬죠. 아들놈이 월급을 타서 집에 갖고 오니까 '이렇게 많이?' 탄로가 난 거죠. 마누라는 이십 년 가도록 몰랐는데. 제 엄마 앞에서 '아버지, 나는 월급을 타 가지고 엄마 얼마를 주는데 아버지는 돈을 너무 많이 쓰셔' 이런 얘기를 하

는 거예요. 그럼 빠도 박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마누라가 '아들 월급 타러 농협에 가는데 당신 월급도 내가 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목에 힘 줬다가는 불화만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난 얼마씩은 줘야 돼' 했죠.

Q. 아드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군요.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그 놈이 육십이 안 됐으니까, 그것도 한 30년 됐죠. 같이 일을 하니깐, 내가 근무하는 날은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독하게 시켰어요. 자식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안면 싹 바꾸고, 호스 한 토막이 30m거든요. 그걸 4인치인가 해요. 그걸 말아 가지고 양쪽 어깨에 얹고 뛰는 거예요. 50m만 뛰어 갔다 오면 싹싹거리죠. 그걸 몇 번 시켰더니 털썩 앉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못 하나, 이것도 훈련이야.' 하면서 시켰죠. 여름엔 옷통 벗고 푸싱(푸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 엮드리면 4~50번은 하는데, 젊었을 땐 얼마나 했겠어요.

빈 호스라면 괜찮겠지만, 화재작업 하면서 물 들어간 걸 잡아당겨야 하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체력이 있어야 해요. 또 화재작업할 때는 시끄러우니까, 비키라고 소리를 질러 봤자 안 들려요. 물 나가는 데를 나서*라고 하고, 물 나가는 걸 포그*라고 그러는데,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키면 호스를 잡고 손목만 살짝 돌려요. 백 미터 안은 물벼락을 맞는 거죠.

Q. 독립기념일에 캠프를 개방하고 행사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축포 쏘고 그러면 소방원들은 대기를 해야죠. 소방차가 한 대 나가서 대기하고, 철저히죠.

Q. 캠프 통이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원주시에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죠. 화재 진압서부터, 도로 나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요. 태장동에는 내가 살면서 길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내가 통장을 30년 했는데, 지금 이 길들을 내가 다 뚫은 거예요.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소방차를 가지고 싹 나온다고요. 저기 뚝방 밑에서 좌회전을 해서 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골목골목을 보는 거예요.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소방차가 어디로 들어가겠나 정찰을 하는 거죠. 그 담에는 줄자를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어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삼 미터씩 재는 거예요. 그걸 백지장에다가 그려가지고, 여기는 좌우 회전을 해야 되고, 여기는 소방도로를 내야 되고, 이런 걸 그려다가 태장2동 동장한테 갖다줬어요. 이대로 뚫어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제일 잘 됐었어요. 제방둑으로 소방도로가 난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원주 시장한테까지 쫓아가서, 시장이 나한테 욕을 좀 먹었죠. 사람 사는 데에 소방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길 내면서 내가 입방아 찢어서 다리 낸 거예요. 그래서 길이 이리로 났고. 복원여중 들어가는 데에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 땅 요만큼 들어가면 그게 아까우니까 내놓질 않는 거예요. 소방도로 낼 적에도 집 앞에 길 내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골목은 이미 이 미터 오십, 삼 미터, 이렇게 동장한테 얘기를 하고, 주민들 여론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나하고만 얘기를 합시다 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통장이 그러는데 어떡하느냐고, 모른 척을 하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또 어떡해요, 밥 사줘야죠. 딴 게 아녜요. 주머니가 훌쩍하면 안 되는 거죠.

Q. 미군들이 태장동에 많이 나와서 놀았다고 하던데요.

요 앞에 클럽이 있었는데, 미군들을 위해 만든 거였어요. 미군들이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은 나와서 놀고, 술도 마시고 했죠.



Q. 태장동에 양공주도 있었다고요.

양공주 둘이 나한테 발길에 차인 일이 있어요. 직장
에서 일하다가 손을 굼혔는데, 반창고만 붙였거든요.
쉬는 날 태장동을 지나는데 아가씨 둘이 턱 잡으면서,
놀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나만 가느냐고. 하필
아픈 손가락을 움켜쥐었으니, 아프다고 하니까 안 아
프다는 거예요. 상처난 곳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아프
고 화가 나서 '이 놈의 기집애' 하면서 발길질을 해서
나가떨어졌어요. 그러니 엉엉 울면서 들어가니까, 양
색시 회장이 있어요. 양색시도 신병이 미군들을 상대
하려면 회장을 만나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머리채 휘
잡아서 패고 그랬어요. 그 양색시 회장이 '점잖은 아

저씨가 왜 그러느냐'고 해서, '당신들 보고 까시(히야까시)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손을 붙들고 그러느냐' 했죠. 다친 손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양색시 회장이 나보다 열 살은 위였어요. 사십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나가면 양색
시들이 나왔다가도 슬며시 들어가요. '아저씨 보면 무서워요' 하면서.

가현동 다리 위, 여기 중국집 있고 그런 데에만 큰길가에 양색시들이 있었어요. 문턱에 죽 앉아있는데, 여름에는 지나가
기가 민망스러워요. 안면이라도 있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소리를 지르면 '아유, 저 호랑이 왔다' 이려고 지
나가고 그랬죠. 그때 양색시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는지 없어요.

Q. 캠프 룡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한창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때 근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군 편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 다 죽었잖아요. 미군들이 와서 전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집회하는 것도 봤죠. 그건 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전쟁 나고 수복지구 될 때 아녜요. 모든 게 미비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안 해주면 안 됐던 거죠. 소방차
부터 소방호스까지 다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발전을 하려 해도 대체 뭐가 있어야죠. 속상하죠. 여기 친구들이 캠프 룡 앞에
와서 미군들 물러가라고 팔뚝질하고 아우성칠 적에, 여기 주민들이나 근처 사는 친구들도 '미군들 가야 돼' 하면, '왜 가라
그래, 미군들 안 왔으면 다 됐잖어, 그렇지 않음 굶어 죽었고' 이렇게 뭐라고 했죠.

Q. 캠프 룡이 없어졌을 때 서운하셨겠어요.

없어져서 서운한 건 뭐... 오래 있다 보니까, 원주시도 먹고 살 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몰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 길에 애가 엎어져도 안 일으켜 줘요. 그런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요.
생각을 해 봐요. 배고플 적에 밥 갖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나쁜 건 나쁜 거라도, 고마운 건 고마운 대로 생각을 해야죠.

Q. 캠프 룡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글쎄, 캠프 룡 나온 뒤로 시민들이 캠프 룡 떠나가라 데모도 하고 그러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때마다 나는 욕을 했어요. 쥐
뿔도 모르면서 가라고 한대고요. 캠프 룡을 왜 떠나라고 그러냐, 거기 내 직장이었다, 캠프 룡에서 너한테 해된 게 뭐가 있느
냐고요. 미군이 와서 발전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이 와서 돈 갖다 부은 게 얼마예요. 태장동 사람들 주머니

가 넉넉하면 시내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태장동이 이만큼 발전하고 원주가 이만큼 발전한 게 캠프롱 덕분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태장동 동사무실 운영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캠프롱 종업원이 200명인데, 캠프롱 없으면 실업자 되는 거 아녜요. 미국에서 돈을 대니까 월급도 주는 건데, 서로 우애 없이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캠프롱이 나가고 십 년이 넘었어요. 그 시간이면 여기 전부 빌딩 지었을 거예요. 이제 한국 정부도, 원주시도 질서가 잡혔으니까 차차 회복되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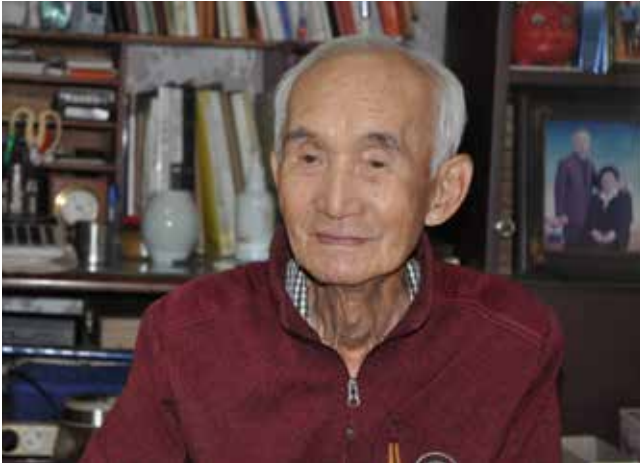
Q. 캠프 롱 부지가 어떻게 변했으면 하세요?

내가 머리가 짧아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도 뭐가 들어앉긴 들어앉아야 해요. 캠프롱 자리가, 잘 되면 횡성까지 뻗치는 데예요. 중간다리라고 볼 수 있죠. 과학관 숲길을 만들려면 캠프롱에서 파낼 게 참 많을 텐데. 말 나와서 5년이라고 그러더니, 10년 15년이 됐는데도 그대로니. 캠프롱에 있던 아들이 지금 평택 가서 있거든요. 그 놈이, 원주시에서 뭐 협조 좀 해달라고 하면 십 원 한 장 내지 말래요. 비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내가 평택을 왜 갔냐는 거죠. 비워둘 바에야 캠프롱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예요. 뭘 한다고 해도 방송 한 번 나오면 사오 년이에요. 내가 벌써 나온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골치 아파.



캠프 룡 뒤편 절골 토박이

_ 신상준(90), 신상국(71) 님



Q. 두 분은 언제부터 절골에 사셨나요?

신상국 : 형님은 33년 생, 나는 50년 생입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신상준 : 우리는 정선에서 증조할아버지때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평산 신 씨인데, 그래서 부근에 평산 신 씨가 많아요. 장양초등학교는 그전에 80%가 신 씨네 땅이었어요.

신상국 : 같은 돌림도 한 30명 돼요. 사촌, 육촌, 팔촌, 연세 비슷한 분들이 열댓씩 모여 일 년에 한 번씩 밥도 먹고 합니다.

Q. 절골은 어떤 마을인지요.

신상국 : 절골은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요즘 도로가 생기면서 시끄러워졌죠. 절골경로당 발독으로 넘어면 형네 집, 동생네 집, 이랬는데 길 자체가 끊어놓은 거죠. 지금 절골은 서른 몇 가구가 됩니다. 1983년까지는 원성군이었고, 그 후론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였는데, 지금은 태장2동 21통입니다. 예전엔 장양리에 세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호남주유소, 원주MBC, 연초제조장, 도로공사가 있어서 7~80년대엔 원주시 세금의 40%를 차지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행정적으로 갖고가버린 거죠. 제조장과 호남주유소는 없어졌지만, 중부지방 전체 기름 출고 탱크가 있었거든요. 원주MBC도 최초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흥양리로 갔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데모도 했어요. 차라리 장양동을 만들라고. 그때 당시 태장동에 가현동도 있잖아요. 태장2동이라고 하는데, 가현동도 없애라고 하면서 한참 싸웠죠.

Q. 캠프 룡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나요?

신상준 : 캠프 룡 들어오기 전에는 낙하산 부대라고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낙하산 부대는 한 중대 단위였을 거예요. 수복할 당시에 부대가 들어왔죠. 거기서 종업원 노릇을 좀 했어요. 그때가 열아홉,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2개월 정도 일



을 했어요. 식당에서 그릇 씻고 종사도 하고요. 식당에서 남는 것을 싸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주고 그랬죠. 미군들은 미국에서 바로 온 것만 먹어요. 전쟁물자라고 해서 박스에 들어있는데, 통째로 못 갖고 오니까 한 사람씩 봉다리에 담아서 갖고 오곤 했죠. 껏발이 있으면 많이 갖고 오고. 주로 남는 게 고기 종류죠, 뭐. 그땐 울타리가 없었어요. 낙하산 부대 이후에 캠프롱이 생기면서 울타리를 치고 그런 거예요.

캠프롱이 들어올 때는 고등학생이어서 외지에서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잘은 몰라요. 나는 원주농고를 나왔습니다. 처음에 원주농고는 사변 전에는 1군지사 자리에 있었어요. 그 후에 원동에서 벽돌을 학생들이 찍어가고 만들어 임시로 있다가, 만종 형문교도소* 자리에 있다가 옮긴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6·25 사변이 나고, 2학년이 되면서 학도병으로 갔어요. 여기서 대구까지 13일 동안 피난을 가서 육군 제17훈련소에 현지입대를 했죠. 육군정보학교에서 2개월 인민군 빨치산 교육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해안에서 1년 동안 유격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완전한 부대가 아니고 임시로 이복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인민군 교육을 받은 거였어요. 육군본부 결사유격 직속 부대, 우리가 제15연대 소속이 돼 가지고 1개 연대 병력이 200명씩 있었죠. 그러다가 탄로가 나서 부대가 해산되고 미8군으로 재편됐어요. 일부는 학교로 다시 복귀했는데, 저도 돌아와서 학교로 다시 갔죠. 나머지 사람들은 미8군 심리전 부대, 커클랜드 부대 해 가지고 그 부대로 편입이 돼서 그대로 군 복무를 하고요.

Q. 캠프 롱 부지에서 거주하셨던 분들도 있었나요?

신상준 : 지금 명륜2동 노인회장을 하시는 신상윤 씨가 거기서 살다가, 원주역장까지 하셨죠. 캠프롱 안에 그때 5집이 있었어요. 안 씨네 2집, 김 씨네, 권 씨네. 그땐 수용이, 강제수용이 된 거죠.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신상국 : 중학교 다닐 적까진 저희 집도 캠프롱 내부에 땅이 있었어요. 1평방미터에 20원인가, 10원인가, 이렇게 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울타리 안은 국가에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건, 80년대쯤 되니까 복덕방에서 캠프롱 땅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 갖고 가더라고요.

Q. 토지 수용 문제 외에도 캠프롱이 생기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신상국 : 그 전에 태장으로 건너갈 적엔 저수지 둑으로 그냥 다녔는데,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못 다니게 하니까요. 저쪽은 태장2동이고 여긴 장양리였거든요. 태장동은 시내 사람이고, 여긴 촌사람이고, 경계가 분명하니까 조금 그랬죠. 여긴 전부 장양초등학교로 다녔고요.



우리나라 부대인 1군사령부는 접근도 못하게 하잖아요. 캠프롱은 울타리 바깥은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유소 짓고 그러는데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울타리 안은 무조건 안 되지만, 바깥은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농사도 짓고 했습니다.

Q. 캠프 롱에 얹힌 추억이 있나요?

신상국 : 미군이 즉석사진 빼준 것이 있어요.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여기 초등학교 동창 일곱이 있는데, 두 사람 아버지가 캠프롱에 다녔어요. 거기서 빵이나 C-레이션을 받아서, 지금 백운아파트 자리에 있던 개네 집에 놀러가면 어머니가 나눠주셨죠. 그때 당시 빵은 진짜 귀한 거였어요. 지금은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어머님 한 분만 살아계시죠. 또 어렸을 때는 옛장사 이런 사람들이 고물을 주워가면 바꿔주잖아요. 캠프롱 철조망 밑에 C자형 파이프를 박아놔요. 비오고 사태난 데 덜렁덜렁한 게 있으면 가져가 엿하고 바꿔먹었죠. 제일 비싼 게 뭐였냐면 수도관 밸브 잠그는 거, 신주라고 하는데, 그걸 훔쳐다가 엿 바꿔먹고 빵 사다먹고 했어요. 걸린 적은 없고, 카투사나 캠프롱에서 일하는 한국사람들이 ‘오지 마, 이놈들아!’ 하곤 했죠. 캠프롱에는 목수하는 사람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한국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담에 캠프롱 안에 나이트클럽이 요 앞 언덕에 있었어요. 시끄러우니까 산꼭대기에 파티장을 만든 거죠. 금요일이면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그래요. 여름엔 더우니까 문은 열어놓고. 어렸으니까 울타리 앞에 가서 구경하고 했죠. 여자 남자 붙들고 춤추는데, 저게 부르스고 탕고구나 생각했죠. 저희 할아버지도 갓을 이렇게 쓰고 가서 구경하면 미군 장교들이 맥주나 과일도 주고 소시지 먹으라고 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또 또래 친구들 중에 대마초를 팔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대마초인지 몰랐죠. 옛날엔 삼웃 만드느라 심고 했잖아요. 저기 순우공업사 있는 곳이 밭이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거기다 대마를 심었어요. 하루는 헌병차



가 들이닥쳐서는 막 베라는 거예요. 300평 밭에 것을 다 뺐더니 인분차에 갖다 그냥 붓더군요. 몰랐는데, 미군부대 애들이 철조망을 넘어와서 그걸 꺾어갔던 거예요. 흑인들이. 일부러 재배를 한 건 아니고, 옛날엔 관절에 좋다고 해서 웬만한 집엔 심겨 있었어요. 대마가 삼이잖아요. 삼옷 짜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심었던 거죠. 불에 삶아서 껍데기를 벗긴 기억도 나요. 나중에 못하게 하니까 저게 대마구나 했죠. 그리고 갯바우엔가 사는 친구 한 놈이 가끔씩 오면 달리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성냥갑에 대마를 넣어놓고 뭐라뭐라고 하면 미군 애들이 돈을 접어서 돌에 묶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성냥갑을 안으로 던지는 거죠. 그 거래를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교도소를 갔죠.

Q. '양키시장' 같은 것도 있었나요?

신상국 : 이 근방엔 없고, 태장 쪽엔 있었던 것 같아요. 양키시장이라기보다는, 양공주라고 해서 그런 사람도 몇 분 있었어요.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권오경*이라고, 그 친구 누님이 미군이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친구도 나중에 같이, 아마 누님이 데리고 들어갔겠죠. 태장 쪽에는 미군과 같이 사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촌이고,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죠.

Q. 미군과 마주치거나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신상국 : 미군들하고 특별히 접촉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미군에 호의적이죠. 캠프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카투사하고 싸운 적은 있어요. 행길(한길) 옆에 술집이, 고속도로가 나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데가 몇 집 있었어요. 지금 저 호남주유소 근방이죠. 군인들도 토요일이면 허가를 내서 정문으로는 못 나가고, 울타리로 나와서 술을 먹곤 했죠. 그땐 술집에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있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

누나 잘 있어!’ 이랬더니, 자기네 애인처럼 ‘야 이 새끼가, 왜 누나야?’ 하면서 주먹질을 하는 거죠. 맞고 나니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욕을 하니 제일 빠른 놈이 쫓아와요. 저도 태권도 유단자니까.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막 때리다가 친구들도 덤벼들고요. 제일 웃겼던 건 누가 짱돌을 들고 때려서 군인 머리에 피가 났어요. 합의하자고 모였다가 친구들은 싹 도망갔죠. 며칠씩 동네에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있나요. 군인들은 군대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순경이나 헌병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선배 중에 한 분, 경찰관하다 관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태권도 5단, 6단이어서 누구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 형이 ‘어떤 놈 이든 산속까지만 끌고 오면 팬다’ 고 말하고 그랬어요. 대보름날 이럴 때는 거리떼하고 패싸움을 하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싸움 잘하는 걸 다 알죠. 동네별로 싸워서, 지면 풍년이 안 든다, 이겨야 풍년든다 이래서 망우리 싸움을 했잖아요.

Q. 캠프 룡 내부에 들어가보신 적이 있나요?

신상국 : 미군의 날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독립기념일에 민간인들도 입장시키고요. 가면 봉투에 빵하고 우유 이런 걸 한 박스씩 주고, 영화관이 있었는데 영화관도 한 편씩 보여주고요. 지금도 건물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구경은 갔었죠. 전날서부터 조명탄 같은 걸로 불꽃놀이하고요.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먹을 걸 많이 얻어갔고 나왔죠.



신상준 : 내가 옛날에 원주군청에서 근무하면서 한미우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출입증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군들 초청해다가 행사를 열었어요. 지역 유지들이 가정에도 초청하고, 극장에 연예인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며 위로도 하고요. 미군부대 행정관으로 있던 김용덕* 씨하고 협조를 많이 했죠. 나는 군청 행정계장까지 했어요. 김용호 씨라고 삼척 분이 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분 밑에서 혜택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원주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공무원을 그만두고 가서 선거사무실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당선시켰죠.

Q. 캠프 룡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까요?

신상국 : 추억만 있죠. 우리하고 생활이 그 사람들은 아예 먹는 습관도 다르니까요. 빵 같은 거 갖다 주면 맛있으니까 조금 더 갖다 주면 좋겠다, 이 정도였죠. 농사짓는 사람은 그냥 그래요. 사랑채 건넌방에 캠프 룡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족이 몇 사람 살았는데, 캠프 룡에서 월급 타니까 좋았겠죠. 옛날 분들 중에선 캠프 룡에서 나오는 고물 가지고 팔아 부자 된 사람들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Q. 캠프 롱 기름유출로 떠들썩했는데, 피해를 입기도 하셨나요?

신상국 : 주민들은 여기서 싸우지 말고 빨리 개방해라, 기름이 유출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파내든지, 정화하든지, 비용이 만만찮잖아요. 오히려 여기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환경 단체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죠. 부산에서까지 차를 대절해서 오고 그랬어요. 물론 주민들도 호응은 했죠. 캠프롱 환원 때 신상운 씨가 임시회장을 하기도 했고요. 요 밑에 소방차 차고지가 있었거든요. 소방차 세차를 하고 하면서 기름이 논으로 계속 들어온 거죠. 여긴 2차적으로 기름이 나온 거고. 저 위에 미군부대 방송국(AFN Korea 원주중계소)이 있었잖아요. 방송국에 천 리터 정도 되는 휘발유 탱크가 있었어요. 휘발유 탱크가 거울에 결로 현상이 생겨요. 물방울이 가라앉으면 그걸 퍼내야 되는데 그냥 꼭지를 틀어서 바깥에 유출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엔진을 걸어서 운전을 해야지 휘발유가 없어지잖아요. 시험 운전을 안 하다가 재고가 생기는데, 기름은 또 받아야 되니까 그냥 무심결에 ‘휘발유니까 날아가겠지’ 하면서 버린 게 계속 스며서 내려온 거죠. 그러다 비 많이 오면 잠재됐던 게 씻겨나오고요.

지금도 기름이 나옵니다. 농막이라도 지으려고 생각해서 물을 파려고 세네 번 해봤어요. 그런데 파고 나면 석유 냄새가 나요. 저번에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수도와 오페수 배관을 물어준다고 해서, 우물을 파 농사도 짓고 먹는 물로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지금도 기름이 똥똥 떠 있어요.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와 흐르는 거죠. 밤나무 재배를 하는데, 기름이 계속 유출이 돼요. 마을까진 수도가 다 들어와 있고, 산비탈이 있으면 얇은 데로 내려가니까 이쪽 건너로는 안 와요. 이쪽 지하수도 괜찮아요. 여긴 괜찮는데, 그쪽 산 밑으로만 파면 기름이 나온다 이거죠.

Q. 밤나무밭은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신상국 : 저 위에 미군부대 방송국이 있었던 쪽이에요. 지질연구소가 있는 산에 밤나무를 내가 심었는데, 한 7년 정도 전에 정부 쪽에서 팔라고 해서 5천 평을 넘겼어요. 시에서도 그렇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원주 발전을 위해서 팔라고 하더군요.

Q. 기름유출로 보상을 받으셨나요?

신상국 : 춘천법원에서 피해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쪽 논 부치던 사람은 시에서 조금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막 용역 주고 해놓고, 저번에도 보상한다고 도장을 받아갔는데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름 나온다고 신고하기도 뭣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군부대 울타리라도 없어도 태장동에 바로 가고, 공원도 생기고, 합심해서 사는 농촌 사람들이지, 뚜렷하게 뭘 좀 해주쇼 이런 것도 없어요.

Q. 앞으로 캠프 롱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시나요?

신상국 :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저버리고 가야되는 사람들인데, 방송에서는 올해 뭘 해준다, 해준다 몇 년 간을 수없이 말해왔잖아요. 이제는 지쳐서 그냥 떠들여라, 우린 관계가 없다, 농사만 짓고 사는 게 낫지, 뭘 한다고 특별히 지원되는 것도 없잖아요. 이젠 재산 관리나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 개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전부 들어가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술관을 짓느니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캠프롱 옆에 산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산을 넘어오면 쉽겠다 정도죠.

캠프 롱에 역사관을 짓는다고 하니, 살아있던 분들이 지낸 애깃거리 듣고 이런 자료가 잘 정리되면 좋겠네요. 다른 건 없어요.

태장 2동 경기 활성화의 주역, 캠프 룡

_ 이인국(67) 님



데 주민들이 채권 하나씩 받고 부대로 넘긴 거죠. 그렇게 1군사령부와 미군 부대가 생기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마을이 형성됐어요.

Q. 태장 2동은 얼마 전까지 제10전군사령부가 있던 곳이죠?

6·25 끝나고 1군사령부가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4년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원래 인제 신남 쪽에 있다가 이리로 들어왔다고 해요. 1군사령부 창설은 인제에서 한 거죠. 원주로 이전하기 전 사령부 청사 있는 곳에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마을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아버님께 들었어요. 아버님이 인제 신남 1군사령부에서 근무하셨는데 원주에 1군사령부를 짓기 위해 선발대로 오신 거예요. 당시 대부분 논이었는데

Q. 선생님 고향은 어디 신가요?

저는 여기 원주에 와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1군사령부 선발대로 오시면서 제가 태어났죠. 1군사령부는 병력이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지휘부만 있었죠.

Q. 처음 집이 이 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다리 건너에도 집이 있었고, 맞은 편 길 건너에도 지금 있는 것만큼 있었죠. 길 건너는 호저면 가현리였어요. 지금은 가현동이라고 부르죠. 장양리는 소초면 장양리고요. 원주가 커지면서 가현리가 가현동이 되었죠.

Q. 캠프 룡은 어떤 부대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캠프 룡은 1군사령부가 오니까 고문단 역할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신부대와 정보계통 쪽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인원이 많지도 않았어요. 황성 공군부대 쪽에 미군 공군(캠프 이글)들이 있었는데 그곳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문단은 1군사령부에 자문해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미군들이 정보가 많으니까요. 1군사령부도 전투 부대가 아니니까 병력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장군들과 장교들이 많았죠.

Q. 1군사령관도 보고 그러셨겠어요.

1군사령관은 매일 출퇴근 하니까 수시로 보았죠. 1군사령관 관사가 태장초등학교 옆에 있었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부사령관이었는데 대통령 되고 한번 왔었어요. 차 문 열고 손 흔들면서 가는 것을 직접 봤



학성동 옛 원주역,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제1군사령부 시찰을 위해 원주역에 도착하는 모습이다_1967년 국가 기록원

조. 박 대통령은 군 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부인이 시장가는 데 부대 차를 이용 못 하게 한다는 말도 떠돌았죠. 전방 사단장 하던 사람은 부인이 부대 차로 시장 갔다 온 것을 알고 영창에 집어 넣었다고 그래요. 군인도 아닌데 군대 물건에 손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영창에서 하룻밤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재미있고 청렴한 장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Q. 처음에 아버님이 1군사령부 선발대로 오셨다고요?

네. 아버님 고향은 이북인데, 계속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셨지만 집으로 갈 수 없어 여기 눌러앉으셨어요. 전역 후에는 군인들이 면회를 많이 오니까 여관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럭키클럽을 시작했지요. 정확하 게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초반으로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거든요. 럭키클럽은 미군 전용 술집이었고 파라다이스 클럽도 옆에 있었지요. 캠프 룡도 기지촌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여성분들이 난잡하게 행동하거나 돈 받고 몸 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럭키클럽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여성들도 아니었고요. 럭키클럽은 미군 전용 술집이었는데 특수관광업으로 분류가 돼서 매출은 전부 수출로 잡혔어요. 그리고 양색시라고 불렸던 여성분들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 미군 잘 만나 결혼해 미국으로 가는 거였죠. 요즘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오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자기 친정집에 돈도 보내주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저와 비슷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지촌은 곳곳마다 특성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수준도 높았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Q. 아버님께서 태장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태장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버님이 계속 기성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제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부터 막내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셨죠. 제가 서른이 넘어가니까 그 연유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교육청에서 태장초등학교 설립 건으로 아버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교육청에서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태장에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은 나왔지만 교사 짓기도 모자라니 학교 부지를 동네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물어봤다고 해요. 어느 지역부터 어디까지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현충탑 있는 곳부터 장양리 고개까지인데 적당한 곳을 찾아보니 지금의 태장초등학교 자리가 길옆이고 땅 주인도 팔 생각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전체 땅값의 3분의 1을, 나머지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모아 잔금 치르고 교육청에 명의를 이전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면 아이들 앞에서 우쭐떨까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Q. 교육청에서 왜 아버님을 찾아왔을까요?

6·25 당시 켈로 부대장 출신이신 아버님은 용맹하기도 했고 정치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유당 때 반공청년단이라고 있었어요. 지역 깡패 모아다가 반공청년단을 조직했는데 어느 날 아버님한테 경찰서장이 보자고 하는 전갈이 왔다고 그래요. 반공청년단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해서 단장을 맡으셨다고 해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하니까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Q. 캠프 룽에서 고아원 지원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일이 있나요?

태장동 쪽 고아원은 캠프 룽에서 모두 지원해주다시피 했어요. 신애원 다니는 아이들은 옷도, 학용품도 모두 미제였어요.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원은 많이 해준 걸로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캠프 룽에서 동네 교회에 아이들 나눠주라고 사탕도 많이 가져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우르르 다니면서 사탕을 얻어먹곤 했지요. 저도 한번 따라갔었는데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때는 사탕이 귀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제품이 없을 때였어요. 한참 후에 먹은 것이 크라운 산도라고 지금도 나오는 과자를 먹었죠.

Q. 성장해 가면서 기억나는 캠프 룽은 어떤 곳이었나요?

부대 지휘관이 소령이었던 걸로 들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캠프 룽에 다닌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나는 건 미군 부대 안 식당입니다. 미군 부대는 면회소가 따로 없이 한국인이나 미군 면회를 위병소에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 부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한구역 빼고는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죠. 캠프 룡 안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기 힘든 티본 스테이크가 환율에 따라 어떤 날은 엄청 싸요. 티본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레스토랑에 전화를 하죠. 그럼 몇 시에 오라고 해서 식당에 전화하면 식당에서 사람이 나와요. 미군 부대는 아는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싶으면 알지 못해도 먹을 수 있는 셈이죠. 계산은 달려도 되고 우리나라 돈도 되고, 카드도 되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가끔 가면 바로 스테이크가 안 나오고 스프를 먼저 줘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버님을 아는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프를 먼저 주지만 미군 레스토랑은 스프를 따로 안 주거든요. 서비스라고 주는 거죠. 제가 아는 미군 부대는 나름대로 융통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Q.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의 동네 풍경은 어떠셨나요?

지금 서점 자리에 럭키클럽이 있었고, 골목 옆으로 파라다이스도 있었는데, 미군들은 일과 끝나면 나오고 근처만 다녔어요. 통닭 골목은 미군들이 가끔 가기는 했지만 동네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여기 근처에 미국 사람들과 살림을 차린 경우는 좀 있었어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미국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Q. 미군 부대가 있어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먹는 걸 잘 먹었어요. 햄버거나 피자 등 평소 못 먹어 보던 걸 먹을 수 있었어요. 미국독립기념일에 부대 개방을 하면 어른은 잘 안 가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가면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아이스티를 아주 큰 통에 만들어 놓고 얼음과 레몬 간을 잘해서 거기에 온 아이들 다 주는 거예요. 옛날 헬리콥터를 놓고서는 아이들 손 들으라고 해서 2~3명 태워도 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서 만화영화를 계속 틀어줘요. 그때는 어린이 놀이터도 없을 때여서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죠.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여서 자기 집 아이도 이쁘다고 안 할 때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삶이 풍족해져서 아이들 이쁘하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 이뻐해요. 아이들은 맛있는 거 주지, 볼 것도 많지, 이뻐해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Q. 미국독립기념일이 되면 불꽃놀이가 장관이었다고요?

저녁이면 불꽃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부대를 개방 안 할 때도 불꽃놀이는 부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일 년에 한 번씩 했어요. 독립기념일예요.

Q. 반미운동하는 단체와 주민과의 사이에는 갈등은 없었나요?

절골 쪽 캠프 룡에서 기름이 새면서 문제가 있었죠. 눈에 기름이 들어가고 새기 시작하니까 환경단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사해라. 그런 요구가 꽤 있었죠. 환경단체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자기들이 종주국이라고 와 있는 것처럼 비취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은 있었어요. 지금 미국 반대하고 그러지만 미국의 작전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미군과 한국군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Q. 캠프 롱이 원주시는 물론 태장 2동 경제에도 큰 역할을 했지요?

동네 사람들 많이 윤택해졌지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집에 방 1~2개 세를 줘요. 그 월세방에서 여자들하고 미군이 살림을 차리기도 하죠. 미군은 사병이라고 해도 나가서 생활하겠다고 하면 보내주나 봐요. 그러면 집세를 현금 대신 미제 물건으로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내 양키 시장에서 거의 매일 이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아요. 예를 들어 월세로 물건을 10만 원 어치 받았으면 더 많이 받고 팔았겠지요. 이 동네 사람들 먹는 것도 잘 먹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절 데리고 서울을 올라갔어요. 창경원(동물원)을 데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핫도그가 맛있어 보여 사달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저거 가짜라면서 집에 가서 사 주시는 데 미군 부대 핫도그였어요. 그게 진짜였던 거죠. 이 동네는 확실히 미군 덕 많이 봤어요. 우리처럼 럭키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방 몇 개씩 세놓으면서 괜찮았지요.

Q. 나쁜 기억은 있나요?

특별히 나쁜 기억은 없어요.

Q. 캠프 롱 폐쇄했을 때는 어땠나요?

미군 부대도 서서히 줄기 시작하면서 없어졌어요. 198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 수준도 높아져서 미군 부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졌지요. 미군 부대가 떠나기 전에, 럭키클럽과 파라다이스도 자진해서 폐쇄했어요. 서서히 줄어든 거죠. 우리도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럭키클럽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 썼어요. 지배인이 다 알아서 했죠. 옛날에는 미군 물건이 엄청 좋았는데 우리 물건도 좋아지니까 미제 물건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미군들로 인해 태장 2동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1980년대 들어서면서 거의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 물건은 1970년대까지 거의 쓸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국산은 손톱 깎기도 못 쓸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나라 공산품이 형편없던 시절이었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처럼 빠른 시일에 발전한 나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는 게 워낙 좋아졌으니까, 평택도 경기적으로 도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미군들이 물건 사가는 정도죠.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물건 하나만 얻어도 도움이 되었지만요.

Q. 캠프 롱 부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지요?

캠프 롱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동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지만 기대는 됩니다. 하다못해 들어가서 구경할 거리도 생기고, 사람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면 좋지요. 사람이 막 몰려다니는 장소는 아닐 것 같고 동네가 엄청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렇게 있기보다는 뭐라도 들어서서 유익한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Q. 군사보호구역 풀려가면 개발도 이뤄지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군사령부 앞 군사보호구역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태장 2동은 좀 나아요. 가현동 쪽은 지금 가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아요. 곰탕집 뒤쪽으로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그대로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가 군사보호구역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태장동하고 우산동이 원주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죠. 단구동은 1980년대까지 제일 낙후된 곳이었어요. 태장동보다 형편없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죠. 그런데 태장동은 1980년대부터 거의 변화가 없어요. 땅값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자연과 함께했던 캠프 롱 시절

_ 이승엽(50) 님



Q. 캠프 롱에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계기가 있었나요?

1997년에 들어갔어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일반 회사는 대부분 6일을 근무했잖아요. 토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일을 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랬지요. 그런데 주한미군 부대는 그때도 주 5일 근무였어요. 등급이 높은 부대일수록 연봉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레이드(등급)가 높은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즘 말로 하면 워라벨이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간 게 커요. 예전에는 시험 안 보고 뺏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춘천 가서 시험을 봤어요. 토익하고 비슷했는데, 어느 정도 그레이드까지는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잘 봤어요. 춘천 캠프페이지 가서 보기도 하고 자리 날 때마다 지원을 해 시험을 봐서 거의 1년 만에 됐어요. 그리고 평택기지(USAG 험프리스)로 간 건 2010년에 갔어요. 캠프롱 폐쇄식을 2010년 6월에 했거든요.

Q. 혹시 말고 계신 보직은 원가요?

주한미군은 한국 공무원처럼 급수가 낮아질수록 좋은 게 아니라 급수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한국 공무원은 9급보다 5급이 훨씬 높은데, 미군은 9급은 엄청 높은 구조인거죠. 제가 지금 사무행정 7급입니다.

Q. 캠프 롱에서는 면세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죠? 전에 담배 같은 것은 싸게 면세로 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면세 담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면세 담배를 못 사게 했어요. 답답한 게 미국 사람들은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못 산다는 거지요. 들리는 소문에는 위쪽에서 대량으로 빼돌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한 달에 네 보루까지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나중에 담배 태우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한테 부탁해서 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한국 사람들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답답했어요.

Q. 캠프 롱 근무 당시 미군들과 자주 가던 곳이 있나요?

지금의 중앙로, 그때는 B 도로 2층에 바가 있었어요. ‘크래시’ 라고 하는 바였어요. 당구대도 있고 무대도 있어서 춤도 추고 그랬지요. 기지 앞 바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테이블에 앉아 담배 피우고, 술도 먹고 그랬어요. ‘크래시’ 는 꽤 잘 되던 곳 중 하나였지요. 오히려 태장 쪽에는 그런 웨스턴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군 전용 클럽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캠프롱에 근무할 때는 이미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캠프롱은 부대가 작다 보니까 미군들과도 친밀도가 있었고, 나중에는 단계택지에도 웨스턴 바가 생겨서 함께 다니기도 많이 했어요.



Q. 캠프 롱 기름 유출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했었죠? 그때 한국 사람들 반응과 분위기 좀 말해 주세요?

기름 유출은 장양리 쪽인 절골에서 주로 발생했잖아요. 오래 일하신 분들 얘기하는 건 거기에 드럼통을 파묻었다 그러는데 그냥 카더라 통신인죠. 그런데 옛날에 기름 빼돌리려고 밖으로, 절골 저수지 쪽에는 경비가 없었으니까 그쪽으로 드럼통을 굴려서 가져갔다는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름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 유출 때문에 조사 나와 땅을 파 봤는데, 도면에 없는 파이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미국 애들은 파이프 묻고 그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요. 어쨌든 도면에 없는 파이프라인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파이프라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그저 추정만 할 뿐이죠. 다른 분들은 아마도 막사마다 있는 소형기름탱크의 물을 빼내다가 기름이 같이 흘렀다고도 말하는데 그 말이 가장 신빙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Q. 캠프 롱의 정확한 역할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중대 단위로 파견 나와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다양한 중대가 오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대마다 특성이 다 다른 데 제가 알기로는 전투 부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투 부대는 대부분 의정부나 동두천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캠프롱은 각기 특성이 다른 중대들이 주로 있었죠.

Q. 캠프 롱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복지는 어땠나요?

솔직히 직원에 대한 복지 정책이랄까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밥은 다 사 먹어야 되었고요. 다만, 근무 환경이나 휴가 등은 한국의 일반 회사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주 40시간 근무였으니까요. 휴가도 최소 단위가 15분이었어요.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제가 15분 휴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휴가는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누가 대신 일을 해줄 수 있으면 장기 휴가도 가능해요. 한 달에 이틀 정도 휴가 쌓이고 병가도 쌓이고 그래요. 안 쓰면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일정 부분 안 쓴 휴가는 나중에 퇴직할 때 돈으로 주기도 해요.

급여는 호봉 수로 책정하는 데 각 직급마다 13호 봉까지 있어요. 급여도 좋은 편인데 근무 외 일을 하는 곳은 역대 연봉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한미군 기지 내 소방서에서 한국 책임자 같은 경우 상당히 급여 수준이 좋아서 역대 연봉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년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지금 정년은 61세거든요. 그런데 크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책임자 오케이 사인 아래 대부분 68세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년 이후 68세까지는 임시직인데, 호봉 수도 13호봉이 끝나면 3호봉으로 깎여요. 임시직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68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책임자가 오케이 하면 신체적으로 거동을 못한다거나 하는 것만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죠.

Q. 캠프 롱 내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그때는 슬롯머신을 해도 크게 제한이 없었어요. 돈 똑같이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한국 사람은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소파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캠프롱은 부대가 작으니까 장교급들이 이야기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당구 테이블 있고, 바가 있어서 술 먹고 그런 식이었어요. 중간 한쪽에는 슬롯머신이 있고 그랬지요. 그런 것들도 돈만 내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Q. 주한미군 내에서 한국인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더라고요. 누구는 종업원, 누구는 군속 등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정확할까요?

군무원이나 군속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 하면 군무원은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을 군무원으로 인정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캠프롱에 근무하던 군무원이 있었는데, 캠프롱이 없어지면 한국군 군무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군무원 신분이 아니라 군속이나 한국군 종업원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업원이라고 그러면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는 노조도 있긴 한데 군무원이든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각자 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명확한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주한미군 소속이지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거든요. 저 같은 행정직의 경우 미국에서 70% 좀 넘게 돈을 받는데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도 관계가 있겠죠. 미군들이 받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 같아요. 미국정부에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과거 캠프 롱의 근무 환경은 어땠나요?

1970~1980년대는 캠프롱 직원들의 월급이 공무원 연봉 한 3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세금도 내지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괜찮았지요. 그리고 일단 좋은 게 당시만 해도 근무시간 8시간 식사 시간 1시간 총 9시간인데 그 시간 이상 더 일을 안 했어요. 기존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이라고 그래서 나이트 타임 수당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한 달 30일을 다 계산해서 월급을 책정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캠프롱에서 근무한다는 것이요.

Q. 복지 환경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에 볼링센터가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슬롯머신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볼링장에는 핀보이가 6명 정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처럼 자동이 아니라 완전히 수동이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좋았다고 들었지요.

Q. 태장2동에 양색시들이 많았잖아요? 한때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기도 했고요.

태장동은 다른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이나 의정부 그런 것처럼 성매매는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미군들을 만나는 경우라면 모를까요. 저의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아마 미군인지 정확하개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사건 사고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양색시들이 사는 삶과 태장2동 일반 여성들의 삶이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살았고 화장도 그렇고 화장품부터 먹는 것까지 많이 틀렸을 겁니다. 태장동에도 아마 미군 제품들이 암암리에 거래가 되었을 텐데 그걸 블랙마켓이라고 하지요. 미군들과 동거를 하던 양색시들이 월세로 미군 제품을 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요즘 이야기로 하면 화귀템 아니겠어요? 쉽게 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미제 물건이 딱 좋았겠조. 예를 들면 진주 소시지도 귀한 시절에 스팸만 있어도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캠프롱 근무할 때 선임 매니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TV를 부대에서 사셨는지 구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미국 TV인지 일본 TV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컬러TV를 구하신 거예요. 컬러TV인데 웃기는 게 한국에서는 컬러 방송이 안 되던 시절이었죠. TV는 컬러TV인데, 방송은 흑백으로 나오는 황당한 일을 겪은 거죠.

Q. 캠프 롱 내에 살던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군 부대가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캠프롱 내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이 있을텐데 그 마을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겠지요. 그분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방부에서 일을 추진하면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캠프롱 내에 논도 있고 밭도 있었을텐데, 어쨌든 떠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당시에는 어떻게 몰라도 지금이라도 보상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 정부가 했던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Q. 주한미군 기지 내 직원 간의 관계는 어떻게?

수직적으로 명령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대부분 직원들이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거보다 자기 일만 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으면 뒤에 얘기를 하고 그러지요. 강요도 없어요. 평택기지로 옮기고 나서는 향우회 비슷한 것이 있는데 워낙 많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만나기가 힘들어요. 평택기지가 듣기로는 400만 평 넘는 것으로 들었어요. 거기에 활주로도 있고 그러니까요. 직원도 엄청 많을 겁니다. 미군 같은 경우도 결혼 안 한 군인도 있지만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거든요. 예전에 군인만 3만 명 이상 될 거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Q. 직업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캠프롱 시절보다 지금 포지션이 좀 바빠진 하지만 만족하고 있어요. 일, 생활 모두 만족해요. 예전에는 주한미군 부대 다닌다고 그러면 좀 낮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만족해요. 더구나 정년이라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체가 되기도 해요. 들어 올 문이 좁아진 거죠. 직원을 채용하는 공모도 외부와 내부로 나눠서 하는데 내부 공모 만해도 자리 하나 나면 경쟁률이 기본 100대 1입니다. 거기다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요. 미군부대 들어오기가 예전 같지 않죠.

Q. 캠프 롱의 숙소나 시설들이 지금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활용도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캠프롱은 지금 보아도 자연친화적이거든요. 환경이 진짜 좋지요. 생태 환경이 말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날다람쥐도 많이 봤어요. 제가 실제로 본 게 날다람쥐고, 제 아내도 함께 캠프롱에 다녔는데 저녁 퇴근할 때 고라니 새끼하고 멧돼지 새끼하고 같이 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저는 흰평도 봤어요. 그런 환경을 잘 보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곳에 뭐를 하든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그냥 잘 보존만 시켜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Q. 태장2동 사람들은 캠프 롱이 떠난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지역 경제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1970~80년대에는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아마도 지역 경제에 관한 것이겠지만요. 캠프롱이 떠나고 10여 년을 방치하면서 태장2동도 많이 침체했을 겁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만한 것이 크게 없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몇 백 명의 인구가 싹 빠져버렸으니까요.

Q. 미군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 같은 곳에서 봉사 많이 하고 써포트도 많이 해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았어요.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런 곳의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초대해서 부대에서 하루 같이 놀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훈련이 끝나고 남은 엄청난 양의 음식들도 가져다주고 그랬어요.

Q. 캠프 롱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바람이 있다면.

캠프롱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앞으로 많이 바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태 환경은 무조건 자연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펜스를 치더라도요. 그곳은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입장하는 인원을 제한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연환경 그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대를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그 유산을 남기면 좋겠어요.

Q. 캠프 롱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을까요?

저는 캠프롱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캠프롱을 떠난 것도 아쉽고요. 제가 일하던 사무실이었고 떠날 때도 마무리했던 곳이라 많이 생각이 나지요. 캠프롱이 문을 닫을 무렵은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캠프를 닫는 시점이었잖아요. 큰 부대 위주로 일이 진행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캠프 사이트라는게, 일하는 자연 환경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소문도 한 번 돌았었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어쨌든 캠프롱이 있었던, 역사 그대로가 잘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연환경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캠프 룡 마을에서 태어나다

_ 이호천(69) 님



Q. 태장에서 얼마나 사셨나요?

53년에 태어나서, 54년에 거릿대로 나왔고,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태장으로 나왔어요. 지금 복원여중 맞은편이에요.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죠.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군들이 동네에서 같이 살고 그랬어요.

Q. 캠프 룡 부지에 있던 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태장에는 고조할아버지 때 내려오셨대요. 고조할아버지께서 일제 강점기 때 마름이라고 하죠, 대동거리나 가치래미 쪽 일대 땅 관리를 하셨고요. 원래 고향은 인천이었는데, 한 분이 내려오셔서 태장에 자리를 잡아가시고, 형제들도 다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다 친척들이었어요. 오륙십 가구 중에 열 몇 가구는 우리 집이었으니까, 집성촌 같았죠.

우리 집은 전쟁 전까지 캠프 룡 안에서 살았습니다. 휴전이 된 다음에 나온 거예요. 태장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집을 빼놓고 큰집이나 나머지는 다 사령부 쪽에 살았어요. 사령부 안에 있던 마을은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사람들이 가치래미랑 가깝게 지냈죠. 우리 집만 통재에 살아서 우리 어머니를 통재 아주머니, 통재 할머니라고 했죠. 장양리 넘어가는 고개 있죠? 그쪽 모퉁이를 통재라 그러지 않았을까 해요. 장양리 넘어가는 길 오른쪽, 캠프 룡 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밭이고 논이에요. 캠프 룡 정문 있고 새로 주차장 만들었던 데가 제가 가서 아버지랑 농사짓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돼있죠. 울타리 쳐놓고요.

아버지는 농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나를 업고 두부를 만들어서 행상을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요. 형제는 캠프 룡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 나와 내 여동생이 더 태어났죠. 사진엔 안 나오는, 위에 형이 6·25 때 죽었대요. 가치래미에 한약방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업고 통재에서 가치래미까지 뛰어가 한약방에 내려놓으니까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Q. 고향을 떠올리시면 기분이 남다르시겠어요.

어린시절 하면 거릿대 시절하고, 태장 아랫동네하고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고향 하면 거릿대가 떠올라요. 태장에 나와서는 일반적인 추억들, 학창시절 이런 거고요. 어린 시절 향



이호천 선생 가족 - 한국전쟁 전 캠프 룡 부지에서



이호천선생 부친(고 이보석 선생님, 거릿대에서 집짓기) 뒤로 캠프 룡 교회가 보인다

수는 거릿대, 거기 있던 친구들, 어른들, 사람들이죠. 이안아파트에 반공산*이라고 동산이 있었는데, 단오나 추석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올라서 그네타기 했던 것도 생각나고요. 또 우리 아버님이 당시 반장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시고, 동네 형들과 사랑방에 모여서 유행가 배우던 생각도 나요. 만화책이 처음 나오고 이럴 때여서 책들을 나눠 보기도 하고, 그런 게 거릿대에서의 추억이에요.

Q. 캠프 룡이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농사를 지으셨나요?

처음엔 안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즈음에 농토만 개방을 해줬어요. 농토도 안쪽 운동장 있는 데가 아니라 주차장 쪽 고개 꼭대기 옆까지만요. 거기까지는 개방을 해주고 출입카드를 줬습니다. 집안에 하나씩 출입카드를 받았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정문을 통과해서 농사짓고 그랬죠. 저녁이나 밤에는 안 되고, 주간에만 가서 매일 농사를 지었죠. 70년대 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때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국방부하고 소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세 번 정도 했던 생각이 있는데, 계속 패소를 했거나 유예가 되거나 했던 것 같아요. 보상을 못 받다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일대를 다 사겠다고 나왔어요. 동네 사람 몇이 협의를 해서 땅을 다 넘겨버렸어요. 헐 값이었죠. 70년대 초반에 농사를 못 짓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넘겨버린 거죠. 땅을 팔고 그 때부터 출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 후로 대학 다니면서는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이상해요. 돈 많은 서울 사람이 나서서 땅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판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국유지, 사유지잖아요. 일부러 국가에서 사람을 내세운 것 같기도 하고요. 시청에 가서 부재지 조사까지 했는데, 국방부로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개인한테 말았거든요. 한 열 마지기 이상 되는 땅인데, 당시에 내가 알기로 200

만 원이 못 되게, 150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걸 형님이 갖고 독일에 탄광 광부로 가느니 하다가 돈을 다 날렸죠. 내가 생각하기에 어머니 아버지는 땅 뺏긴 게 굉장히 억울하고 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대리인이 있을 거 아녜요. 그걸 제가 잘 몰라요. 누가 나서서 어떻게 했는지. 졌다, 이겼지만 들었죠. 이번에도 또 안 됐다고.

Q. 농사를 지으러 드나들며 마찰은 없었나요?

운동장 쪽으로 가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주차장 쪽 거기서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올빼미인지, 이만한 새 한 마리가 논에 와 있으니까 잡아서 들고 나오다가 미군이 그걸 신고해 가지고, 태장파출소에 가서 24시간 조사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빼미인지 부엉이인지 그 새는 다시 넘겨주고요. 미군들이 그렇게 다른 데 벗어나거나 가지고 나오는 건 철저히 통제를 했어요.

Q. 그때 미군과의 교류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신가요?

미군과 교류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태장 사람들 중 캠프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주머니들은 세탁소에 다니고, 남자들은 공작실에 다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보초나 경비를 했죠. 6~70년대 기억은 다 나지만, 더 어려서 거릿대에서 살 때는 뚜렷한 기억이 없어요. 지금 가 보니 장교 숙소 바로 옆에 식당이 있던데, 그 부근에서 매일 하기식을 했었어요. 포 같은 걸 싸가면서요. 매일 저녁 5시에 기수들이 와서 하기식을 하면, 동네 친구들하고 가서 율타리를 붙잡고 그걸 구경했죠. 하기식을 안 하는 평상시에는 골프연습장이었어요. 그래서 티박스들이 죽 있고요. 골프를 치면 공이 밖으로도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그때는 골프공 걸을 따면 안에 탄력이 무지 좋은 고무공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놀았죠. 그리고 그쪽에 헬기장이 있으니까 매일 헬기 뜨고 내리는 것도 구경하고요.

(캠프롱 식당)



이호천선생과 미군 1954년경 캠프롱

Q. 미군과 찍은 사진이 남아있으시네요.

써전(sergeant)이라고 하던데, 높은 사병이에요. 그때 우린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아마 미군이 찍었겠죠.

Q. 그 후로 캠프 롱에 들어가보셨나요?

태장에 나와서 학생 때, 당시에 UN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캠프롱을 개방하니까요. 들어가서 헬리콥터에 한 번씩 앉아보고 그랬죠.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에 하고, 또 10월 24일인가에 UN데이 때도 개방을 했어요.

Q. 태장에는 군부대와 이래저래 연이 닿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우리 집에도 군인들이 많았었어요. 군인들이 많으니까 사령부에서 힘 쓰는 군인들도 많았고요. 우리 옆 방에 사령부 간부도 있었어요. 내가 군대 가자마자 특전사로 갔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죠. 문재인은 사병으로, 난 장교로 근무하고. 그때 공수 교육을 받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완전히 흙투성이가 됐는데 면회 오셨다고 해서 갔더니, 내 모습을 보고 놀라신 거죠. 왜 오셨냐고 했더니, 의견을 물으러 오셨대요. 옆방에 사는 무슨 소령이 나를 일

반 부대로 빼준다고 했으니 나가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구태여 그런 신세까지 저가면서 일반 부대를 가고 싶진 않아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도로 태장에 힘을 가진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태장은 국제도시 이런 느낌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Q. 양공주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매매 이런 건 내가 알기론 없었고요. 결혼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색시들이 지금 얘기하면 하나의 세력이라고 해야 하나, 파워를 가진 단체였어요. 어느 집에 계시는 분이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좀 외교적이고 활동적이었는데, 양색시 생활을 접고 나서도 다른 양색시들이 회장님 대우를 해주고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집에도 미군이 살았어요. 양색시가 동네에 많았는데, 우리 옆방에도 있었거든요. 양색시들은 여유가 있었잖아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우리 아가씨들은 농사짓고 이러니까 여유가 없고. 그게 참 희한했어요. 아쉬울 땐 그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 쓰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어려서 설날에 세배를 가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럼 동전 하나씩 받고 그랬죠. 우리 아버님이 뭐 만들고 그런 걸 잘하시는데, 미군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귀국 선물 같은 걸 부탁해서 들지게, 소쿠리 이런 걸 만들어서 주면 상상 이상으로 많은 돈을 주고 그랬어요. 양색시들 살던 집이 우리 인근에만 열 집은 넘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배를 다니고 그랬죠. 그 밖에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 편하게 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불편했겠죠.

나는 자꾸 사회적인 거하고 대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도 왜 친일파들이 잘 살고, 독립군 후손이 못 살고 이런 것처럼, 지킬 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좀 궁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협조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변절자라고 욕먹지만 풍족하게 살고, 이런 게 불공평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양색시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와 비교하자니 외세에 덧붙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민족적인 데 애착을 갖고 살면 어렵게 사는 형편이랑 대비가 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안 좋은 생각도 많고 감정이 있었겠어요. 술 취해서 행동하고 그랬던 걸 보면, 엄청 괴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엔 잘 모르고 같이 살던 미군하고 싸웠나 이런 생각만 했지만.

옆집에 살던 사람은 쌍둥이 아주머니였어요. 동생은 다른 집에 살고, 우리 집에 언니가 살았는데 두 분 다 미인이어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일부종사를 한 게 아니라, 같이 살던 미군이 귀국하면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조금 하니까, 귀국한 미군이 편지를 보내면 내가 번역해주고 콜라나 맥주 얻어 마시고 그랬죠. 나중에는 먼저 살던 군인이 제대하고 다시 돌아와서 언니와 동생을 다 데리고 갔어요. 쌍둥이 아주머니는 지금 생각해도 미인이었는데, 미군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어요. 이분들이 호적이라고 하나, 지금 따지면 주민등록을 고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미국에 갈 때 필요하니까요. 나이를 고칠 수 있는지 막 얘기하고 걱정했던 게 기억나요. 그분들을 찾고 싶은데, 잘 지내시겠죠. 엄청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군이 제대하고 와서도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정도니,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갈 때 우리 아버지가 기념품 만들어서 줬는데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인품도 있는 사람일 거고요. 그래서 잘 살고 계실 것 같아요.

Q. 인종차별 같은 것은 없었나요?

태장이 국제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파마를 한 여자도 있었고, 아무래도 좀 현대적이었죠. 차림새라든지. 인종차별은 많이 못 느꼈는데, 한 가지 흑인하고 살던 여자는 백인하고 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백인들이 안 받아줬는데, 여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Q. 국제도시라고 불렸을 정도였군요.

미군하고 같이 사는 여자들, 클럽이나 술집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미군부대에서 나온 물건을 갖다 팔면 굉장히 수입이 많았어요. 뒷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몇 번씩 미군부대에서 이만큼씩 물건을 빼서 갖다가 팔았는데, 자꾸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담으로 넘겨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위를 달고서는 휴가를 나왔는데 그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장교 달고 있으니까, 이제 나라 공무원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물건도 아니고 양키 물건을 갖다가 불법인데 팔고, 우리 집을 통해서는 하지 말아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분한테 좀 미안했던가 봐요. 그 분은 그게 직업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씨지*라고 해서 옷, 술도 있고, 가전제품을 내다 파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미군들뿐만 아니라 한국군들도 많이 그랬어요. 우산동 개울가에 가면 지프차나 트럭들이 와서 한 시간씩 서 있다가 가요. 기름을 거기서 빼고 빈 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캠프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 두진백로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쓰레기 중에는 먹을 거나 부속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큰 업이었어요. 쓸만한 걸 찾아서 팔고, 나머지는 동네 아이들이 가서 주워다 팔았죠. 친구들이랑 ‘오늘은 쓰레기장 가볼까!’ 하고 가는 거예요. 많이 갔죠. 그래서 어른들 모르게 ‘장기레쓰’ 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용돈을 구할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맞은편 주공아파트 있는 데에는 급수장이 있어서 펌프 시설이 있었어요. 흥양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캠프롱에서 썼죠.

Q. 미군들과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나요?

태장에 클럽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허 씨고, 하나는 이 씨였어요. 인철이네하고 남현이네라고. 우리가 막 겁을 먹을 정도는 별로 없었고, 술이 취하니까 주정으로 소리 지르고 차 광광 치고 그런 정도였죠. 차라리 동네 형들이 한국 군인들 하고는 더러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고요. 카투사 말고, 이쪽에 부대가 많았어요. 방첩대, 원마트 맞은편에 국군병원, 수송병원 있고, 개들하고 많이 싸웠죠. 미군이나 카투사하고는 갈등을 못 본 것 같아요.

Q. 통닭골목도 캠프 롱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들었어요.

통닭골목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쌍동통닭) 사장님도 캠프롱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어요. 우리 누님이 화천에 시집갔다가 인천으로 옮겼는데, 식당을 하셨어요. 원주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어느 날 친정에 와보니까 통닭이 너무 유명한 거죠. 작은 매형이 외교가 좋아서, 미군부대에서 퇴임할 때까지 근무했던 사촌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분이 통닭집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셨던지,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통닭집에서 몇 날 며칠을 돈도 안 주고 그냥 선물만 주고 해서 배워가지고 인천에 태장통닭이라는 가게를 만들어서 장사를 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나도 통닭은 쌍동통닭 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근무할 때 행사 있으면 전교생 통닭을 거기서 시켜다 먹고 그랬죠.

Q. 캠프 롱 덕분에 지역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서... 캠프롱이 생계와 관련이 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허 씨네, 이 씨네는 지역 유지였고요. 이성경* 씨는 우체국장도 하시고, 허남현* 씨 아버지는 성함은 모르지만 허배떡*(배불떡이)이라고 했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셨고, 나도 어려서는 모르고 지냈는데 커오면서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도 많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우면서 이제, 미군한테 돈도 못 받고 땅도 못 쓰고 그러니까. 캠프롱 막히고 나서는 논



이 네 마지기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비슷하죠. 사령부에서 나온 사람들도 태장에 많이 있었는데, 사령부도 오래 보상을 못 받다가.

Q. 한창 기름유출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내가 전교조 출신이에요. 교직에 있으면서 몇몇 학생들과 가서 현장 보여주고 그랬어요. 장양리 진밭골이라고 하는데, 북원여중에 근무할 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샘처럼 나오는 데에 휴지를 해서 세우면 거기서 불이 났으니까요. 심각한 거죠.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기름 탱크가 그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심했죠, 그때.

(기름유출 관련 사진)

Q. 최근에 캠프 룡이 다시 개방됐는데, 들어가 보시니 기분이 어떠셨나요?

환경이 유지된 게 참 좋더라고요. 보통 군 시설 같은 데 가면 막사 자리나 도로 이런 걸로 구획되고, 당장 같은 미군부대라도 캠프페이지 같은 데는 이렇지 않잖아요. 대학 다닐 때 미군들하고 운동시합하려고 캠프페이지에 많이 다녔는데, 여기하고 달라요. 캠프룡은 자연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군부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했을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농사짓고 다닐 때가 60년대인데, 참 신기할 정도로 그때 산이나 나무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보통 개발하려면 다 까부수고 밀어버리고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러는데, 그런 걸 최소화 시켜서 못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처럼 개발하면 도로 마찬가지죠.

Q. 캠프 룡이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개발 위주잖아요, 모든 게. 그런 걸 지양해서, 기본적인 지형이나 자연이 유지가 되고,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간헐 출렁다리처럼 붐이 일어나서 ‘와~’ 하고 다녀가는 이런 거 말고, 은근히라도 계속 사람 마음속에 남아서 가끔씩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그마한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생겨서, 힐링이 필요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과 과학관이 온다고 하는데, 조그만 소극장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 생태공원이나, 구석에 조그만 버스킹 장소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것 말고, 조용하게 유지될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발소와 함께, 주한미군과 함께 한 45년

_ 정휘탁(77) 님



Q. 고향이 원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의 향교가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 안동시에서도 태장2동처럼 시내에서 좀 벗어나 있었는데, 그때는 면이었어요. 집이 좋아서 6·25 때는 인민군들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는데 제 이불이나 필요한 거는 제가 짊어지고 강아지도 데리고 갔어요. 안동에서 밀양이나 청도로 간다고 길을 나섰는데 우리 피난 가는 앞에 인민군이 벌써 다 와 있더라고요. 산길로 가면서 길에 버려진 쌀밥도 주워 먹고 그랬지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인민군들이 어딜 가시냐고 물어요. 피난 간다고 그랬더니 피난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되니까 지금 바로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갔는데 인민군들이 벌써 다 와 있는 겁니다. 집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었죠. 집에 오니까 인민군들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인이 오니까 썩 비워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기도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는 한국군이 들어오고요. 인민군한테 동조했던 사람들 잡혀가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인민군이 들어오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말입니다.

Q. 원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리 집안이 잘살았는데 큰 집 큰 형님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거기가 우리 집성촌이었는데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지니까 집안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전부 흩어졌어요. 지금도 고향에는 몇 집밖에 없죠. 우리 종손도 대구로 가서 살고 있고요. 우리는 외가 쪽으로 관련 있는 분이 원주에 살고 계셔서 오게 되었죠.

Q. 반도이용원을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벌써 45년이나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이발소를 운영한 것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하던 해거든요. 그때가 1972년까지요. 그 해부터 했을 거예요. 서울에 갔다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했으니까요. 원래는 시내 신한은행 옆 상운당 안경원 자리에서 이발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시작해 주인까지 하다 나왔어요. 그때 이발 기술도 배웠지요. 그 이발소에서 16년 있었죠. 주인으로는 한 7, 8년 있었어요.

여기 이발소에서는 돈을 못 벌겠다 싶어서 서울로 돈벌이하러 올라갔었어요. 그때 남북공동성명 발표하는 걸 어디서 들었냐 하면 자동차 빌리러 간 주차장에서 들어요. 그 이튿날 이사를 왔고 몇 달 있다 이발소를 하기 시작했지요.

서울로 올라간 건 이발소도 좀 했고 이발을 안 하려고 갔어요. 서울에 4~5년 있으면서 영등포 당산동 영등포 공고 안 건물 빌려 도금공장을 했었어요.



Q. 그렇게 태장2동과 인연이 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해서 잘 알죠. 그때는 미군들도 이발하러 많이 왔어요. 백인, 흑인 가리지 않고 왔어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요. 그중에는 단골도 꽤 있었죠. 이름은 모르는데 친하게 지내서 이발도 하고 놀다 가기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잔치집 같은 곳을 데리고 간 적도 있고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그런 곳도 함께 가고 그랬어요.

Q. 미군들이 따로 다니는 곳이 있었나요?

자기들이 다니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술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이곳에 온 미군들은 클럽은 갔던 것 같아요. 앞쪽에 있던 클럽에는 흰 사람들이 다니고, 뒤쪽 클럽에는 검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랬어요. 아마도 백인들은 럭키클럽을 다니고, 파라다이스는 흑인들이 다녔던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골목 쪽에 있는 세차장 자리였어요. 럭키클럽은 복원서점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곳에 있으니까 클럽에 종종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Q. 한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나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받았어요. 저야 이웃이니까 안면으로 가본 거지요. 같은 동네고 잘 알고 하는 사이니까 들어간 거죠. 거기다 미군들이 같이 가자고 그러면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한 번씩 간 정도였어요. 그런데 클럽에 종업원은 있었지만 접대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미군들이 양색시들과 함께 가지 아가씨를 따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양색시들이 여기 주위에 많이 살았으니까요.

Q. 양색시들이 많았었나요? 인연이 있는 양색시도 혹시 있으신지요.

양색시들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요. 친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양색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략 100여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명 안쪽이었을 거예요. 50~60명은 넘었을 거고요. 주로 지금 대로변과 건너편 가현동쪽에도 있었어요. 이 주위에는 거의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발소 주위에 제일 많았고요. 장양리쪽에도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양색시들은 미국 문화를 좀 알아서 그랬는지 웃도 아하게 입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야한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양색시들은 일반 여성들이랑 화장하는 것도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화장품 자체가 틀렸겠죠. 어쨌든 먹는 것부터 화장품까지 씹씹이가 풍족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네 사는 것이 좀 힘들었으니까요. 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고기 종류고 먹을 것이 여러 가지였어요. 과자도 국내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미군 물건은 다 좋았어요. 그때는 태장2동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흔했어요.

Q. 미군들과의 다툼이나 사건 · 사고는 없으셨나요?

미군들과 다툼은 거의 없었어요. 거리가 굉장히 활발했지요. 양색시들도 많이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저녁때는 특히 활발했어요.

Q. 미군 물건을 많이 접하셨겠어요?

미군들이 단골이라고 이발소에 특별히 가져오는 건 없었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건 있었지요. 우리는 장사는 안했지만 미군 물건 취급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태장2동에도 여러 집이 있었지요. 시장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각자 집에서 장사를 한 거죠. 형식적으로라도 단속을 했기 때문에 몰래 장사를 했어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건은 미군들이 PX에서 구입해 자기하고 같이 사는 양색시를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갖다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군들이 직접 양색시 집에서 팔기도 하고 자기 색시를 시켜서 내다 파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는 미군 물건이 흔했어요. TV는 거의 없을 때니까 잘 모르겠는데 라디오나 전자제품이 부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건 커피와 담배, 술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미군 제품을 구하러 일부러 오기도 했을 때였어요. 그걸 파는데 단속을 하니까 밖에 내놓고는 못 하고 숨어서 장사를 한 거지요. 그때 외지에서 물건 가지러 많이 왔었죠.

Q. 선생님도 캠프롱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캠프롱은 여러 번 들어가 봤죠. 미국독립기념일 같은 행사 때도 들어가고 미군들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적도 있어요. 미군들이 데리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면 주로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빵도 먹고 그랬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피자를 먹어봤지요. 통닭도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술 파는 곳에 많이 갔어요. 친한 미군들과는 아주 가깝게 잘 지냈죠. 아무래도 여기서 영업을 하니까 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오래 살았고 미군 부대 다니는 한국인 종업원도 다 잘 알고 그래서 미군 부대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갔죠.

Q. 캠프 롱이 원주시나 태장2동에 많은 걸 기여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거기 다니는 한국인 종업원도 많았고 봉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으니 원주시나 태장동이 그 사람들 덕 많이 봤다고 생각하죠.

Q. 캠프 롱이 떠나서 서운한 점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지요. 캠프롱이 떠난 지 얼마 되나요? 이제 10년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니까 서운하죠. 캠프롱이 떠나면서 태장2동의 경기가 영향을 받았죠. 미군도 가고, 한국인 종업원들도 평택으로 따라 갔잖아요. 그 바람에 여기 인구도 줄었다고 봐야지요.

Q. 캠프 룡에서 처음 접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미국독립기념일 전날 하는 불꽃놀이는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 불꽃놀이 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많이 틀려요. 훨씬 보기가 좋아요.

Q. 캠프 룡 기름유출 때문에 태장2동이 시끄러웠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걸 보상해 달라고 해야죠. 그런 뜻에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캠프 룡 뒤쪽에서 기름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죠.

Q. 캠프 룡이 태장2동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미군들이 여기 있으면서 미군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의 보수가 좋았어요. 종업원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피해 봤다는 생각은 안 들죠. 우리가 덕을 봤으니까요. 태장2동이 통닭으로 유명해진 것도 미군 부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가 미국 식당에 다녔는데 그 친구가 식당에서 그걸 배워 가지고 나와 처음 시작한 것이 통닭집이에요. 지금은 춘천에서 시인으로 활동한다는 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친구 고향이 원래 전라도인데 여주에 와서 좀 있다가 미군 부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경위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낸 통닭집 자리에 보신탕집이 들어왔지요. 복원상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쌍동통닭은 이 친구 통닭집에서 배워 차린 걸로 알아요. 쌍동통닭은 자리도 좋고 오랫동안 통닭집을 해서 유명하잖아요. 태장동에 통닭집이 많아서 군인들 말고도 외지에서도 회식하러 많이 오고 그랬어요. 유명한 탤런트도 오고 그럴 정도였죠.

Q. 미군들이 팀스프리트 훈련 끝나면 고아원에 남은 물품도 가져다주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팀스프리트 훈련 끝나면 남은 물품은 고아원에 지원해 주고 그랬어요. 대덕에 있는 심향영육아원에 가져다 주고 그랬지요.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Q. 태장2동 주민들은 캠프 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 주민들은 미군 부대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걸로 생각하지요.



Q. 장양리에도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캠프롱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캠프롱에 들어가서 놀지는 못했어요. 미군이 데리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만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죠. 울타리가 있는 곳도 가기 힘들었어요. 경비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산꼭대기 높은 곳에 맥주 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곳이 밖에서 보일 정도로 노출돼 있었어요. 병이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미군들이 먹고 버린 맥주병을 주우러 많이 갔어요. 작대기에 낫을 매달아 병을 낚는 거예요. 낮에 병이 걸리면 그걸 팔고 그랬어요. 크게 돈 되는 건 아닌데 장난삼아 어린 마음에 그러고 놀았어요.

Q. 태장2동에 이발소는 많았나요?

많이 있었죠. 건너편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 집에도 일하는 사람이 항상 6명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혼자 해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이 미장원에 가서 이발하면서 이발소가 많이 망가졌죠. 이발소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거기에 퇴폐이발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3~40년 전 미군들과 양색시들이 다닐 때는 태장2동의 경기가 정말 좋았죠. 우리 이발소도 잘 되었어요. 여섯 명이 있었는데 손님이 많아 밥 먹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잘 됐었어요. 원주가 예전에는 정말 살기 좋았어요. 술집도 많았어요. 청룡마을 골목이 예전에는 다 술집이었어요. 색시집이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술 팔고 색시 다 있고 그랬거든요. 시내 사는 사람들이 술 마시러 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양색시하고는 무관한 그런 술집이었죠. 지금은 하나도 안 남아 있죠.

Q. 선생님이 기억하는 태장2동의 미군 문화는 어땠나요? 다른 미군 기지처럼 성매매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캠프롱 인근에서 문란한 행위는 거의 없었어요. 사건 · 사고도 없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면서 미군들 때문에 손해 본 것도 없기 때문에 미군들한테 큰 반감은 없었어요. 시민단체 등이 미군 물러나라고 했을 때도 참가를 안 해봤지만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Q. 태장2동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1군 사령부가 있었고 캠프롱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봐요. 사령부가 있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덕을 많이 봤죠.

Q. 캠프 롱이 떠나서 서운하셨죠?

진짜 서운하죠. 사람들도 다 평택으로 따라가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아쉽기만 하죠. 캠프롱에서 종업원으로 계신 분들도 태장2동에 많이 살았거든요. 태장 사는 사람들은 캠프롱이나 사령부 덕을 많이 봤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도 되고 그랬었죠. 군사령부에서 높은 분들이 이발하러도 많이 왔어요. 사령관은 우리가 가서 직접 이발을 해드렸죠. 부대 안에 이발소가 생기기 전에는 숙소에서 주로 이발을 해드렸어요.

Q. 캠프 롱이 어떻게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태장동민에게나 원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면 좋겠어요. 원주시민과 태장동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캠프 룡 볼링장 지배인으로 32년

_ 한우택(90) 님



Q. 어느 지역 출신이신가요?

원래 고향은 춘천입니다. 춘천농고를 나와서 처음엔 공무원 일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시절인데, 그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주축이 마련됐을 때예요. 조례를 만들려면 지금 식으로는 시의원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 공무원 시험을 봐서 4급을 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7급이죠. 먼 서기 계장급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탈 월급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나온 밀가루 포대를 나눠주고, 현금은 담뱃값 정도밖에 안 댔습니다. 선친께서 농사를 하셔서 먹고 살 걱정은 없

었지만, 자식 낳으면 공부 시키고 해야 하니 돈벌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다녀온 후 복직을 안 하고, 시험을 다시 봐서 서울 용산에 있는 미8군에 들어갔습니다. 미군부대가 최고였거든요.

Q. 당시에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많았나요?

정식 종업원이 있고, 일용직이 있고, 또 하청으로 들어오는 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시험 본 사람은 정식 미8군 군수업이죠. 처음 들어갔을 때 보니까 대위, 소령, 대령 예편한 한국군들이 미군부대로 많이 들어오더군요. 미군부대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안정적이었죠.

Q. 어떻게 캠프 룡으로 오게 되신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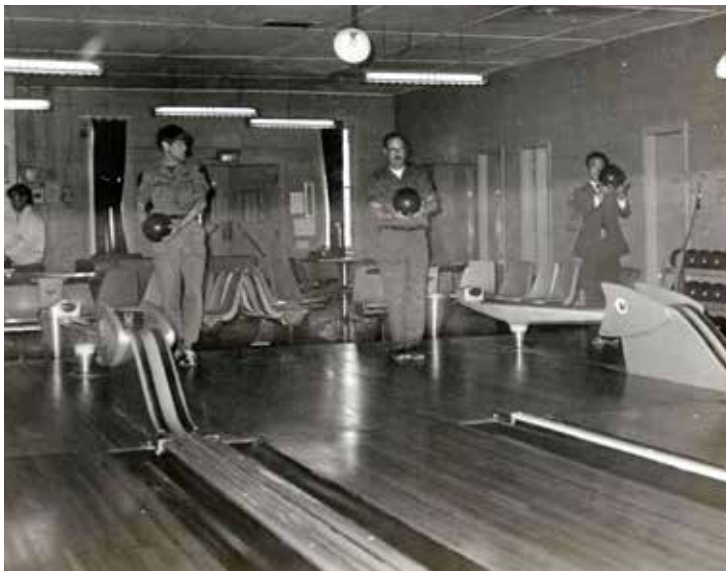
미군부대에 들어가 보니, 통역이나 이런 좋은 자리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내가 영어 실력이 있나요? 그냥 막일을 했죠. 공무원에 있을 걸,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극을 받아야 해요. 밤에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통역관으로 있던 서울대학교 교수 양반을 찾아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퇴근 길에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행정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4급부터 출발을 했죠. 우리나라 급수는 숫자가 내려갈수록 높은 급수인데, 미국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높은 급수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1970년 3월 1일부로 캠프 룡에 전근을 왔습니다.

Q. 캠프 룡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셨지요?

32년 근무하고 1992년 8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Q. 캠프 룡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캠프 룡에 와서는 볼링장 지배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볼링장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죠. 볼링장은 미군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볼링장, 클럽, 레크레이션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복지시설이에요. 이런 곳의 책임자 급은 행정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이라야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6급이었습니다.

볼링장은 4개 레인 규모였어요. 부지배인이 한 명 있었고, 자동화 되기 전이니까 핀보이가 여섯 명 있었죠. 볼링장에서는 미군들이 팀을 짜서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지배인으로 근무했지만, 토너먼트를 하면 팀장은 미군이었어요. 볼링 경기를 하면 핸디캡이 있었어요. 점수 부족한 사람, 실력 부족한 사람 다 동등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단 말이지.

Q. 미군들을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인종차별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인종차별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중국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라 그런 차별이 없어요. 전쟁도 정당하게 임하지, 다른 나라 침범하기 위해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Q. 캠프 롱 노동조합장을 하셨다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생겨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노총이 생겼어요. 그 전에 미8군에는 노총이 생겨있었고요. 선진국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니까. 캠프롱이나 미8군이나 노동직 단위가 있고 행정직 단위가 있어요. 이제 직위를 월로 받느냐, 파블*로 받으면 노동자, GS로 받으면 행정직이에요. GS는 Government Service, 나라를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행정직과 노동직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래요. 나는 볼링장 지배인을 하면서 노동조합장도 겸했어요. 캠프롱 노조지부장이었죠. 다른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내가 인계받아서 했으니까, 한 10년 가까이는 했을 것 같아요.

캠프롱에 출퇴근하는 한국인 종업원은 한 300명 될 거예요. 공병부가 있고, 미8군 직속이 있고 그렇거든요. 또 청부업으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될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해서 따서 들어오는 개인 업체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많았어요. 노동조합에는 정식 직원만 속해 있었고요.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네요. 노동조합장이니까, 종업원들의 문제나 애로점이 있을 때 바로 사령관에게 가서 얘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Q. 미군들하고 교류가 많으셨겠어요.

미군 고위급이라고 하면 부대장, 정보과장, 주로 이런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정치성, 그러니까 직업 정치를 했던 거죠. 부대 사령관하고도 외식을 자주 나갔어요. 코드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한인 종업원들한테 도움을 주니까요. 그런 양반을 모시고 가려면 좀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집을 가야죠. 시내에 나가면 주로 ‘불개미식당’이나 ‘연강춘’, ‘동춘옥’ 이런 곳에 갔어요. ‘불개미식당’은 한식을 하는 곳인데, 딱 들어가면 나이가 든 여자들이 인사를 하고 미군이 들어오면 서넛이 따라 들어와서 큰절을 해요. 옛날 기생집 같이. 우리 젊었을 적엔 남자로서는 그런 것도 아주 멋진 대우를 받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태장동에는 자주 나갈 일이 없었어요. 클럽은 미군들만 다녔고요. 럭키 클럽, 파라다이스 클럽이 있었는데 럭키는 백인, 파라다이스는 흑인만 갔어요. 럭키는 복원서점 부친, 우체국장 하던 양반이 하던 곳이고, 파라다이스는 허응구 씨라고 시의원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죠.

Q. 노동조합장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평생 직장에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다세대 주택 두 동을 지은 거예요. 그때 데리고 있었던 총무에게 시켜서 종업원 중에 제 집 있는 사람, 세들어있는 사람, 세들어있으면 전세냐 사글세냐, 식구는 몇 식구인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자기 집 있는 사람이 한 삼분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조합장으로서 할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마침 땅 가진 종업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성화* 씨라고, 그분한테 계약금을 줄 테니 건물 올라갈 때쯤 중도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땅을 팔라고 했죠.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까, 당신도 조합원이지 않으나, 없는 조합원을 우리가 도우면서 사는 게 단체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냐 했죠. 좋다, 해주겠다 해서 계약금을 치르고 정부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5부 이자 혜택을 다 알아봐서 몇 명이 단체로 대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도금 치를 때가 됐는데 돈 나오는 시기가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판 친구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소주 한 께짝을 사 가지고 찾아가 싹싹 빌었죠.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사기 안 친다고요. 그렇게 중도금을 치르고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켜줬어요.

한 가지 놀란 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좋은 복을 줘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불입금이 얼마나 된다고 연신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금세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세대주택은 오늘날까지 있는데, 그때 조합원으로서 있는 사람은 지금 딱 한 명 있어요. 저기 학교 옆, 대일주택입니다. 그때 원주경찰서에서다가 부탁을 해서 원주 건축업자 중에 제일 신용등급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사람을 뽑아서 지었거든요. 2년 뒤, 1988년에는 그 건축가에게 부탁해서 지금 사는 이 집을 지은 거고요.

Q. 집을 짓기 전에는 어디에 거주하셨나요?

6·25 후로 주택 붐이 일어났어요. 춘천에 있는 부동산은 안 건드리고, 서울에다 집 한 채를 주택 새로 나온 것을 샀어요. 그때는 미국 사람한테 많이 인정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대장이 캠프 이글 부대장한테 부탁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줬어요. 횡성 지금 비행장 있는 곳에 미국 공군부대가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면 새로운 영화 필름을 인수하러 여의도 비행장에 내려서 8군에 들어가 필름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가는 비행기가 에이나인틴(A-19)인데, 절 좀 도와줘라 해서, 전 집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다녔죠. 어디 가든지, 직장인이면 자기 상사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게 최우선이에요.

혼자 원주 내려와 있다가 주말이면 올라가는 주말부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의심 받을 때가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 밤에 책을 많이 봤는데, 하루는 침대 옆 창문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사람이 와 가지고 문구멍을 뚫고 보고 있는 거죠. 누구야, 하니깐 가만히 있어요. 빨리 들어오지 뭐하러 그러고 있냐고 했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허락도 없이 집을 팔고 내려온 거예요. 왜 그랬냐고 하니깐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랬대요. 난감하잖아요. 난 미8군으로 되올라가지 않으면 고향 춘천으로 가야 되는데, 논, 밭, 집 다 춘천에 있는데. 원주땅에 뿌리내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을 딱 팔고 내려온 거죠. 그때는 원주에 부동산 붐도 안 일어날 때였어요. 제일은행에 돈을 넣고 있었는데, 얼마 있으니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 돈으로 집 짓기에는 모자라서, 억지로 돈을 조금 보태서 새로 불란서형 주택을 마련했죠.

Q. 많은 일을 하셨는데, 미군들과 갈등은 없었나요?

부대장이랑 싸운 일도 있어요. 노동조합 총무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한국군 대위 수송관 출신이었어요. 영어를 안 배우고 들어왔으니 막일, 심부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데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알았으니 더 잘해야 한다고, 영어공부를 하라고 했죠. 그러다 캠프룸에 수송관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부대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대화를 해보겠다, 말하자면 면접을 보겠다는 거죠. 어땠냐고 하니 시원찮대요. 영어도 못하고. 부대장은 영어 잘하는 대학생들 많으니 픽업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당시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북에서 지하조직으로 빨갱이 물을 들어서 문제였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교수들도 빨갱이가 드문드문 있었고요. 영어 잘하는 대학생 들어왔는데 ‘양키 고 홈!’ 하면 어떡할 거냐고 했죠. 그래도 부대장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서를 석 장을 썼어요. 내 실력으로 번역을 못하니까 번역을 부탁하고, 영문 본문은 미8군 사령관, 대구 19지원사령관,

미8군 관찰부로 날려버렸어요. 내가 노동조합장으로 이만큼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 하나로 허물어진다는 건 너무하다고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에서 가장 심각성을 드러내는 게 대한민국인데, 요즘 대학생들 반미사상이 많다, 나는 오직 그걸 두려워할 뿐이다, 이 사람은 엄연히 한국군 수송관이니 영어만 깨우쳐주면 된다, 그건 내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한 달이 지나니까 답장이 왔어요. 내가 맞다는 거죠. 부대장한테 전화가 와서 오피스에 가니까, 당신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단한 게, 맨 꼭대기 높은 데서 내 손 들어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처음 불링장 지배인으로 갔을 때, 먼저 있던 지배인이 미군 기에 죽어서 업무를 감당 못하고 갔던 거예요. 부지배인 월급을 줘야 하니까, 한국 사람을 정식 종업원으로 앉히는 것보다 미군 애들이 시간 있을 때 도와주는 식으로 쓰게 돼 있었어요. 지배인이 유사시에는 미군 애가 대행 근무를 했는데, 헌병 중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딱 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불링 재료나 시설은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지만, 불링을 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나 맥주를 판매하게 돼있거든요. 담배나 간단한 샌드위치가 있고요. 그런 걸 갖춰놓고 금고도 있었는데, 보니까 전부 비는 거예요. 한국 지배인이 약해가지고 제 구실을 못하니까 미군들이 맘대로 한 거죠. 양담배도 비고, 맥주도 비고, 음료수도 비고, 현찰도 비고, 아이템별로 다 적어놓고 부지배인을 불렀어요. 맞냐고 물어보니 맞대요. 서명하라고 했죠. 한 달이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8군에서 암행 감사가 왔어요. 이상 없냐고 하기에 이상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냐고 해서 서류를 보여줬고요. 물품은 PX가 문을 닫았을 때 헌병대에서 피크닉을 가야 해서 가져간 거다, 돈도 매주 입금하는 건데 입금 은행 출장 근무가 공백이 생겨서 입금을 못한 거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배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대에 가서, 이렇게 막아놔오니 답변을 입 맞추고 똑바로 하라고 했죠. 부지배인이 와서 답변을 하는데, 책상 밑에서 다리를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수사관들이 눈치 빠르고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히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헌병을 살려주려고 그러는구나. 끝나니까 등을 툭툭 두드리며 “You do good job.”, “I know what you doing.” 이라고 하더군요.

Q. 그밖에 근무하시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88올림픽 때에 성화 봉송을 했어요. 장양리 고개를 넘어서 당시 조성운 원주시장한테 딱 줬죠. 그때 원주에 대한통신문사, 한전, 한일전기, 기독교병원, 이런 큼직한 데에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장들이 다 있잖아요. 누가 봉송을 받을 건지 조합 단위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나는 바빠서 못 나가고 총무를 시켜 뽑았는데 당선이 된 거죠. 이왕 할 거면 멋지게 한다, 하고 사령관에게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좋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 여군 한 줄, 미 남군 한 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종업원 여자 한 줄, 남자 한 줄, 너 줄을 맞춰서 교육을 시켰어요. 성화봉송을 받아서 행렬이 나가는데, 정말 멋있게 했어요.

Q. 태장동에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양공주’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있죠. 불미스러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뜻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 군대 운영은 장교가 아니라 상사단에서 해요. 상사단의 운영권이 막강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상사단 회의가 있어요. 부사관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병사 애로가 뭐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게 뭐고, 이런 걸 회의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기록되어 백악관에 들어가구요. 물론 8군을 거쳐서 올라가죠. 이런 건 시정해야 돼, 이러면 시정이 되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미군 애들이 잘못을 시정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식당에 식수 인원이 총 100명인데, 가만 보니까 100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70명도 오고, 80명도 오는 거죠. 100명 올 때가 흔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상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장만을 줄이고 병사들에게 식대를 더 줘서 사먹게 만들어라, 그럼 나라 국비가 훼손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군대도 이렇게 민주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군 식자재 뉴스 봐요. 애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색시 만나러 안 나가고 남자의 지조를 지키는 병사들도 많았어요. 거기 주임상사 한국전쟁 때 특무상사로 불렸던 계급이 1960년대 주임상사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원사 계급.

특무상사, 써전(sergeant)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스, 장미꽃이에요, 남자 이름이.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완전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땀 뻘뻘 흘리도록 뛰어요. 내가 하루는 물었어요. 왜 그런 고난으로 운동을 하시오, 볼링, 체육관, 운동기구 얼마나 복지시설이 잘 돼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정력이 살면 창녀촌에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정력을 죽이기 위해 피땀 흘려서 똥다는 거죠. 그런 남자의 정조를 가진 놈 봤어요? 없어요.

Q. 미군부대 가까이 있으니, 미국을 선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실례로 내가 볼링장에서 볼링 프로급으로 키운 처녀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신변상 누군지 애긴 안 하겠지만, 모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 딸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적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접근해서 볼링장을 다닌 거

죠. 원주에 볼링이 아예 없을 때니까, 나는 5명 에스코트할 수 있는 권한증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왔죠. 내가 코치를 하는데, 요놈은 키우면 잘할 놈이더라고요. 보니까 영특해요. 그래서 키웠더니 미군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미군이 보니까 애가 똑똑하니까.

Q.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을 억제하기도 하겠지만, 점령군이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전쟁 억제? 점령군?) 미군들의 좀 더 범위가 크고, 의미가 깊은 거 같은 질문인데.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죠. 각국 지도자에 따라서 넓은 평가를 받는 게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지금은 참 올바른 뉴스를 접하는 게 기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서 앉아서도 다 아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내가 볼 적에는 미국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는. 어떤 조건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냐면 한미동맹은 다 알잖아. 동맹을 끊지 않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Q. 캠프 룡이 태장동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당시 원주시 전체에서 볼 적에 현금이 많이 풀리는 데가 여기였어요. 원주 시민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만큼 발전이 됐죠.

Q. 캠프 롱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큰 반발도 있었잖아요.

나도 놀랐어요. 정년퇴직을 한 뒤로 한 3년은 열 관리 회사에 소장자로 있었는데, 미군부대 숙소, 사무실, 각 건물마다 기름 탱크가 있잖아요. 또 탱크로리 차가 가서 기름을 받아와 건물마다 기름을 채워주고요. 기름탱크가 둥그렇게 돼있고 발이 달렸는데, 뚜껑을 열고 호스를 집어넣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때다 보면 줄잡아요. 겨울이 와서 날이 추우면 안에 이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처음 생길 적에는 몇 방울 생겨서 속에 매달려 있다가, 시간이 되면 떨어질 거 아녜요. 그게 기름 위에 떨어져요. 그런데 물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고이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관리공들이 가서 물을 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이라고 뺀다고 물만 빠지겠어요? 그게 기름이 유출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고였겠어요. 원인은 그거예요. 미군 애들이 무슨 심통이 사나워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기름값이 얼마데.

Q. 캠프 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하세요?

우리가 참 고민해야되는 문제죠. 좋은 뜻을 세우려면 한두 사람의 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는 데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캠프롱 부지에 대학교 캠퍼스 같은 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원주시민 전체가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서 문화, 예를 들어 회촌의 토지문화관 같은 것처럼 시민들이 자주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Q. 에피소드1

미군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캠프 롱 내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미군 부모님이 멀리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부모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신랑 부모 자리에 꽤 여러 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쉽게도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가지는 못했죠.





08

미군기지
캠프 룡의 건축

캠프 롱 군사시설 및 건축물 현황과 문화적 가치

캠프 롱 기지에는 현재 총 159동의 건물이 남아있고 이 중 오염도가 높은 116동이 철거 예정이며 존치할 건물은 총 43동으로 오염도가 높은 수준이나 문화재청으로부터 건축물의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개별적인 보존여부와 존치 방법을 논의 중이다.



용도별 동수 및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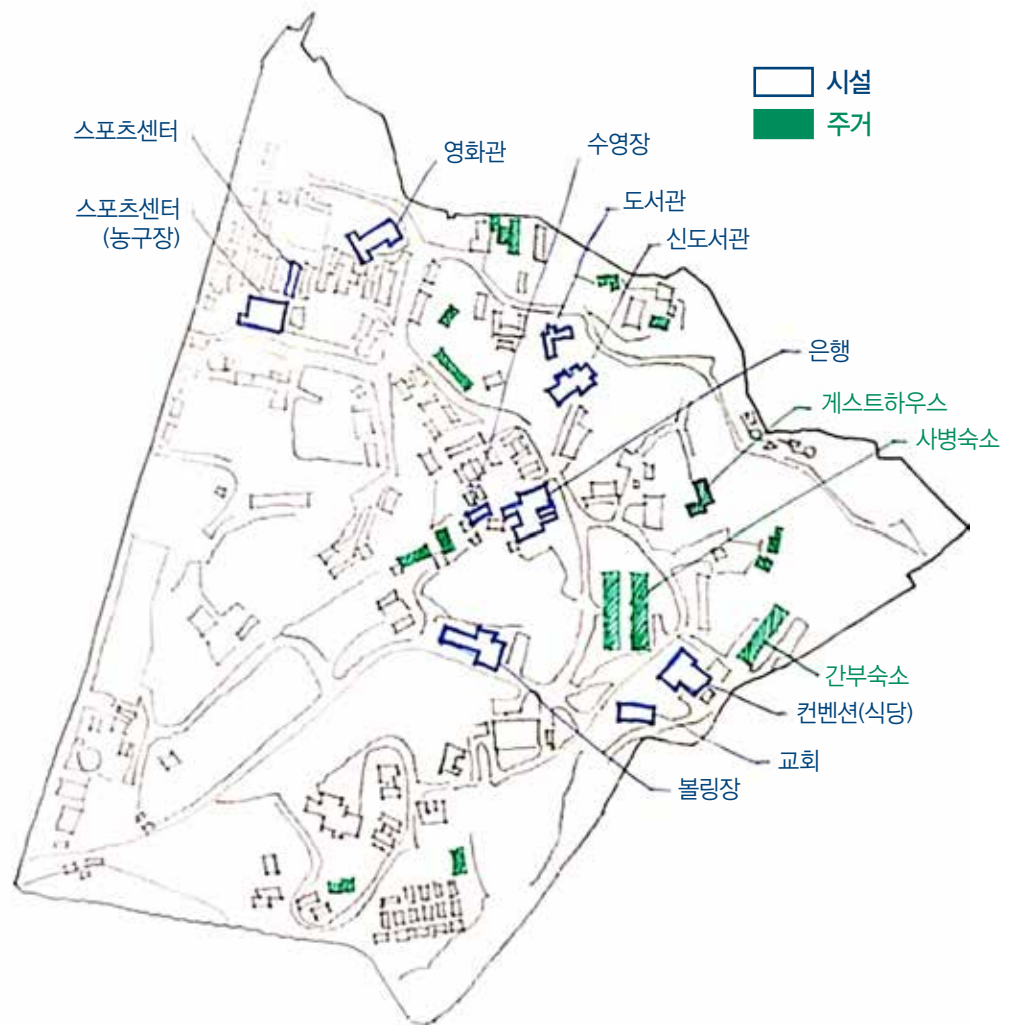
기능별로는 사무동이 총 29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 숙소동이 16동, 창고 및 기타 기능의 건물이 각각 12동, 13동이 있다. 장병들을 위한 수영장 등 스포츠 관련 시설과 영화관, 도서관, 강의실 등의 문화시설 관련 시설은 모두 6동, 오락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들이 3~4개 동씩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도	동수	비고
일반 사무동	29	
숙소동	16	
기타	13	
창고	12	
문화체육시설(영화관, 도서관, 수영장, 농구장, 볼링장, 스포츠센터)	6	
편의시설(오락실, 휴게실 등)	3~4	
사무실	3	
차량정비소	3	
주유소	3	
게스트 하우스, 교회, 은행 등	각 1	

군부대 시설이므로 사무실, 초소, 차량정비소, 주유소 및 연료저장소가 3개동씩 남아있고 그 외 특별한 시설인 게스트 하우스, 교회, 은행 등 사실상 캠프 룡 부대 내부에 소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부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캠프 룡 기지도 미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유기체와도 같은 길과 시설들이 자리 잡아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적인 측면 외에도 캠프 룡 기지 안에서 마을과도 같이 크고 작은 주거 건축물이 이합집산을 하며 길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을 비롯한 은행, 교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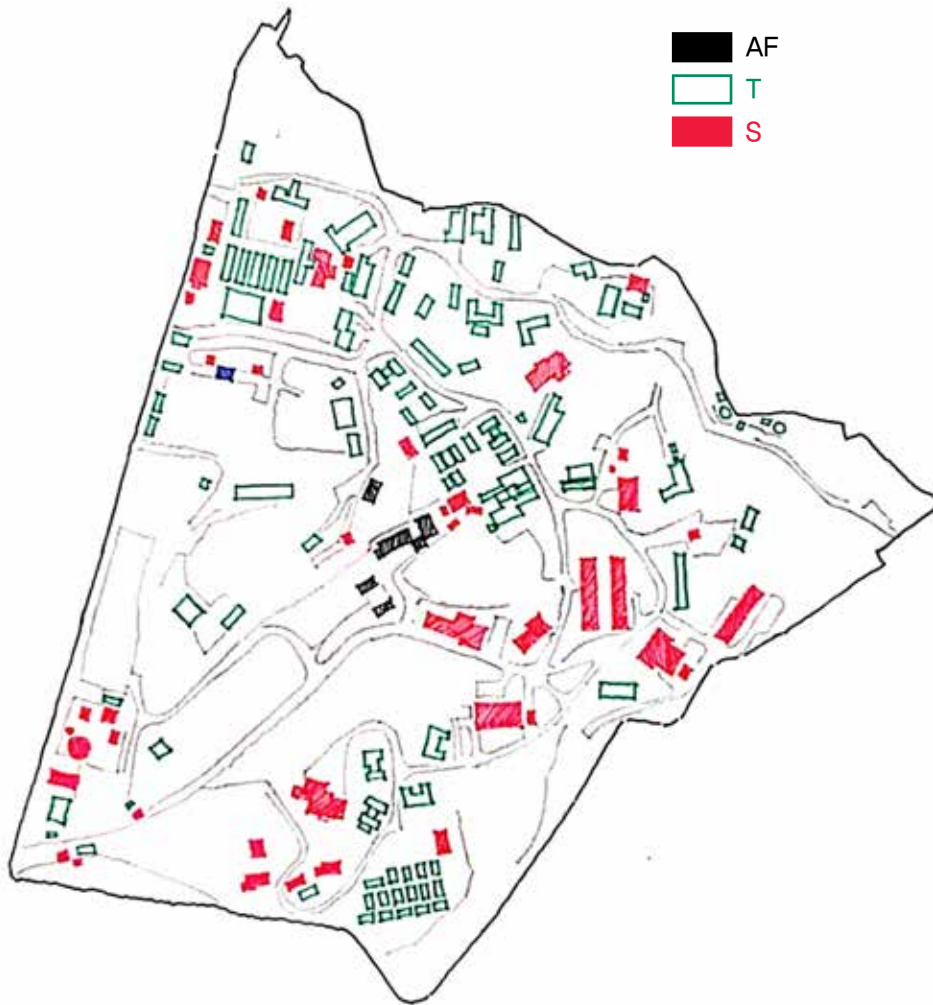


문화체육시설과 주거동의 분포

건물번호 카테고리: S, T, AF

캠프롱 기지 내 건축물 총괄표에 모든 건물들은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S000, T000, AF000 그리고 아무런 알파벳 기호 없이 번호만 부여되어 있는 단 하나의 주유소가 그것이다.

건물 앞에 붙은 S로 시작되는 알파벳은 semi-permanent(반영구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T는 temporary(임시적인)라는 뜻으로 판단된다. AF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해 봄으로써 분류적인 의미를 유추하고자 하였다.



건물번호 카테고리별 분포

그림에 보이듯 AF번호(검은색)가 매겨진 건물들은 모두 부대의 중간에 위치하고 이 건물들의 주용도가 숙소와 창고인 것으로 보아 캠프롱 기지가 세워질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T번호(초록색)으로 시작되는 건물들이 87동으로 제일 많고, S번호(붉은색)로 시작되는 건물들이 총 50동이 있다. 용도는 S, T에 특별한 구분이 없다. 단지 S번호 건물들이 숙소, 컨벤션, 수영장, 볼링장 등 규모가 다소 큰 경우로 semi-permanent라는 용어의 해석에서 표현되는 반영구적 건축물로 눈에 띈다. T번호 건물들도 영화관, 농구장 등이 있으나 대부분 아동보호소나 작은 창고 등 소규모 건물들로 Temporary라는 뜻의 임시적인 건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

많은 건물이 목조로 되어있고 벽체마감은 슬레이트로 처리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내부 공간 규모가 크거나 스포츠 시설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골구조가 적용되어 있고 사병숙소와 간부숙소 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휴게실, 오락실 등의 경우 블록 조적조가 눈에 띈다.



목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블록 조적조

형태적 특징

건물의 외관은 크게 박공지붕과 반원통 구조를 띄고 있는데 박공 지붕형태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반면 반원통 구조는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은 형식으로 군부대 시설물로서 독특한 유형이다. 반원통 원셋 구조는 사실상 지붕과 벽체가 하나로 이어져 덮이는 방식으로 시공성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도 절감되었을 것이다.



박공지붕



반원통 구조 원셋 건축

건물의 외관과 내부의 기능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지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아동보호소의 경우에도 박공지붕인 경우와 원통형 궁륭 방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건축문화적 가치

캠프롱 기지에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미군 군사 시설물인 이유로 상세한 연력과 내용을 알 수 없어 조사의 범위와 깊이에 한계가 있다. 이번 기록 작업을 통해서도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오염도에 따른 존치 여부를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은 6.25 전쟁이라는 격변의 현장이 되어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결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원주 캠프롱 기지는 이런 격변의 근대사를 군사 시설이라는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존하여 전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사적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단순히 원형을 복원 유지하는 것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현재 원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화 사업 가운데 존치할 가치가 있는 건물을 선별하고 보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설을 추가함과 동시에 남겨질 건물들을 재생하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후일 캠프롱 기지가 지워버리고만 싶은 과거의 군사도시로서의 역사가 아닌 원주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고 현재에 이르게 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캠프 롱 건축물 존치 목록 (43동)

NO	건물 번호	용도	면적(㎡)	오염도	조사 여부	존치 여부	문화재청조사		과학관 편입	시설 여부	국방부 번호
							조사여부	존치요구			
1	T108	소방건물	27	0%	○	존치	X				8
2	T109	아동보호소	189	0%	○	존치	X				9
3	T111	숙소	125	0%	○	존치	X				10
4	S120	상수탱크	476.91	0%	×	존치	○	○		시	14
5	T125	사무실	159	0%	○	존치	X				17
6	T129	도서관	267	0%	○	존치	X				19
7	T133	숙소	247	0%	○	존치	X				20
8	T137	아동보호소	96	0%	○	존치	X				21
9	T147	교환소	463	0%	○	존치	X				23
10	T149	창고	119	0%	○	존치	X				24
11	T150	기타	203	0%	○	존치	X				25
12	S151	아동보호소	165	0%	○	존치	X				26
13	T155	숙소	134	0%	○	존치	X				27
14	T203	영화관	593	40%	○	존치	○	○			30
15	S206-1	주유소	-	0%	○	존치	○	○		시	
16	S206-2	연료탱크	-	40%	○	존치	○	○		시	
17	S209	고가초소	7	100%	○	존치	○	○		시	36
18	T220	차량정비소	580	70%	○	존치	○	○			44
19	T225	아동보호소	109	0%	○	존치	X				49
20	S226	유류탱크	454.2	20%	×	존치	○	○		시	50
21	S242	정비소	280	0%	○	존치	X				64
22	S310	불링장	877	0%	○	존치	X				78
23	T312	창고	17	0%	○	존치	X				80
24	S338	항공통제소	469	0%	○	존치	X				96
25	406	사병숙소	3,215	0%	○	존치	X				99
26	T421	교회	375	10%	○	존치	○	○			100
27	S500	간부숙소	729	0%	○	존치	X				101
28	T507	게스트하우스	398	60%	○	존치	○	○			106
29	T513	숙소	85	0%	○	존치	X				109
30	S527	컨벤션(식당)	875	0%	○	존치	X				116
31	S528	창고	83	0%	○	존치	X				117
32	S600	의무대	809	0%	○	존치	X				118
33	S601	차고지	43	0%	○	존치	X				119
34	S605	물탱크	64	0%	×	존치	○	○		시	121
35	T623	아동보호소	277	0%	○	존치	X				125
36	T627	위병소	14	0%	○	존치	X				129
37	S629	송신국	802	0%	○	존치	X				131
38	S630	창고	89	0%	○	존치	X				132
39	S631	숙소	205	0%	○	존치	X				133
40	S637	사무실	157	0%	○	존치	X				139
41	S696	하수처리기	284	0%	○	존치	○	○		시	159
42	S697	하수처리기	76	0%	○	존치	○	○		시	160
43	T127-1	창고	71	0%	○	존치	X				198

캠프 롱 건축물 철거 목록 (11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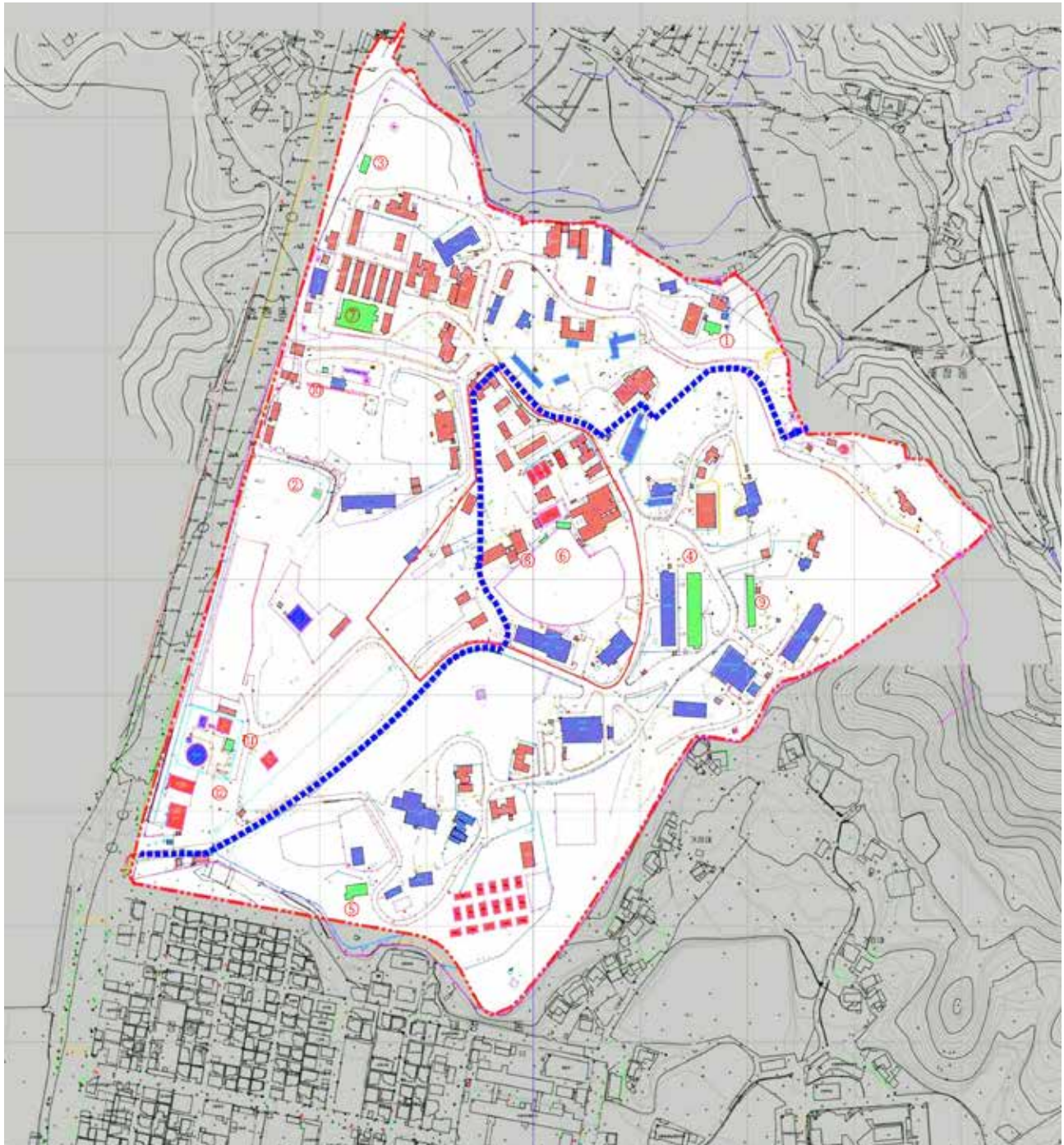
NO	건물 번호	용도	면적(m²)	오염도	조사 여부	존치 여부	문화재청조사		과학관 편입	시설 여부	국방부 번호
							조사 여부	존치 요구			
1	S101	소방건물	181	100%	○	철거	○				1
2	T102	숙소	44	70%	○	철거	○				2
3	T103	소각장	348	10%	○	철거	○				3
4	T104	숙소	130	오염	○	철거	X				4
5	T105	숙소	160	40%	○	철거	○				5
6	T106	고가초소	7	-	○	철거	○			시	6
7	T107	숙소	174	40%	○	철거	○				7
8	T114	기타	97	0%	○	철거	○			시	11
9	T115	소방건물	311	40%	○	철거	○				12
10	S118	펌프실	26.8	0%	X	철거	○			시	-
11	S121	상수탱크	454.2	0%	X	철거	○			시	-
12	T123	아동보호소	110	100%	○	철거	○				16
13	T127	아동보호소	365	40%	○	철거	○				18
14	S140	신도서관	609	40%	○	철거	○				22
15	T143	초소	7	0%	X	철거	○				-
16	T145	소각장	7	0%	X	철거	○				-
17	T202	유해폐기물수집소	105	10%	○	철거	○			시	199
18	T205	농구장	767	40%	○	철거	○	○			32
19	S206	창고(주유소일원)	20	오염	○	철거	X	○			33
20	T207	아동보호소	319	40%	○	철거	○				34
21	T212	기타	97	0%	○	철거	○				38
22	T213	기타	98	0%	○	철거	○				39
23	T213-1	초소	8	0%	○	철거	○				200
24	T214	휴게실	98	40%	○	철거	○				40
25	T215	정비소	405	0%	○	철거	○				41
26	T216	방송실	57	오염	○	철거	X				42
27	T217	정비소	123	0%	○	철거	○				43
28	T221	사무실	523	40%	○	철거	○				45
29	T222	연료저장소	16	100%	○	철거	○			시	46
30	T224	야외작업장	111	0%	X	철거	○			시	-
31	T227	유해폐기물수집소	48	0%	○	철거	○			시	51
32	T228	유해폐기물수집소	52	100%	○	철거	○			시	52
33	T229	아동보호소	302	70%	○	철거	○				53
34	S230	소방건물	302	100%	○	철거	○				54
35	T231	소방건물	191	100%	○	철거	○				55
36	T233	스포츠센터	189	10%	○	철거	○				56
37	S234	사무실	115	100%	○	철거	○				57
38	T235	아동보호소	189	40%	○	철거	○				58
39	T237	기타	189	70%	○	철거	○				59

캠프 롱 건축물 철거 목록 (116동)

NO	건물 번호	용도	면적(m²)	오염도	조사 여부	존치 여부	문화재청조사		과학관 편입	시설 여부	국방부 번호
							조사 여부	존치 요구			
40	S238	기타	122	0%	○	철거	○				60
41	T239	아동보호소	188	100%	○	철거	○				61
42	T240	아동보호소	40	0%	○	철거	○				62
43	T241	소방건물	200	10%	○	철거	○				63
44	S244	기타	18.6	0%	X	철거	○			시	-
45	S246	창고	70	10%	○	철거	○				66
46	S248	정비소	110	10%	○	철거	○				67
47	T250	소방건물	96	오염	○	철거	X				68
48	T251	매점	325	40%	○	철거	○				69
49	T252	초소	5	0%	X	철거	○				-
50	S253	보일러실	31	100%	○	철거	○			시	71
51	T301	아동보호소	89.7	100%	○	철거	○		○		72
52	T302	아동보호소	89.7	100%	○	철거	○		○		73
53	T303	아동보호소	95	40%	○	철거	○		○		74
54	T304	아동보호소	89.7	100%	○	철거	○		○		75
55	T305	아동보호소	96	0%	○	철거	X		○		76
56	T307	아동보호소	95	0%	○	철거	X		○		77
57	T311	기타	190	70%	○	철거	○		○		79
58	T313	아동보호소	84.3	0%	○	철거	X		○		81
59	T315	아동보호소	84.3	0%	○	철거	X		○		82
60	T316	아동보호소	84.3	0%	○	철거	X		○		83
61	T317	아동보호소	96	0%	○	철거	X		○		84
62	T319	우체국	96	0%	○	철거	X		○		85
63	T321	아동보호소	101.7	0%	○	철거	X		○		86
64	T321-1	창고	16	0%	○	철거	○				201
65	T322	아동보호소	101.7	0%	○	철거	X		○		87
66	T323	아동보호소	101.7	0%	○	철거	X		○		88
67	T325	은행	1,077	0%	○	철거	X		○		89
68	T326	오락실	144	0%	○	철거	X		○	시	90
69	T328	철망웬스	-	-	-	철거	○			시	92
70	S330	수영장	195	0%	○	철거	X		○	시	93
71	S331	펌프실	46	0%	○	철거	X		○		94
72	S333	화장실,샤워실	152	70%	○	철거	○		○		95
73	S334	화장실	66	0%	○	철거	○				202
74	T404	버스정류장	7.2	0%	X	철거	○			시	97
75	S405	사병숙소	3,215	오염	○	철거	X				98
76	T501	아동보호소	125	100%	○	철거	○				102
77	S502	창고	64	100%	○	철거	○			시	103
78	S502-1	창고	10	100%	○	철거	○				203

캠프 롱 건축물 철거 목록 (116동)

NO	건물 번호	용도	면적(m²)	오염도	조사 여부	존치 여부	문화재청조사		과학관 편입	시설 여부	국방부 번호
							조사 여부	존치 요구			
79	T503	쓰레기장	12	0%	○	철거	○			시	104
80	T505	창고	9	0%	○	철거	○			시	105
81	T509	숙소	131	40%	○	철거	○				107
82	T511	탄약고	25	100%	○	철거	○			시	108
83	T515	강의실,서고	283	0%	○	철거	X				111
84	S516	소방건물	52	0%	○	철거	○				112
85	T519	소각장	6.5	0%	X	철거	○			시	-
86	S520	창고	153.5	40%	X	철거	○				-
87	S525	기타	486	10%	○	철거	○				115
88	S602	창고	6.1	0%		철거	○				-
89	T607	아동보호소	271	70%	○	철거	○				122
90	T613	아동보호소	268	70%	○	철거	○				123
91	T615	아동보호소	264	100%	○	철거	○				124
92	T625	버스정류장	12	100%	○	철거	○			시	127
93	T628	창고	4.5	0%	X	철거	○				-
94	S632	숙소	225	40%	○	철거	○				134
95	S633	펌프실	34	0%	○	철거	○				135
96	T634	대기실	102	0%	○	철거	○				136
97	S636	기타	207	오염	○	철거	X				138
98	S639	직원휴게실	6	0%	○	철거	○				141
99	S640	기타	285	0%	○	철거	X			시	142
100	692	덕아웃	24.7	0%	X	철거	○			시	-
101	S693	기타	23	0%	○	철거	X		○		156
102	S694	오락실	67	오염	○	철거	X		○		157
103	S695	기계실	76	0%	○	철거	○				158
104	695-1	창고	6	0%	○	철거	○				204
105	S698	연료탱크	27.6	0%	X	철거	○			시	161
106	S699	하수탱크	151	0%	○	철거	○			시	162
107	T700	쓰레기처리기	80	0%	○	철거	○			시	163
108	S701	콘크리트바닥	80	0%	X	철거	○			시	-
109	S707	하수탱크	15	0%	○	철거	○			시	170
110	AF1	숙소	192.7	0%	○	철거	X		○		191
111	AF4	초소	22	0%	X	철거	○				-
112	AF8	숙소	192.7	0%	○	철거	X		○		193
113	AF9	숙소	192.7	0%	○	철거	X		○		194
114	AF-10	창고	119	0%	○	철거	○		○	시	195
115	AF-14	창고	119	0%	○	철거	○		○	시	196
116	AF16	기타	142	0%	○	존치	X		○		197











09

시민행동의 위대한 여정
2001-2020

주한미군은 SOFA 환경조항 이행하고 주민피해 보상하라.

지난 3월 12일 발생한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가 80여일 째를 맞고 있다. 오염치유를 위한 한미 간 공동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오염원은 인근 농지로 확산되었다. 또 다른 유류 저장시설에 의한 오염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공동조사 등 SOFA 환경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02년 SOFA 개정 당시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사고 발생시 및 기지 반환시, 미리 합의된 절차에 의한 사고 통보 및 정보교환, 공동조사 실시 등에 합의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OFA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라고 정부는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08년 환경부는 주한미군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SOFA 환경조항 이행 않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1년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2002년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마련한 것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군은 사고발생 후 10일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공동조사를 통한 원인분석과 오염제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미군은 “환경개선 운동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이 최우선적인 일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보도 자료를 냈다. 오만하고 기만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주권을 침해 하는 주한미군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즉각적인 공동조사와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환경부는 허수아비인가 환경주권 지켜내라.

오염사고 발생 후 공동조사와 치유가 지연되면서 인근 농지가 오염되었고 추가오염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미군기지내 오염 현장은 확인도 못했고, 한미 간 공동조사요구에도 미군 측의 눈치만 보며 침묵하고 있다. SOFA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에 맺어진 국가 간 협정이다. 환경부는 미군 측에게 책임을 묻거나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SOFA 환경조항은 우리국토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오염원인자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동조사와 오염치유,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원주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발생한 전국 7곳의 환경오염 사건 모두에 대해 한미 간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자 SOFA 환경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내와도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피해와 치유비용을 고스란히 원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오만함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원인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해 낼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금이라도 SOFA 환경조항을 이행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하라.

2008년 6월 3일

원주시의회 /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 /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 민주노동원주시협의회 /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 / 성공회원주나눔의집 / 사단법인원주민예총 / 원주녹색연합 / 원주시민연대 / 원주여성민우회 / 원주환경운동연합 / 원주청년회 / 원주한살림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 전국교수노조상지대학교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원주시지부 / 21세기정책연구소 / 원주YMCA /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한미 SOFA 협정이란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와 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 사이의 협정을 말한다. 주둔군지위협정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 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군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 개 국가와 SOFA 협정을 맺고 있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인 것이다. 여기서는 주한 미국군의 재판관할권을 미국군법회의가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2001년 개정된 SOFA에는 환경 조항인 SOFA합의 의사록 3조 2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는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환경관련법령과 기분을 존중하는 저약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사실 양국이 2001년 1월 작성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는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미국 환경법의 개념인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다. 이 조항을 이용해 미군은 대부분의 환경오염이 KISE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ISE기준을 넘어 미군이 오염을 정화했다고 주장했어도 그 사실을 검증할 방법은 없었다. KISE 문제점이 드러나자 양국은 2003년 체결된 부속서 대신 “공동 환경 평가 절차서”(JEAP)를 통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평가하기로 2009년 3월에 합의했다. 그런데 “공동 환경 평가 절차”는 KISE의 보조적인 절차로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게 처리됐으며, 오염이 확인될 경우 미국이 의무적으로 치유하도록 명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발효일 1967.2.9.)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 Return of Facilities)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민의 거대한 힘 보여준 계기

_ 이승현 전 녹색연합 사무국장



20대 후반의 청년은 이제 40대를 훌쩍 넘었다. 오랜 기간 미군기지 문제로 현장을 누볐던 그가 현장 활동가로 주한미군 측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때 힘이 된 것은 '시민들의 응원'이었다. 경적을 울리며 힘을 불어 넣어주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시민이 하나로 뭉쳐 결국 주한미군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주한미군과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0년 캠프 룡에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미납, 헬기장 소음피해가 있었어요. 캠프 룡의 역할이 뭐였냐면 캠프이글에 아파치 헬기부대의 병참, 병원도 있었는데, 헬기 피해는 병원의 환자를, 타 지역의 미군 환자가 헬기 이·착륙장이 부대 한쪽 끝 외곽에 있었는데, 유에이치 60이나 시누크 헬기가 왔어요. 오면 기왓장이 날아갈 정도였어요. 바람이 일반 헬기의 두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 입은 집에도 갔었습니다. 기와집인데, 기왓장이 막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원주시에 이야기하고 미군 측에도 이야기 했는데 헬기장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쪽으로 옮기라고 호소를 했는데 미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기장 인근, 피해자 집 근처에 가서 현수막도 붙이고 했습니다. 실제 시누크 헬기가 오는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녹색연합이 서울에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주로 했어요. 환경운동연합보다는 훨씬 활동이 컸어요. 그런데 병참역할을 하고 있던 캠프 룡에서 기름유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명을 냈어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던 중에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하고 원주시민연대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헬기장 이전해라' '수도·전기 요금 내라' '환경오염 문제 사과하라' 등의 활동을 하던 중에 2001년 5월 캠프 룡에서 기름유출이 되었는데 원주MBC에 먼저 나왔어요. 주민이 자신이 농사를 짓는 논에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제보를 받고 김동희 전 기자가 방송을 해 전국적으로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기존에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헬기장과 수도·전기 요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던 중에 캠프이글에서도 기름유출이 있었어요.

캠프 룡에서 계속 피해가 있었습니다. 2000년 당시 이슈가 되고 전기료나 수도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왜 납부하지 않는가란 정서도 있었어요.

5월에 문제가 터지면서 지역의 시민단체나 시민 관심을 가지면서 단체가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책임을 맡은 곳은 어디였나요.

원주시민연대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가 앞장 섰는데, 당시 정평위는 사무국과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가톨릭센터 2층에 있었고 신부님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01년 5월 캠프 룡 사태가 터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로 확대되면서 대책위가 꾸려지고 책임단체를 정평위하고 환경운동연합이 하기로 했습니다. 책임단체 두 곳에서 실무자를 파견하게 됐는데 윤요왕 정평위 사무국장과 노형철 실무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제가 파견됐습니다. 그때는 출근을 캠프 룡 앞으로 했어요. 그리고 천막농성이 거의 바로 시작되었어요. 강력하게 대응을 하자고 해서 말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싸움이 많이 부담스러울수도 있었을텐데요.

기존의 헬기장 소음피해와 수도·전기료 미납 등의 상황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시민들도 폭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막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대다수 단체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미군기지 앞에서 천막농성 사례가 없었고 가능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부담부터 책임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천막농성을 한다고 해도 미군의 사고는 물론 피해보상도 안 할 확률이 높는데 우리가 끝까지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접을 수도 있다, 그럼 무슨 명분으로 접을 것이냐, 천년 만년 천막농성을 할 것이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평위와 환경운동연합이 결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를 파견하고 끝까지 가자라고 해서 정평위와 환경운동연합이 밀어붙인 겁니다. 당시 정평위는 인권문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활동 등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제일 감동 깊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언론에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미군기지 앞에서 하는 전국 최초의 농성일 수도 있었으니 전국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함께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토요집회는 이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뭐냐면 미군기지 앞에서 토요집회를 할 때 입구 한쪽, 즉 시내에서 원주나들목 방향으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적을 울려주세요'라는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원하시면 경적을 울려주세요'라고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토요집회를 하면 신호에 걸려 4차선 도로에 서 있던 차량들 모두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회자가 멘트를 하는 것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두 경적을 울렸습니다. 단골 경적 차량도 생겼어요. 시내버스, 청소차 등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런 반응을 통해 시민 여론을 가늠할 수 있었지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농성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천막 앞에 햄버거와 김밥, 물, 음료수 등이 쌓여있어요. 동화속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경적이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경적도 계속 울려줬어요.

이런 활동 덕분에 주한미군 최초로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 보상도 약속했고요. 복원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인간띠잇기 할 때 CIA한국지부에서도 왔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언론에는 연일 나오니까 직접 확인을 온 것 같아요. 농성장에서의 분위기나, 경적 등을 말입니다. 미군 정보기관에서도 심각하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였습니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역시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시작은 시민단체에서 했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 낸 것은 시민들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시민단체 내부 이견이었습니다. 거대한 사안이고, 거대한 대상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캠프롱에 의견을 내면, 미군은 직접 우리 의견을 안 받더라고요. 원주시나 경찰을 통해 의견을 내면 외교부로 가고 외교부에서 다시 미 대사관으로 가거나, 용산 미군기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역 같은 곳이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 싸움을 얼마나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며 우리 역량상, 이런 고민, 고뇌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간다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주녹색연합이 생겼습니다.



윤요왕 국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그 중심에 고정배 신부님이 독심 있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훈 신부님도 많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수녀님들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천주교가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누구도 터치를 못했어요. 공권력도 신부님들을 함부로 못했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천막농성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부님들이 책임지겠다고 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띠잇기 대회 할 때 등 운영비도 책임지겠다고 1,000만원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최기식 신부님도 큰 힘이 되었어요. 후원금도 꽤 모였고요. 당시 활동을 하면서 수 천 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화폐가치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있었다면.

인간띠 잇기는 워낙 유명한 퍼포먼스였고요. 다른 것이 있다면 토요집회 끝나면 자장면을 먹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미군 측에는 큰 부담이었을테니까요. 우리가 또 상징을 검은 색으로 했어요. 기름이 죽음을 상징하니까요. 미군기지 철조망에 외부 방문단이 많았는데, 전국의 다른 단체들도 왔습니다. 검은색 천을 만들어서 흰색 화이트로 글씨를 써서 캠프롱 울타리에 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천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찰도 있었습니다. 철조망 안쪽에 서는 계속 달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천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많이 달리면 우리가 없을 때, 특히 밤에 잘 때 뜯어 버리더라고요.

실제 미군들하고 부딪힌 적도 있었는지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스티커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보고 영어로 뭐라뭐라 하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는 천막에서 자고 있을 때 누가 칼로 천막을 막 찢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군이 그랬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랬어요.

에피소드 중 하나는, 토요집회를 하거나 상주를 하니까, 어느날 봤더니, 미군들이 번호판을 안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한 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그러는 겁니다. 어떤 차는 번호판을 다른 곳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군이 과속하거나 함부로 운전할 때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닌 거였어요. 우리가 미군이 상습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토요집회 하던 날 무적차량인 스포츠카 한 대가 왔어요. 토요집회가 미군기지 앞을 막고 하니까 차가 오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스포츠카를 둘러싸고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미군이 차에서 2시간 정도 안 나왔어요. 미군도 철조망 안에 있으니까 못나왔어요. 당시 경찰과 신부님이 협상을 했어요. 운전을 하던 미군은 캠프롱 한국인 관계자가 나와서 데리고 가고, 스포츠카는 견인차가 견인해 가기도 했지요. 그것도 전국 언론에 나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군용은 무적차량이 없는데 개인차량은 대부분 무적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군의 사과를 이끌어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결정적인 것은 상지대 서 용찬 교수님이 분석을 했는데, 그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환경부에 근무했어요. 미국 환경부가 미군을 관리하는데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상지대에 시설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군만이 쓰는 기름이 있었어요. 성분이 다른 기름인거죠. 그것이 나온 겁니다. 미군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미군이 손을 든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 의해서 손을 든 셈이죠. 그 성분을 DNA분석하듯이 기름의 성분을 분석했어요. 미군이 쓰는 기름하고 유출돼 분석한 기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을 못한 거죠. 여기에 지자체와 언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다른 방법 없이 물린 거죠.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했어요.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분위기가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밥은 대책위에서 먹고, 잠은 천막에서 자고, 차를 티코를 끌고 다녔고, 음향은 정평위 것을 사용했어요. 경찰들과의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엄청 많은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토요집회 등을 하면 경찰서장이 오기도 했고, 다급하면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주민이 기름 묻은 벼를 뽑아와 미군 기지로 던지기도 했는데 경찰서장이 나와서 대표단에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당시 대표가 최준길 상지대 교수와 고정배 신부님이었습니다.

사복 경찰과 전경 등도 있었는데, 사복 경찰과 집회 참여자하고 몸싸움이 났어요. 우리가 서장 먹살잡고 막 흔드니까 사복 경찰은 난리가 났어요.

좀 더 큰 집회를 하면 지방청에서 와 현장을 지휘하기도 했지요. 경찰도 큰 틀에서 우호적이었어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미군 정보기관과 국정원에서도, 보안사 등 정보라인이 붙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과 얼마 전, 국정원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데 국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줘 우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미군이 사과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2008년 기름 유출 사건은 사실 경찰이 알려준 겁니다. 경찰이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알려준 겁니다. 2001년도에는 사법처리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보기 드문 일이죠. 어쨌든 불법 집회와 업무방해도 많았는데, 시민들의 분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내 일신문 등에 보도가 되면 거의 모두 스크랩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방송과 중앙 지역 언론에 줄기차게 나온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1군사령부는 캠프롱사용계획 즉각 철회하라...!!

2005년 8월 30일 | 보도자료

제10야전군사령부는 일방통행식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50년 동안 원주시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피해, 도시개발 제한 등의 고통을 국가안보를 위해 참고 인내해 왔다. 미군기지로 인한 원주시민의 고통은 2004년 10월 26일 한미당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으로 2008년 완전반환이 합의됨으로서 끝이 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원주는 50년 동안의 고통을 끝 내기는커녕 이중의 고통을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의 매각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제10야전군사령부의 반환기지 사용계획의 철회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50년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원주시민들의 희망은 제10야전군사령부의 기지사용계획으로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에 원주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와 함께 지난 11월에 원주미군기지반환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원주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제10야전군사령부는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제1군의 설명자료는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도 폐쇄되는 미군기지 활용여부는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주민적인 협력을 얻어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반년이 넘도록 무상양여를 촉구해온 원주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이상 국가안보를 담당해온 지역들은 미군기지의 존재로부터 많은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반환받을 땅에 대한 이용권을 가져야 하고 또한 개발이익 역시 지역주민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제10야전군사령부의 반환미군기지 사용계획은 50년 원주시민의 바램인 미군기지가이전을 지역의 축복이 아니라 지역의 장애물로 만들고 말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반환미군기지가 온전하게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와 전쟁의 명예와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원주시민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제10야전군사령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10야전군사령부는 캠프롱 사용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2. 제10야전군사령부는 원주시와 일체의 협의 없이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캠프롱 사용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3. 제10야전군사령부는 범시민대책위와의 대화를 통해 원주시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4. 제10야전군사령부는 미군기지반환이 지역발전의 축복이길 바라는 50년 원주시민의 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2005. 7. 15

원주미군기지반환범시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원주시의회, 원주상공회의소, 원주YWCA, 원주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원주시협의회, 원주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 21세기정책연구소, 남부시장변영회, 원주시개인택시조합, 사회복지법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여성농업인원주시연합회, 원주YMCA,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우산동풍물시장변영회, 원주모범전자회(사), 원주밥상공동체, 원주시해병대전우회,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원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원주예총), 원주청년회의소, 원주청년회의소특우회, 음악협회원주시지부, 대한건축사협회원주시지역건축사회, 대한노인회원주시노인회, 대한민국의사협회원주시지회, 대한민국의사협회강원도지부원주시분회, 대한민국의사협회강원도지부원주시분회,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 사단법인대한수련관리협회원주시지회, 사단법인원주시새마을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원주시지대, 사회복지법인빨노파교통봉사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원주시지부, 전국부동산협회원주시지회, 전국택시산업조원주시지부,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주8군분회, 중앙시장변영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원주시지부, 한국부인회원주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원주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원주시지회, 한농연원주시연합회,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협동조합운동협의회, 원주녹색연합

지역상황 외면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반대한다.

2005년 12월 21일 | 보도자료

지역상황 외면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반대한다. 원주소재 36보병사단이 '1군사령부와 36보병사단 주변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겠다' 밝히고 있다. 1군사령부는 부대 울타리로부터 25m~최고500m 까지 60만 8천여㎡, 36보병사단은 울타리로부터 부대인근 500m까지 29만여㎡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원주는 지난 50년 동안 군사도시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유·무형상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도심발전은 저해되었고 도시의 형상은 인근부대들로 인해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데 다 시금 군의 계획대로 대규모 보호구역이 추진된다면 원주시의 권역별 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며 소초면, 가현동, 태장동 등 해당 주민들도 또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 캠프롱의 한국군부대 사용조차도 주변 지역과 원주시의 도심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해소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황에 있으며 원주소재 제 10전군사령부와 36보병사단은 부대의 위치가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대적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이에 '원주미군기지방환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 10전군사령부와 36보병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계획은 전면철회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21일

원주미군기지방환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신 박대암 박인수 * 범시민대책위 참가단체: 원주녹색연합, 원주시의회, 원주상공회의소, 원주YWCA, 원주여성민우회,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원주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 21세기정책연구소, 남부시장번영회, 원주시개인택시조합, 사회복지법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여성농업인원주시연합회, 원주YMCA,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우산동풍물시장번영회, 원주모범운전자회(사), 원주밥상공동체, 원주시해병대전우회,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원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원주예총), 원주청년회의소, 원주청년회의소특우회, 음악협회원주시지부, 대한건축사협회원주시지역건축사회, 대한노인회원주시노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원주시지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원주시지회,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원주시지회, 대한민국전동지회원주시지회, 대한의사협회강원도지부원주분회장, 대한한의사협회강원도지부원주시분회,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 사단법인대한수렵관리협회원주시지회, 사단법인원주시새마을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원주시대, 사회복지법인빨노파교통봉사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원주시지부, 전국부동산협회원주시지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원주시지부,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주8군분회, 중앙시장번영회, 한국노총원주시지역본부, 한국부인회원주시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원주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원주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원주시지회, 한농원원주시연합회,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협동조합운동협의회

2005



주한미군은 거짓말하지 마라!

— 미육군 험프리스 시설사령부 입장에 대하여 —

어제 날짜인 5월 19일, 주한미군은 “원주 캠프 롱에서 일어난 기름누출사고에 대한 주한미군측의 대응에 대해 한국 언론의 최근 기사들은 잘못 묘사”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주한미군은 오염사고의 초동조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기지 밖 오염된 기름을 최대한 수거했다고 언급하였으며, SOFA 절차에 맞춰 한미 실무회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변명을 일삼는 쪽은 미군이다.

미군은 “1차 검사결과를 보면 초기 기름유출 대응 작업은 성공적이었으며, 기름이 누출되었던 곳 주변에는 더 이상 지하에 부유하는 기름이 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주시가 오염사고 발생 후 추가 오염 조사 작업을 실시한 결과, 미군이 시인한 기름 유출 장소 이외의 6군데에서 추가 오염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인근 농지까지 오염시켰다. 미군이 주장하는 1차 조사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아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군이 밝힌 것처럼 지난 4월 23일, SOFA 규정에 따라 합동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실무회의에서 미군은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만 외쳤다. 원주시나 환경부의 입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미군이 마치 SOFA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실무회의에서 미군은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한국 정부에 통보만 했다. 오염지역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위한 한미 공동조사단의 구성은 거부했다.

미군은 “환경개선 운동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이 일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 이상 오염된 기지 외부의 정화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군은 KISE라는 애매모호한 오염 기준을 들어 기지 외부에 대한 치유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 시민들과 언론이 밝히고자 노력하는 것은 오염원인자인 미군은 기지 내부뿐 아니라 기지 외부에도 정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언론이 잘못 묘사하고 있다는 미군의 주장은 한국 언론과 국민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미군은 “우리는 기지 밖으로 누출된 기름을 최대한 수거했다고 생각”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군의 책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름만을 수거하는 것이 아닌, 땅 속까지 파고든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치유하는데 있다.

미군은 즉각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추진하여 오염 사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더 이상 원주시민들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군이 말하는 “좋은 친구” 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은 이번과 같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더 이상 한국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5년 12월 21일

원주미군기지반환범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 /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 녹색연합/민주노동원주시협의회 /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 / 성공회원주나눔의집/사단법인원주민예총 / 원주녹색연합 / 원주시민연대 / 원주여성민우회 / 원주환경운동연합 / 원주청년회 / 원주한살림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 전국교수노조상지대학교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원주시지부 / 21세기정책연구소 / 원주YMCA /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의회 원주미군부대(캠프롱) 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결의안 채택

2008년 4월 29일

원주미군부대(캠프롱) 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 지난 1999년 미군부대 캠프이글 폐유 무단방류 및 2001년 미군부대 캠프롱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미군 측에서는 배상은 고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의 미흡으로 최근 또다시 캠프롱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농수로와 토양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나아가 지금 또 어떤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며,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넘는 이 시점에서 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어 우리 원주시민들은 매우 큰 유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20일 부대 내 사고 현장 확인 시, 미군 측에서도 농수로에 유출된 기름은 미군 책임임을 인정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미 공동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의회는 불쾌감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환경생활권을 보장받고 동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동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반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공개된 공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원인은 인정하면서도 한미간 공동조사반 구성은 물론 조사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오염 회피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와 대책을 미군 측에서 미루고 회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적어도 피해자인 우리 원주시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군에서 오염원인자로 인정한 이상 원주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미군 측에서는 사고 경위와 대책, 보상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법과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반드시 취하여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미 원주시에서만 미군부대의 환경오염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방지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미군부대 오염사고는 재발되고 있어 미군 측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오염된 피해 지역의 복원 대책은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원주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불합리한 환경 분야 SOFA 규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근본적인 환경오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미군기지내 유류저장 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권 규정 신설과 토양오염 측정설비를 미군기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 04. 25.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주한미군은 한미 공동조사에 응하라!!

2008년 9월 18일 | 공지사향

주한미군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미 공동조사에 응하라!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주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미군 측은 SOFA가 규정한 환경조항 조차 이행하지 않고 한다. 또 최근 한·미 실무그룹 3차 회의에서는 “부대 내는 미군이 부대 밖은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공동조사는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다. 환경주권 침해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2002년 개정된 SOFA에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건 발생시 10일 이내에 “환경부, 지자체 등이 포함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동 그룹은 공동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 오염 제거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 개정 후 발생한 군산 미군기지, 서울의 캠프 캠프 등 전국 7곳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까지도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군의 오만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지난 2001년 캠프 롱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미군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원주 시민들은 60일간 천막 농성과 인간띠잇기 등으로 사령관의 사과, 오염지역 치유, 비용부담을 약속 받았다. 그런데 미군은 이 사건의 정화 비용인 1억 4천5백 여 만원의 부담을 거부해 지금까지도 원주시가 민사소송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또다시 미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치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한미군은 SOFA 환경조항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한·미 3차 실무그룹 회의결과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천명한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도 무시한 채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군은 이제라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주민피해 보상, 그리고 SOFA 환경 조항상의 한·미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추가로 확인된 유류오염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공동조사를 진행하라. 우리는 작금 미군 측의 오만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군은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당시 원주시민의 분노와 함성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미군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적극적인 시민행동과 원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망라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하는 등 우리의 환경주권을 지키기위해 끈질기고 강력한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미군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9월 18일

미군기지 캠프롱 2차 기름유출 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 /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 민주노동당원주시협의회 /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 / 성공회원주나눔의집 / 사단법인원주민에총 / 원주녹색연합 / 원주시민연대 / 원주여성민우회 / 원주환경운동연합 / 원주청년회 / 원주한살림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참교육학부모회원주시지부 /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 전국교수노조상지대학교지회 / 21세기정책연구소 / 원주YMCA /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사고' 시민대책위 구성

2008년 11월 6일 | 활동소식

강원 원주의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가 미군 측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자 원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원주시의회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시민연대, YMCA 등 35개 단체는 6일 오후 원주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을 구성했다.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공동대표에 원경목 원주시의회 의장 등 4명을 선임하고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프롱 미군기지는 지난 3월 12일 기름 유출사고가 확인된 뒤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열렸으나 미군 측이 “부대 내는 미군이, 부대 밖은 한국이 알아서 조사 및 복원하고, 공동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원경목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군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며 “범시민 대책위가 본격 가동되는 내달부터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사고' 시민대책위 구성
연합뉴스 2008.11.06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 원주시민모임 출범식 진행

2008년 12월 4일 | 공지사항

12월 4일(목) 오후 2시 원주시 태장동 미군부대 캠프롱 정문앞에서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 (이하 ‘원주시민모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기름유출 복원비용(1억5천8백만원)에 대한 미군의 부담요구, 2008년 3월, 4월 기름유출에 대한 사과 공동조사 및 복구 요구, 주민피해 보상요구, 그리고 2012년 캠프롱 반환 전 부대 내 환경오염의 완전한 치유를 위한 활동 진행 등을 다짐하며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의회와 원주YMCA 등 우리지역 40여개 단체가 함께 하는 원주시민 모임 출범식에는 원주시의회 원경목의장과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고정배 신부, 원주녹색연합에서는 정유선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원주녹색연합은 원주시민모임의 실무책임단체를 맡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출범선언문은 첨부 합니다.

출 범 선 언 문

2001년 미군기지 캠프롱의 첫 번째 기름유출로 주변의 농지가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당시 원주시민들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군의 사과와 오염된 농토의 토양복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캠프롱 미군기지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양오염 복원비용 지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08년 3월과 4월 두 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첫 번째 기름유출과 동일하게 지하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미군측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이다. 나아가, 당연히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해 진행해야 할 공동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안하무인적인 미군측의 태도는 얼마나 우리 국민과 원주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캠프롱 미군기지는 2012년 우리나라로 반환될 예정이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짓과 기만,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군의 태도를 보았을 때, 우리 원주시민들은 반환될 캠프롱 기지가 환경문제가 산적한 상태로 반환되어 또다시 우리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염 원인자인 미군 스스로가 기름유출과 토양오염 복원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한·미간의 합의도 지키지 않고 더 이상의 만남조차 인정하지 않는 미군의 태도에 매우 실망했으며, 원주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고는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001년 토양오염 복원비용의 지불을 요구하고 2차와 3차 기름유출에 대한 미군의 즉각적인 사과와 공동조사, 주민피해 보상, 그리고 2012년 캠프롱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깨끗한 땅을 돌려받기 위해 시민행동을 시작 한다.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캠프롱 미군기지가 깨끗하게 원주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열정적인 모습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8. 12. 4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

캠프롱 복원 중단...원주시 · 시민모임 충돌

2009년 6월 12일 | 활동소식



주 캠프롱 미군부대를 복원하려던 환경부와 원주시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원주시민모임이, 공사 차량의 부대 진입을 저지하면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 7시. 덤프트럭 두 대와 굴삭기 한 대가 캠프롱 정문으로 이동합니다. 부대 주변 오염 지역 정화 작업에 투입될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이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랑이 끝에 시청 공무원들이 강제 해산을 시도합니다. 몸싸움 장면 한 시간 가량을 대치한 끝에 원주시는 장비 철수를 결

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도/원주시 경제환경국장 “오늘 뭐 작업을 방해해서 못했으니까 차후에 잘 협의해가지고, 차후에 일정 잡아서 복구하는 걸로...”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은 복원 작업의 근거가 되는 캠프롱 정밀 조사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 오염 조사가 누락되고, 토양 시료 채취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고서의 신뢰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모임이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염 지역 복원 공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승현/원주시민모임 사무국장 “오염된 토양을 진정으로 복원하려는 것 보다는 이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거나 미군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번주 토요일 원주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일방적인 캠프롱 복원 사업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강탁균입니다.

강탁균기자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원주캠프롱

기름유출!

〈보도자료〉 미 육군 헬프리스 시설사령부 공보실

2008년 5월 16일

헬프리스 캠프는 최근 2008년 3월 12일 원주 캠프 롱에서 일어난 기름 누출사고에 대한 주한미군측의 대응에 대해 한국인본의 최근 기사들은 잘못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프리스 기지 3지역사령관 존 퍼틀린 대령에 의하면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누출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캠프 롱 관계자들은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헬프리스 사령부 원주기지 시설부대 관리관 브렌트 에이레이크에 의하면 헬프리스의 공공작업담당관이 누출 양을 측정하고 담장 바깥에 위치한 배수도에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부대직원들이 기지 담장 바깥에 위치한 배수도에 흡수 패드와 방제를 했습니다. ...중략... 이어 에이레이크는 헬프리스 공공작업담당관이 "하루에 두 차례씩 2주 동안 기름이 더 이상 확인이 안될 때까지 흡수 패드를 사용했습니다" ...중략... 이번 사건동안 헬프리스 시설기지측은 원주시 환경담당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복구작업에 대하여 협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SOFA규정에 따라 한국 담당자와 합동 실무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추가적인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퍼틀린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도 인정하고 있는 캠프롱 기름유출 !!

그.려.나 ...

- 주한미군 측 "본 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 계획은 없다." 라고 밝힘 !
- 또 다른 오염원에 대해서는 "본 건과 별개이므로 논의할 의사가 없다." 라고 밝힘 !
- 향후 본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 라고 밝힘 !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http://cafe.daum.net/wjretake>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http://cafe.daum.net/wjretake>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2차 3차 기름유출 경과

- 3월 12일 원주시 환경보호과 캠프롱 미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된다는 시민제보 접수(오후 5시)
방제작업 실시, 환경부 통보
- 3월 14일 원주녹색연합,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시청 중장미들 동원해 약 1m 도랑 굴착 후 지하수와 토양오염 시료채취
미군 측 흡착포 설치, 유화제 살포, 환경부에 유출상황에 대한 서면통보
- 3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 토양 오염농도 분석결과 한국 오 정유회사 정유성분 검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수치는 2만4000mg/kg 확인
TPH 우려기준(2000mg/kg)을 10배 이상 초과 확인
주한미군 FEED(미국농공명단) 원주캠프롱 방문
"FEED(미국농공명단) : 미군기지환경문제 발생시 정밀조사 및 복원을 담당함"
- 3월 21일 주한미군 측 SOFA 환경분과위원회 환경부에 공동실무위원회 구성 유선으로 제안
- 4월 25일 원주시의회 "원주미군부대(캠프롱) 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결의문 채택
- 5월 9일 법무부 2001년 캠프롱 오염정화비용 소송 항소
- 5월 23일 주한미군 측 공동실무그룹 2차 회의 8월초 진행 요청함
- 9월 8일 원주KBS 한미 3차 실무그룹 회의결과 보도
- 6월 ~ 8월 한미간 실무그룹회의 3차례 진행(환경부, 원주시, 주한미군 관계자 참여)
- 5월 ~ 9월 원주시의 시민사회단체 대응관련 3차례 전체회의 진행
- 5월 ~ 현재 미군기지캠프롱2차 기름유출대책위원회 회의 수차례 진행

주한미군 측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

라고 밝힘 !!

SOFA 환경조항 이행 않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

환경부는 허수아비인가 환경주권 지켜내라 !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캠프롱 미군기지가 깨끗하게 원주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열정적인
모습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 프로그램 : KBS원주방송국 1R <FM 97.1> 영서남부권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 ▶ 참여시간 : 2010. 5. 18 (화) 08:39 ~ 08:45 (약 6~7분간)
- ▶ 담당 및 진행 : 한태호 아나운서
- ▶ 작 가 : 박선영
- ▶ 출 연 : 이승현 사무국장, 원주녹색연합

원주 주한미군기지인 캠프롱이 반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음 달 기지폐쇄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기지 폐쇄 후 반환절차를 거쳐 우리 손으로 돌아오기까지 환경오염문제 해결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원주의 주한미군기지 캠프롱이 반세기만에 폐쇄되네요?

정확히 언제 폐쇄식이 진행되는 거죠?

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창설돼 원주에 주둔했던 미군기지 캠프롱이 약 50여년만인 오는 6월 4일 폐쇄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사령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4시45분 캠프롱 영내에서 80여명의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관, 원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 폐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지 폐쇄식에서는 국가 연주와 태극기·성조기의 하강식에 이어 태장동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고별만찬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캠프롱이 폐쇄되면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남게 되며 국방부로 최종 관리권이 넘어가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일단 미군기지로써의 기능은 폐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기지 소유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캠프롱의 재산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지가 폐쇄된다고 소유권이 한국 측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기지의 소유권은 향후 반환이 최종 승인돼야 한다.

3) 반환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에 따른 치유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캠프롱 기지내 환경오염문제부터 짚어보죠. 이미 수년에 걸쳐서 수차례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오지 않았나요?

1996년 11월 원주 캠프롱 쓰레기 불법매립

2001년 5월21일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2008년 3월 12일 세 번째 기름유출 사건

4) 문제는 오염의 정도를 제대로 조사하기조차 힘들었다는 건데요.

현재 캠프롱내 환경오염 정도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부지 외곽으로 드러난 환경오염사건이 없었던 미군기지들에서도 반환 후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캠프롱은 반환전부터 수차례 오염 사건이 드러난 곳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기지 반환이 되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춘천의 경우는 심각한 오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오염 정도를 공개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원주도 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기지 폐쇄 이후 환경오염치유 문제 등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나 주민의 참여 등은 철저히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을 두고 한·미 양측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 미군은 자신들의 유리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한국측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염이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반환받게 된다.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복원비용 문제도 제대로 논의가 될텐데요.

기지 폐쇄 이후 반환 절차 과정에서의 논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반환과정에서 치유수준과 정화방법, 복원비용 등의 협의가 이뤄진 뒤 SOFA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이 최종 승인돼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기지 캠프롱은 수차례의 환경오염 사건을 겪었고 반환 후 대표적인시민공원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환경오염이 확인된다면 철저히 복원된 후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그런데요. 앞으로 캠프롱 기지는 어떻게 활용이 될 예정인지... 혹시 계획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서도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세워졌다.

8) 무엇보다도 우리의 환경주권을 제대로 지키려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군기지 반환 문제,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죠?

네 미군기지 캠프롱은 반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철저히 확인되고 또 오염원이 있다면 철저히 복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추세도 오염을 시킨자가 오염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만이 깨끗한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2014 캠프 룡 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_ 원주시의회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캠프롱 부지 조속히 원주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주시민과 태장2동 주민들은 요즘 매우 침통합니다. 오매불망 고대하던 캠프롱 문화체육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캠프롱 부지 매입비 78%(515억 6,500만원)가 납부되고 2016년 6월이면 665억 전액이 지불되는데 공여지 반환 등의 행정 절차가 캠프롱내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오염복원 문제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반환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SOFA협정이니 환경주권이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65년간이나 규제를 받았고, 기름유출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 발전에도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시민들의 꿈을 누가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그 누가 희망찬 우리 원주시의 미래를 지연시킨단 말입니까.

원주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합니다.

- 하나, 국방부는 원주시와의 협약대로 이유여하를 떠나 캠프롱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 하나,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조로 캠프롱 부지 반환을 위한 SOFA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 하나, 정부는 캠프롱 부지의 원주시 반환 시기를 하루빨리 결정하여 통보하라
- 하나, 정부는 캠프롱 공원조성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허용하라

이에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하여 캠프롱이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추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캠프롱 조기반환 촉구 서명부 정부 전달

원주 12만528명 동참, 연내 반환 요구

캠프롱 조기 반환 의지가 담긴 원주시민 12만명의 서명부가 정부에 전달됐다.

캠프롱 조기 반환 촉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상운)는 24일 환경부와 국방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캠프롱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캠프롱 부지를 원주시민의 품으로 넘겨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총 12만528명으로 원주 전체 인구의 약 36%에 달했다.

원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폐쇄된 주한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에 34만㎡ 규모의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13년 6월 국방부와 부지매입 계약을 했다.

그러나 부지내 토양오염 복원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시가 부지 매입비를 거의 완납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지 반환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부지내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신상운 위원장은 "지역 열망과 여건을 감안해 연내 반환이 가능토록 정부가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녹색연합(GreenKorea)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신수연

성명서

오염 책임 회피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부평·원주 미군기지의 반환협상 지연은 미군의 꼼수

-조속히 정화하고 반환하라

최근 부평·원주의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두 지역에서 각각 주민설명회(19일 부평)와 지역간담회(26일 원주)가 열렸다. 한미 간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 추진 경과에 대한 지자체의 설명, 질의응답, 반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성토가 오갔다. 기지 반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오염 문제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에 대해 정화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미군 측이 대립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60여년 이상 사용한 기지의 오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하는 것은 참으로 편편한 행태이다. 오염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부속서에 있는 환경조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반환협상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대부분은 유류,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로 허용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현재 협상 중인 부평의 캠프마켓 및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류시설), 원주의 캠프롱 역시 심각하게 오염되어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들이다. 2012년 부평구, 2014년 환경부가 부평 캠프마켓과 DRMO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 및 중금속 물질뿐만 아니라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의 24배 이상 검출되었었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심토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보아 다이옥신의 특성상, 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을 매립하는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원주의 미군기지 캠프 롱 역시 2001년, 2008년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2014년 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식유계총탄화수소, 크실렌, 6가크롬 등의 물질에 오염되었으며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하다고 조사된 곳이다.

상태가 이러한데도 오염 정화를 거부하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주한미군의 꼼수를 규탄한다. 오염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했다는 '위해성평가'에서 위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는 미군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금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오염의 정화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 기지 반환 이후 지자체나 민간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오염 부지의 정화 처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협상의 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을 우리 스스로 부담하는 굴욕외교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26개의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신뢰 받는 상생 의회"



원 주 시 의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용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문 송부

1.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19)에서 채택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용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문」을 송부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 :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 전병선 부위원장, 권영익 위원, 김학수 위원,
유석연 위원, 곽희운 위원, 이성규 위원)

붙임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용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문 1부, 끝.

원주시의회의장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현 국회의원
원 당선자

주무관 정진복 의사담당 임미남 전문위원 권순원 의회사무국 전임 2016. 5. 19.
의회사무국장 송경남

업조자

시행 의회사무국-3210

접수

우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 <http://www.wonju.go.kr>

전화번호 033-737-5022 팩스번호 033-737-5025 / solell99@korea.kr / 대국민 공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문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한 주한미군기지 캠프롱은 1951년부터 주둔하여 그동안 소음, 기름유출,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캠프롱 주변지역 및 북부권 발전뿐만 아니라 원주의 관문인 태장동 지역 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계획에 따라 개발에 소외되었던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1군 사령부 및 국군병원, 캠프롱 등 군사시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1,107억원(국비 451억, 시비 65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캠프롱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주한미군 캠프롱 기지 폐쇄 이후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강원도발전종합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2013. 6. 24. 국방부와 캠프롱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 체결 후 2013년부터 매년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납부해 왔음은 물론 지난 3월 23일 협약대금 665억원을 완납하는 등 국방부와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여지 반환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민을 대신하여 2015. 5. 18.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 시행한 바 있으며, 캠프롱 조기 반환 촉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여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120,528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부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하였고 원주시에서도 총 38회에 걸쳐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캠프롱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원주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원주시의회와 34만 시민의 오랜 염원과 의지를 모아 캠프롱 부지는 반드시 조기에 반환 되어야 함은 물론 토양정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가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재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2013. 6. 24. 원주시와 체결한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에 따라 부지 매입대금이 완납되었으니 2016년 6월까지 공여지 반환은 물론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미 이행 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한다!

하나. 캠프롱 부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공여지 반환을 위한 SOFA협상의 신속하고 명석한 처리를 강력히 재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절차 상 토양오염의 치유 주체 결정 부분이 새로운 당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협상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라 아니할 수 없다!

2016. 5. 19.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원주 캠프롱 조기 반환 촉구

사드 배치 반대 비대위
원주 불가 재확인 집회
수도권 방어 중강 계획
캠프롱 거론 사전 방지

사드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최근 원주전역에 확산된 사드 원주 배치 반대운동이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롱 부지 반환 운동으로 전면 전환된다.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재일·신상운·현원섭, 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원주시청 앞에서 시민 켈기대회를 열고 '사드 원주 배치 불가'를 재확인했다.

이날 켈기대회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최종 확정했지만 정치적 영향에 따른 결정 번복 등 반박의 경우를 대비해 원주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정부에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책위는 국방부가 사드배치에 이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중·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중강 계획에 따라 또



13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확정된 가운데 원주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이날 원주시청 앞에서 캠프롱 부지 조기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 원주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현원섭 공동위원장은 "캠프롱 부지는 기지 폐쇄 후 6년이 지나고 부지대 일대까지 완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근 농지 오염, 부지대

대단위 복합공원 조성 사업 계획 차질, 여기에 사드 원주 배치설까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캠프롱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원창국 시장은 이날 켈기대회에서 "사드가 원주에 배치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정부가 틈만 나면 캠프롱 일대를 거론하면서 지역 개발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의 재발을 막고 원주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35만 원주시민의 이름으로 캠프롱 부지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13일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최종 발표했다. 원주/박성준

복원비 갈등 속 조기반환 건의만 54회

인내심 한계 이른 지역사회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롱은 2010년 6월 성조기를 내렸다. 폐쇄된 지 6년이 넘는 지금, 캠프롱의 공여지 반환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주시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의회까지 나서 강력하게 공여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반환절차 왜 늦어지나=원주시는 지난 3월 캠프롱 부지 매입대금 665억원 전액을 국방부에 완납하면서 곧바로 부지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반환 예정 시기인 지난 6월을 넘긴 지금까지 부지 반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원 조성 착공마저 불투명한 지경이다.

이는 정부와 주한미군 간 토양오염 해결방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SOFA 협정에 따라 오염된 부지는 주한미군이 자체비용으로 정화한 뒤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군은 SOFA 협정을 내세우며 오염 수준이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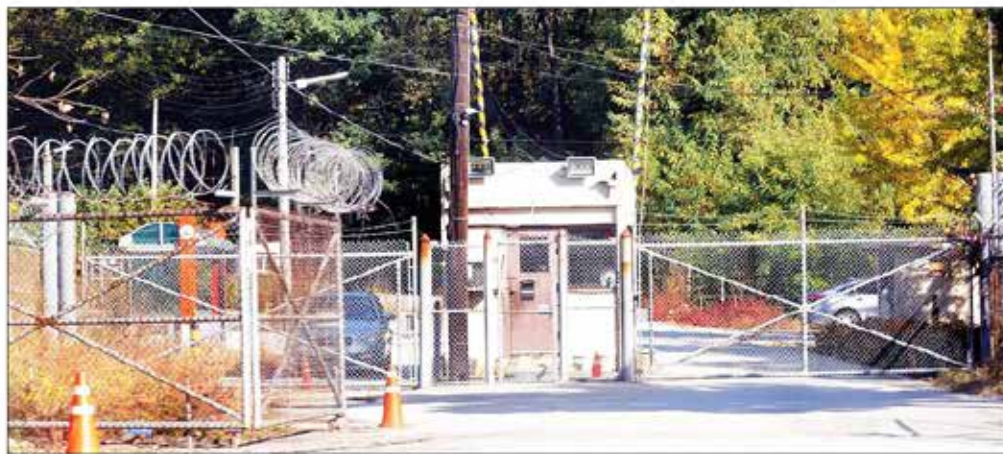
SOFA 놓고 해석 서로 달라
원주 매입비 665억 완납 불구
반환 지연 공원조성안 중단
시민단체 "오염 정화 우선"

■지역사회 반발=2013년 6월 24일 국방부와 원주시가 캠프롱 부지매입협약을 하면서 시는 다음 해인 2014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에 본

격 착수했다. 그러나 2015년 들어서도 반환이 지연되고 주한미군의 캠프롱 출입제한에 따라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용역이 중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을 들어서는 토지매입협약 대금 완납에 이어 국무총리 방문 시 조기 반환 건의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달까지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한 캠프롱 조기 반환 건의 건수가 54차례에 달할 정도다.

■향후 전망=원주시가 부지를 반환받더라도 토양오염 복원사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원 비용도 천문학적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 활동국장은 "한·미 간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두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것"이라며 "부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원 조성계획을 우선시하기보다 토양오염 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원상호기자 theodoro@



◇2010년 6월 폐쇄된 옛 주한미군기지 원주 캠프롱이 24일 6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반환되지 않은 채 굳게 잠겨 있다.

원주=오윤석기자 papersuk1@kwnews.co.kr

외교부공고 제2019-197호 (캠프롱 반환 승인)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 주요 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8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juhee84@korea.kr

●외교부공고제2019-19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4개 기지(캠프호비, 캠프이글, 캠프롱, 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4개 기지(캠프호비, 캠프이글, 캠프롱, 캠프마켓)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캠프호비 세아 사격장에 해당하는 13.0835 에이커(약 52,947 평방미터), 캠프이글에 해당하는 113.376 에이커(약 458,810 평방미터), 캠프롱에 해당하는 83.638 에이커(약 338,468 평방미터), 그리고 캠프마켓 파슬 A와 B에 해당하는 52.08 에이커(약 210,765 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12월 11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II, Paragraph 1,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FA Joint Committee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four camps(Camp Hovey, Camp Eagle, Camp Long, Camp Market) as follows. The 13.0835 acres (approximately 52,947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Shea Range of Camp Hovey, the 113.376 acres (approximately 458,810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Eagle, the 83.638 acres (approximately 338,468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Long, and the 52.08 acres (approximately 210,765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Parcels A and B of Camp Market are to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1 December 20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16	31615fd79e48582a42b0e3a8727dc4c3
2019-12-17	9e34495bfe958c5ca718fbe6853b1b48
2019-12-18	27ed708f8041b373d811a610badbea3
2019-12-19	48d01c61e9ced036b70113cbc49061b4
2019-12-20	0983c131bcc71f917b5e633ff416061d
2019-12-21	1e238ad881e95f16b8e456e15a1e1af4
2019-12-22	8cc9d9af970bb76ea45aefb9c4c3b97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19호

「밀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5조)

국산밀 신수요 창출 및 소비촉진, 밀 가공품 수출 촉진 등 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나. 생산·유통단지 지정(안 제6조)

밀 품질관리 체계화 및 규모화·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을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으로 설정함.



10

우리 땅 캠프 롱

2020 캠프 룡 토양시료채취 주민 참관







원주 캠프롱 69년만에 다시 활짝

원주시 19~25일 일주일간 개방행사 개최

【원주】69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원주 옛 미군기지 '캠프롱'이 주민들에게 문을 활짝 연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4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9~25일 1주일간 캠프롱 개방 행사인 'CAMP 2020'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공연 등으로 부지 반환을 축하하고, 캠프롱의 활용 가치를 찾는 자리로, 문화도시 원주의 특별한 시민축제로 꾸며진다.

첫날인 19일은 문화도시 원주 선언 및 개막식에 이어 밴드 초청 공연, 문화도시 포럼이 마련된다. 20일에는 김소영 캘리

그래피 작가의 축하 퍼포먼스와 원주시민 공연,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 전시관에서는 유명 뮤지션인 나일을 비롯, 설치미술 분야 창작자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원주시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출입자를 가급적 시민으로 제한하고, 입장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신원 파악, 소독용품 비치, 관람객 안전거리 유지 등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태장동 일원 34만4,332㎡ 규모의 캠프롱은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가 2010년 6월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방치되다 지난해 12월에서야 원주 반환



◇원창묵 원주시장은 4일 원주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CAMP 2020' 개최를 밝혔다.

이 결정됐다.

시는 캠프롱에 국립원주과 학관, 시립미술관, 원주시역사 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 시설을 조성해 시민휴식공간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 시장은 "오랜 세월 굳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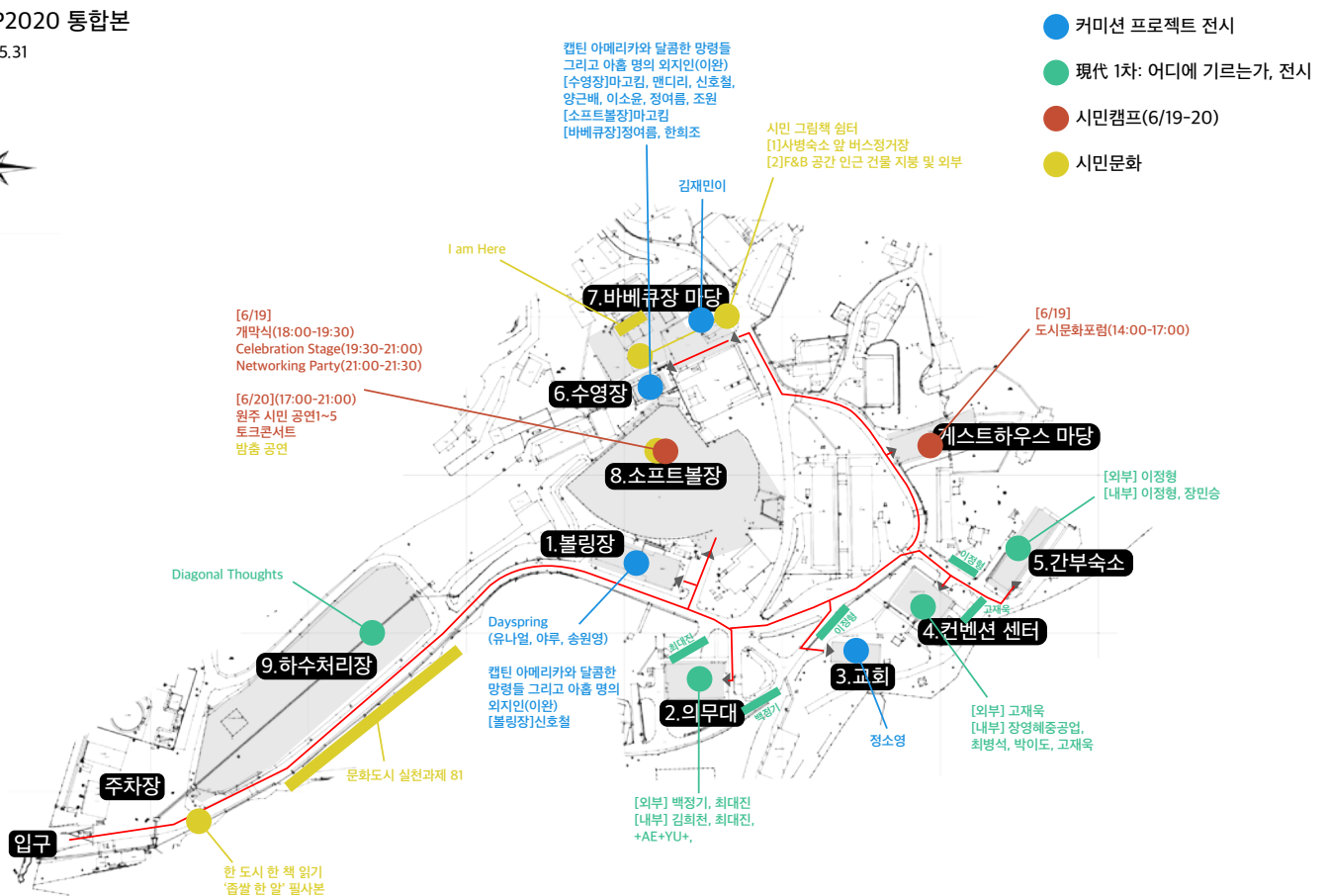
닫혔던 캠프롱의 철문이 시민에게 열려 직접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걷는 부지 반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마련된 자리"이라며 "개방 행사 기간 곳곳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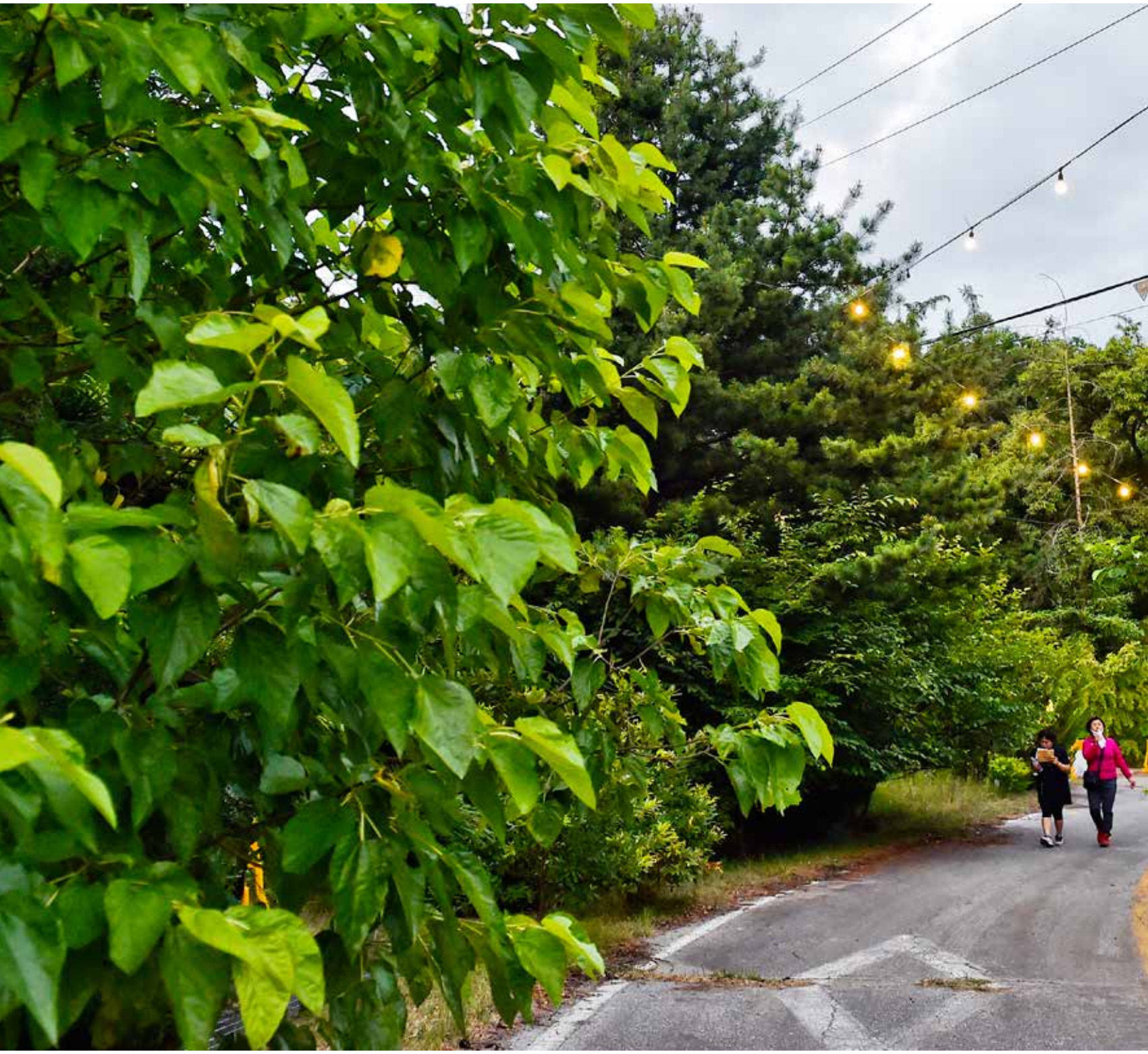
CAMP2020 통합본

2020.05.31













P2020CAMP202

존중



참 고 자 료

- 국가기록원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 네이버 지식백과
- 원주녹색연합
- 원주시 도시재생과
- 원주시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 원주시역사박물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화보
- 전쟁기념관 아카이브

도움주신 분들

- | | |
|-------|-------|
| • 김건수 | • 용정순 |
| • 이안국 | • 신상준 |
| • 이승엽 | • 신상국 |
| • 이호천 | • 정휘탁 |
| • 이승현 | • 한우택 |
-

기록화사업(사진아카이브) 태장2동 캠프 롱

사 업 기 간 | 2020. 12. 18 ~ 2021. 08. 14

발 주 처 | 원주시 도시재생과

수 행 기 관 |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 033) 747-3334

총 괄 기 획 | 김시동

책 임 연 구 원 | 김철환, 이기원, 이새보미야, 원상호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발주처인 원주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장2동 캠프 룡

기록화사업(사진아카이브)